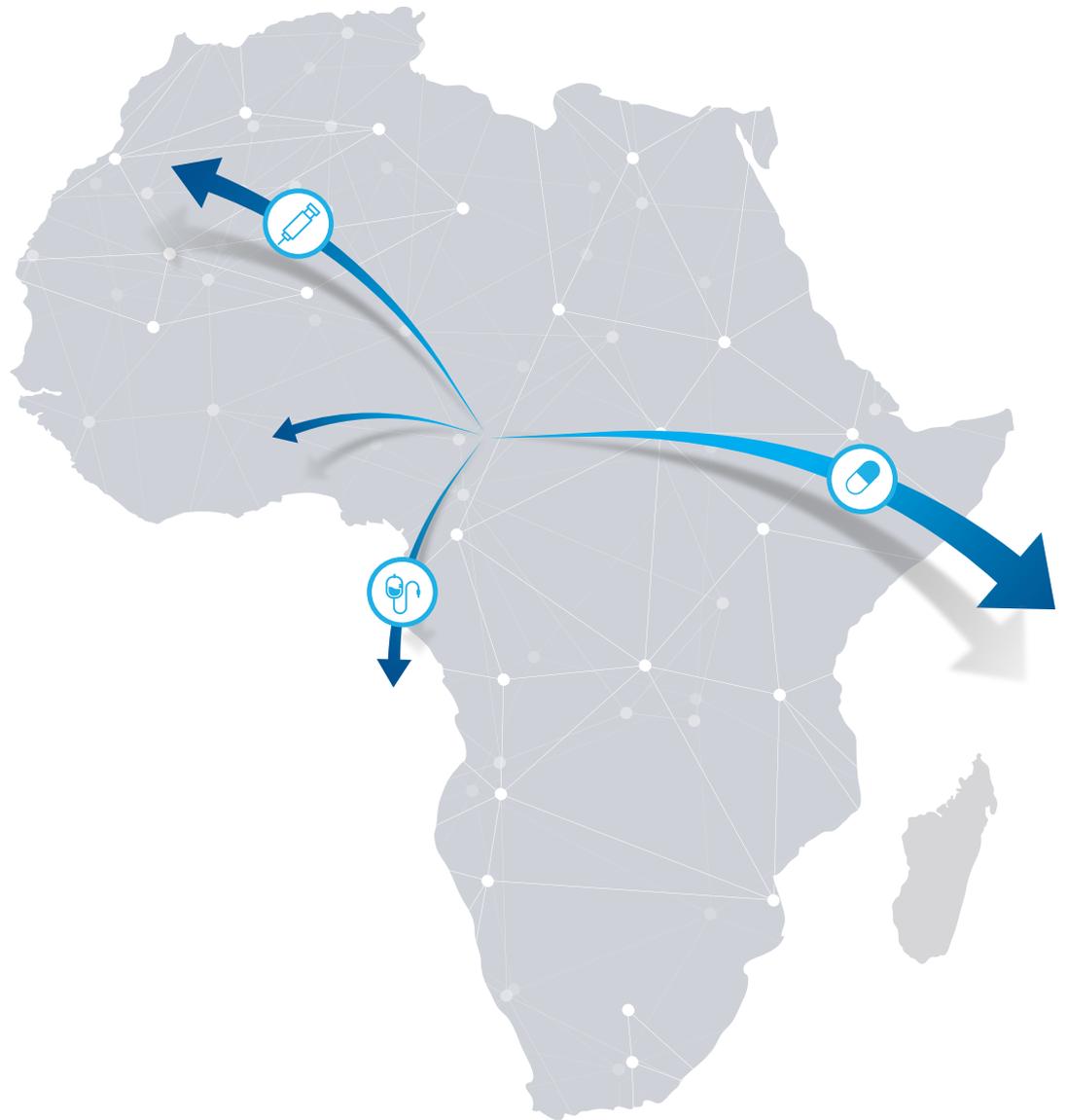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요 약 / 1

I .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개요 / 3

II . 국가별 시장 현황 및 특징 / 13

1. 남아프리카공화국	15
2. 케냐	33
3. 나이지리아	43
4. 수단	51
5. 에티오피아	65
6. 가나	78
7. 탄자니아	88
8. 코트디부아르	101
9. 모잠비크	110
10. 콩고민주공화국	117

III . 붙임 / 121

요약

■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개요

- **(시장규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인구는 10억 명(세계인구 13.9%)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 시장 대비 0.6%에 불과,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
 - * 1인당 의료비 지출(USD) : 아프리카 98, 전 세계(1,059), OECD국가(4,739)
 - SSA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까지 연평균 9.2%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시장 특징)** 1인당 GDP 규모가 6,000달러 수준인 남아공 시장과 1인당 GDP 2,500달러 이하인 기타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구분
 - **(남아공)** 남아공은 의학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한 국가로 미국·유럽 수준의 품질을 요구, 신기술·혁신제품 수요 높음
 - **(기타)** 자금 부족으로 가격에 매우 민감하며,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인구 증가·도시화 가속화 등 거시적인 원인과 지속적인 ODA·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완만한 성장 기대
 - * SSA 인구 전망(억 명) : 2016년(10.3) → 2030년(14.0) → 2050년(21.2)

■ 우리기업 진출전략

- **(현황)** 한국의 2016년 시장 점유율은 2.7% 수준이며, 탄자니아·모잠비크 ODA 사업으로 인해 2016년 수출 112% 증가
- **(유망품목)** MRI·초음파 등 영상진단기 수요가 높은 편이며, SSA 주요 사망 원인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전염병 관련 진단장비 수요 지속적 증가 전망
 - * 사망 원인(%): AIDS(8.3%), 결핵(4.7%), 말라리아(4.4%)
- **(가격)**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은 성공적인 진출의 핵심 요소, 대부분 바이어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인지
 - * 중국, 인도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편
- **(품질·브랜드)** 한국 제품의 품질이 저평가돼 있으며, 적극적인 브랜드 인지도 제고 마케팅 필요
 - 한국 제품 사용 바이어는 품질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신규 바이어들은 아직 미국·유럽 제품보다 품질이 낮다는 편견을 가짐

- (ODA · CSR) 아프리카 시장진입을 위해 ODA · CSR사업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무상 · 유상 기증 등으로 국내제품 노출 유도
 - * 탄자니아 · 모잠비크의 경우 병원 건설 프로젝트 연계 유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 제품 납품 개시, 2016년 한국 의료기기 수입점유율 1위 달성
- (에이전트) 현지 시장 정보력이 높으며, 제품 등록 · 시장 진출 ·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있고, 수익 허가증이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 확보는 성공 진출의 필수사항
- (인증) 미국 FDA, CE 등 국제인증 확보를 추천하며, 없을 경우 각국 보건당국 등록이 필요하나 최소 수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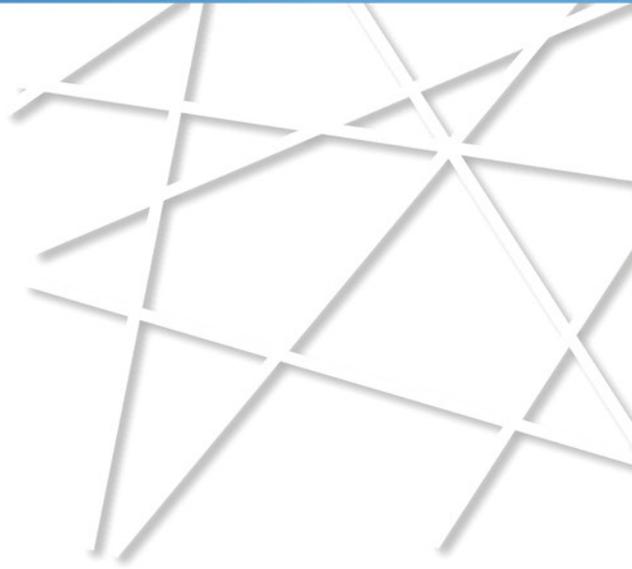
■ 주요국 동향 및 시장 특징

- (주요시장) 남아공 시장이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약 10.3억 달러), 이외에 케냐 · 에티오피아 · 나이지리아 · 수단 시장 규모도 1억 달러 이상
 - * 시장 규모(억 달러): 케냐(1.22), 나이지리아(1.11), 수단(1.0), 에티오피아(1.0)
- (남아공) 2018-2020년 보건 인프라 및 장비에 10억 달러 투자 예정, 최신 · 혁신 제품 관심 높음, 흑인기업 우대 조항(BBBEE) 숙지 필요
- (케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 도시화 · 인구 급증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의료보험은 걸음마 수준이나 적용 범위 증가
 - * 2000-2016년 GDP 6배, 인구 54% 증가, 평균수명 51 → 66세
- (나이지리아) 현 시장 규모는 남아공의 1/10에 불과하나, 인구가 2억 명 수준이라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 기대 수명 증가로 시장 수요 증가 전망
- (수단)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의료기기 수입 증가 가능성, 피부미용기기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가능
- (에티오피아) ODA로 인한 의료기기 구입 및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증가, 국제인증 부재 시 식약청 등록 1년 이상 소요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I .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개요



I.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개요

■ 시장규모 및 현황

○ (SSA 시장 규모) 세계 전체 시장 대비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

- 20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3억 달러 수준
- 2016년 아프리카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에 불과하나, 급격한 인구 증가·평균수명 증가로 잠재력 높음
- 2016-2021년 아프리카 시장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

〈2016-2021년 SSA 의료기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전년 대비 성장률	3.3	18.2	7.2	6.7	7.5	6.9	9.2

* 자료원 : BMI

○ (권역별 특성) 남아공이 SSA 시장의 절반을 점유, 서부·중동부 아프리카 시장은 인구 증가·중산층 증가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의료시장 동반 성장 전망

- (남부) 역내 경제·산업 선도국인 남아공을 중심으로 SSA 지역 최대 시장 보유
 - (남아공) SSA 시장의 45%를 점유, 보건 부문 정부 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고품질 제품을 선호

* 남아공 투입 비중: 12%, 기타 아프리카 국가 평균: 4%

- (모잠비크) 정부조달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들은 주로 공공조달 낙찰 후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제품 수입
- (서부) 높은 인구, 빠른 도시화에 따라 의료 산업 급속 성장 전망
 - (나이지리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나(시장 규모 남아공의 1/10), 인구가 2억 명 수준이며 기대 수명·노년층 인구 증가로 시장 수요 증가 전망

- (가나) 가나 원유 증산에 따른 경제 성장이 전체 인구 및 중산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료 부문 동반 성장 예상
- (코트디부아르) 2017년 8월 중장기('17~'25년) 보건 분야 투자증대 계획을 발표, 3년에 걸쳐 보건 인프라 및 장비에 10억 달러 투자 예정
- (중동부) ODA,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 인구성장·중산층 증가로 수요 지속 증가
 - (에티오피아) ODA로 추진되는 의료기기 구입 및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증가, 국제인증 필수, 부재 시 식약청 등록 1년 이상 소요
 - (케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 도시화·인구 급증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의료보험은 걸음마 수준이나 적용 범위 증가
 - * 2000-2016년 GDP 6배, 인구 54% 증가, 평균수명 51→66세
- (탄자니아) 탄자니아 보건부는 의료·보건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며, 인구성장률·도시화 속도가 높아서 의료시장 성장 기대
- (수단)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의료기기 수입 증가 가능성, 피부미용기기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가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0개국 경제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역	국가명	인구 (만명)	1인 GDP (달러)	GDP (억 달러)	의료기기 시장규모 (억 달러)	한국 수입 (백만 달러)
남	남아공	5,591	5,480	2,950	10.27	11.7
중동	케냐	4,846	1,380	700	1.22	4.3
서	나이지리아	18,599	2,450	4,050	1.11	0.9
중동	수단	3,958	2,140	950	1.00	1.7
중동	에티오피아	10,240	660	720	0.99	1.9
서	가나	2,821	1,380	430	0.84	0.4
중동	탄자니아	5,557	900	470	0.83	29.2
서	코트디부아르	2,370	1,520	360	0.45	0.3
남	모잠비크	2,883	480	110	0.36	7.6
남	콩고	7,874	420	350	0.23	0

* 자료원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제품별 수입 규모)** 의료용 진단·검사기기 수입 규모가 가장 높고, 단순 소모품 외 거의 모든 품목을 수입

- 의료용 진단·검사기기(HS Code: 9018)의 수입액이 약 13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 이어 X-Ray 기기 규모도 약 3억 달러 수준
- 2002-2016년간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정형외과용기기, 인조인체, 보청기였음(HS코드 9019)
- SSA지역은 설비시설, 생산기술 부재 등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며, 제조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의료 소모품 등 간단한 제품만 직접 생산 중

〈SSA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	2016
9018	의료용 진단·검사기기	1,319	1,406	1,423	1,218	1,284
9019	기계요법·마사지·심리검사기기, 호흡기기	81	100	93	76	78
9020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45	55	51	34	31
9021	정형외과용기기,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등	260	262	261	261	275
9022	X-ray 기기	291	243	304	274	292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유사 제품	158	121	139	134	118
3006	의료용품	235	255	289	240	212

* 자료원 : ITC

○ **(對한국 수입)** 고품질·고가 이미지, ODA 프로젝트를 통해 진출한 탄자니아·모잠비크 시장 2016년 시장 점유율 1위

- SSA 국가의 對한국 의료기기 수입량은 총 6,192만 달러이며, 수입총액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의료용 진단·검사기기(총 5,140만 달러)

* 탄자니아(2,816만 달러), 남아공(705만 달러), 모잠비크(700만 달러) 순

- 2016년 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6%이며, 탄자니아·모잠비크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통한 ODA 사업을 통해 전년대비 수출 112% 증가

* 2016년 모잠비크·탄자니아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기록

〈탄자니아·모잠비크 ODA 진출사례〉

- 탄자니아: 정부의 유상원조 프로젝트(EDCF 기금 활용)를 통해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설(지원금 : 7,650만 달러, 2017년 완공)
 -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이 의료기자재 공급
- 모잠비크: EDCF 사업으로 2008년 모잠비크 중동부 켈리만(Quelimane) 지역의 중앙병원 건설을 지원(사업비 : 4억 5,000만 달러, 2016년 완공)
 - Y社 : 진단기기 등 1,600만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 납품

-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한 아프리카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유럽·미국과 비슷하다고 만족도가 높으나, 신규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음
- 대부분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인식

〈SSA 의료기기 對한국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2014	2015	2016	'15/'16 증감률
9018	의료용 진단·검사기기	17.7	16.3	51.4	115.7%
9019	기계요법·마사지·심리검사기기, 호흡기기	2.9	1.5	1.8	23.5%
9020	호흡용 기기 및 가스마스크	0.1	0.2	0.0	-92.8%
9021	정형외과용기기,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등	1.3	1.2	1.3	9.8%
9022	X-Ray 기기	5.5	6.8	5.3	-23.0%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유사 제품	0.4	0.3	0.6	82.9%
3006	의료용품	3.2	3.0	1.6	-47.8%
총계		31.3	29.2	61.9	112.0

* 자료원 : ITC

■ 우리기업 진출전략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급증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 - 증가하는 중산층 및 도시화 인구 - 공공의료 및 정부조달 시장규모 증가 - 증가하는 의료 시설에 대한 수요 - 건강보험제도 보급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인프라, 의료·제약분야 외국인 투자 및 국제 원조 확대 - 의료분야 투자 확대 위해 관련 규제 완화 -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 잔존 및 도시화에 따른 질병 증가 - 수입의존도 90% 이상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등록 절차 지연 - 보건 인프라 부족 및 지역별 편차 - 한국 제품 브랜드 인식 미비 - 기술 인력 부족 -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의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치안, 환율 등 불안 요소 존재 - 기존 진출 제품의 브랜드 파워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 중국, 인도 등 저가 제품 생산국들과의 경쟁 심화

- **(유망품목)** MRI, 초음파 등 영상진단기, 전염병 관련 진단 장비 수요 지속 증가 예정
 -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심전도기, MRI 등 진단영상기기와 합리적인 가격의 가정용 자가 진단기 진출 기대
 -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질병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사망 원인인 상황
 - * 또한 콜레라, 장티푸스, 폐결핵, 수두, 황열병, 홍역, 전염성 간염 등 아프리카 고유 질병 역시 잔존
 - 정부의 예방·치료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 **(가격)** 대부분 아프리카 바이어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는 성공적 진출의 핵심 이슈
 - 대부분 국가에서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이 저렴한 중국, 인도산 수입비중이 높고, 한국 제품의 가격은 다소 높다고 인지
 - 아프리카 시장은 대체로 품질보다는 가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되 중국산 제품과 달리 품질도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 강조한 마케팅 필요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아공의 경우 가격보다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맞춤형 전략진출 필요

- **(품질·브랜드)** 한국 의료기기 품질은 높으나 브랜드 인지도는 약해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
 -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바이어는 미국·유럽 제품과 품질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단, 신규 바이어들은 국내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미국·유럽 제품보다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짐
 - 한국 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도록 샘플 또는 기부 형식으로 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하여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도 유력한 수단
- **(CSR·ODA 활용)** 아프리카 시장진입을 위해 CSR·ODA사업 등을 활용한 무상·유상 기증 등으로 국내제품 노출 유도
 - 아프리카 바이어(정부 및 민간)의 구매력이 다소 부족하여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체험을 통해 효용과 기능을 경험하게 해주고 정식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
 - 모잠비크의 경우 우리 정부의 켈리만 중앙병원 건설 프로젝트 연계 유상원조 사업을 통해 진단기기·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등 납품 개시
- **(사전/사후관리)** 의료기기의 경우 적절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제품 신뢰도 증대 및 고정 수요 확보 가능
 - 자금 부족으로 구매회전율이 낮아 제품의 사용주기가 긴 편인 아프리카 시장에서 사후 A/S는 필수 요소
 - 한국 기업의 A/S가 부실하다는 점이 바이어들의 주요 불만
 - 또한, 제품 판매 전에도 제품 사용법에 대한 트레이닝 등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딜 방식의 진출 모델도 적극 고려 필요
- **(에이전트)**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에이전트 없는 의료기기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 유능한 에이전트 확보가 성공적인 진출의 필수사항
 -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제품 등록, 시장 진출,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할 것을 추천
 -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 회사는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조달 시 적절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필수

- 의료기기 수입 및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도 긴 경우가 대부분인 바, 수입 허가증이 있는 현지 에이전트 발굴 및 활용 권장
- 독점 계약을 선호하는 에이전트가 많아서 역량 있는 에이전트 바이어 발굴이 중요하며, 계약 후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인증) 국제 인증 확보할 경우 진출이 수월

-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의료기기 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 진출 전 FDA, CE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
- 국제 인증이 없을 경우 각국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생산공장 실사방문·더딘 업무처리로 수개월 소요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Ⅱ. 국가별 시장 현황 및 특징



Ⅱ. 국가별 시장 현황 및 특징

1 남아프리카 공화국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SSA 지역 최대 의료기기 시장 보유
 - BMI에 따르면 남아공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11억 달러로 추산
 - 2016년 기준 전체 의료 지출(Health expenditure)의 4.2%를 차지하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비용은 19.7 달러

〈2016년 기준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규모〉

시장 규모	2016
총 시장 규모 (억 달러)	11.0
의료 지출 예산 비중 (%)	4.2
GDP 내 비중 (%)	0.4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	0.3
수입 비중 (%)	94.2
예상 연간 시장 성장률 (%)	9.5
1인당 의료기기 지출비용 (달러)	19.7

* 자료원 : BMI

- (시장전망) 2015년까지 부진했던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은 2016년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와 중산층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에 성장세 전환
 - 2021년까지 약 17억 달러 규모로 확대, '16~'21년간 연평균 9.5% 성장 예상
 - 1인당 의료 지출 규모 또한 증가할 전망, BMI는 남아공을 SSA 의료기기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선정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시장규모	1,183.7	1,043.8	1,102.3	1,343.1	1,438.8	1,525.8	1,634.2
증감률	0.0	-11.8	5.6	21.9	7.1	615	7.1

* 자료원 : BMI

- **(시장수요)** 남아공은 타 아프리카 국가 대비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편, HIV/AIDS 발병 1위 국가이자 SSA 지역 최대 비만 국가로 의료기기 수요 확대 추세
 - 빠른 도시화 진전 및 선진국형 생활패턴 확산에 따라 감염병 외에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
- **(시장구성)**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 의존도는 94.2%로 매우 높은 편
 -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용품은 주로 일회용 밴드, 드레싱 등 소모품 또는 의료용 가구나 기술력이 낮은 의료 장비에 집중
 -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의료기기를 주로 수입하고 있음
- **(인프라)** 남아공은 1967년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실시하는 등 고도의 의료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의료 인프라 수준은 낮은 편
 - 기술력 및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현재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병원 및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상태
 - 공공 의료기관 중 약 60~80%가 보유한 의료기기의 관리에 소홀, 이에 제품 상태 매우 낙후 및 수량 부족 현상 만연
 - 남아공 정부의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품목별 시장동향

〈남아공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210.3	213.9	200.4	247.0	268.3	286.7	309.3
진단영상기기	194.3	165.4	182.5	219.1	232.3	246.5	264.2
치과용품	43.1	37.0	36.3	43.4	46.0	48.7	52.0
정형외과용품&인공기관	120.5	117.0	131.0	158.8	168.0	177.1	189.3
환자보조용품	138.4	129.7	129.2	157.0	167.1	177.5	190.8
기타	477.1	380.7	422.9	517.8	557.1	589.2	628.6

* 자료원 : BMI

- **(의료소모품)** 2016년 남아공의 의료소모품 시장은 2억 달러 규모로 2021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하여 총 3억 3,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 의료소모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인 주사, 바늘 및 도관은 약 90% 이상을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
- **(진단영상기기)** 남아공 공공 의료시설이 보유중인 진단영상기기는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어 연평균 9%씩 증가해 2021년 2억 8,0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 전망
 - 시장의 90% 이상이 수입 제품이며 미국과 독일이 각각 20%씩 수입시장을 점유
- **(기타)** 정형외과용품, 환자보조용품 시장도 원만하게 성장할 전망
 - 외과용 살균장비, 병원용 가구, 자외선·적외선 기기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의료 관련 정부 주요 정책

- **(정책구조)** 남아공 보건부는 2004년 제정된 국가건강법(National Health Act)에 의거하여 범국가적 보건 정책 마련 및 이행
 - 보건부 산하에 9개 주 정부 의료 부처가 소속되어 있으며, 52개 보건 지역으로 나누어 공공 의료시설 운영

* 공공병원은 가우텡 주 병원을 시작으로 점차 분권화되고 있으며, 병원 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각 병원 CEO가 진행

- **(공공정책)** 저소득층의 공공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편적인 보건 제공을 위해 2012~25년간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도입
 -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 민간 의료 비용 인하, 민관 시설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12년 1,110만 명(전체 인구의 22%) 대상, 11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젝트 운영

* Oliver Tambo, Thabo Mofutsanyana, Tshwane, Umzinyathi, Umgungundluovu, Vhembe, Gert Sibande, KK Kaunda, Pixley ka Seme, Eden 지역

- **(규제)** 남아공보건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신설

* 기존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를 대체하여 남아공 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규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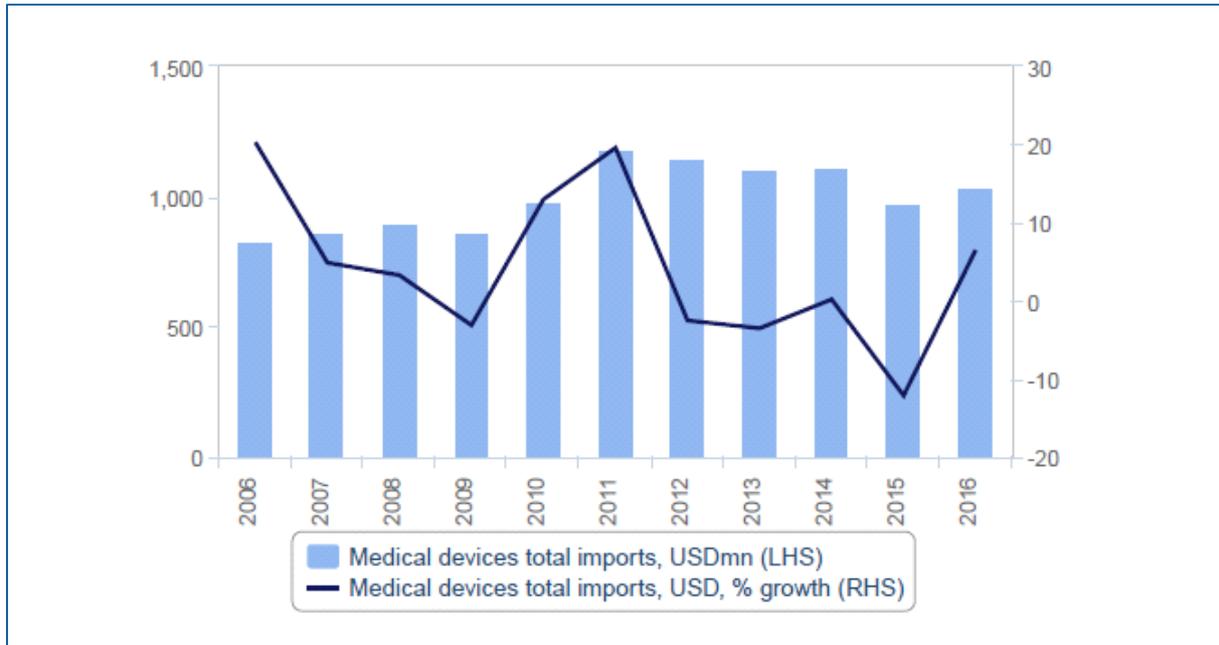
- * 2017년 남아공 보건부장관은 SAHPRA 이사회 의장과 이사진을 선임하였으며, '17.2.1 SAHPRA 1차 이사회 개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관을 목표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의료시장 선점 노력 강화
 - 2018년부터 제조업체 라이선스, 수입업체 라이선스를 발행할 예정, 진출 시 SAHPRA 정책 고려 및 준수 필수

■ 수입 시장 동향

- **(수입규모)**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 2015년 남아공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도입 발표로 수입 증가 추세
 - 2015년 달러 대비 랜드화 하락으로 수입 규모는 9억 7,000만 달러까지 감소했으나, 2016년 6.5% 성장하며 10억 3,000만 달러로 다소 회복

〈남아공 의료기기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BMI

- **(수입품목)** 의료소모품 수입이 2016년 전체 수입의 17.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
 - 진단영상기기(16.4%), 환자보조용품(12.4%), 정형외과용품(12.0%) 수입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 2011~2016년 환자보조용품의 연간 수입 성장률은 현지화 기준 14.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
 - 정형외과용품 및 인공기관 중 고정장치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인공관절 수입은 2016년 현지화 기준 29.6%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

- **(주요수입국)** 2016년 기준 對미국 수입 비중이 28.3%(2억 9,430만 달러)
 - 특히 정형외과용품 및 인공기관(43.8%), 기타(28.8%), 환자보조용품(26.7%), 의료소모품(24.9%)의 미국 수입 비중이 높은 편
 - 제2위 수입국은 독일, 총 수입의 12.4%(1억 2,860만 달러)를 점유, 주로 치과용품(31.2%), 영상진단기기(21.1%) 수입
 - 중국, 스위스, 멕시코, 아일랜드 제품의 수입시장 비중도 높음

〈2016년 남아공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미국	294,343	28.3
2	독일	128,642	12.4
3	중국	98,004	9.4
4	스위스	54,013	5.2
5	멕시코	40,321	3.9
6	아일랜드	38,985	3.8
7	영국	36,856	3.5
8	일본	36,516	3.5
9	프랑스	34,524	3.3
10	네덜란드	27,689	2.7
11	말레이시아	20,916	2.0
12	이탈리아	20,742	2.0
13	인도	14,953	1.4
14	벨기에	11,863	1.1
15	한국	11,078	1.1
16	싱가포르	10,911	1.1
17	스웨덴	10,856	1.0
18	폴란드	10,723	1.0
19	대만	10,311	1.0
20	체코	8,888	0.9

* 자료원 : ITC

■ 한국의 對남아공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2015년 이후 남아공 경기 침체로 의료기기 수출 감소 심화
 - 2017년 한국산 의료기기의 對남아공 수출액은 8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6% 감소

〈한국의 對남아공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남아공	11,226	-1.9	11,412	1.7	9,842	-13.8	10,268	4.3

* 자료원 : ITC

- **(품목별)** 2017년 기준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규모는 점차 감소 추세
 - 정형외과용 기기와 기타 치과용품의 수출은 각각 23.7%, 103.3% 급증하는 추세이며, 기타 의료기기 수출도 87.1% 증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2015		2016		2017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2,791.6	35.0	2,525.8	-9.5	1,852.5	-26.7
2	기타 정형외과용 기기	902190	1,473.8	4.6	1,204.9	-18.2	1,484.5	23.7
3	그 밖의 의료용 기기	901890	870.7	-38.3	621.6	-28.6	1,163.3	87.1
4	엑스선 기기	902214	1,449.9	-3.2	1,832.9	26.4	810.7	-55.8
5	기타 치과용품	902129	222.6	-31.7	250.2	12.4	508.6	103.3

* 자료원 : 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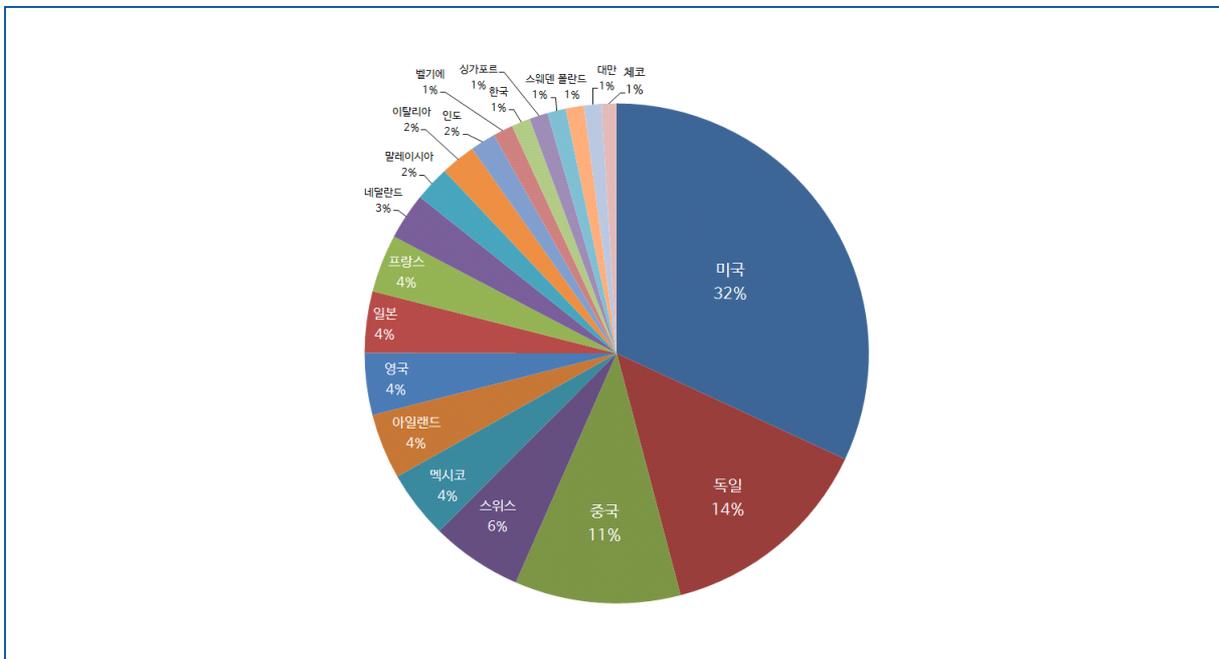
■ 의료기기 전반 기업별·국가별 시장 점유

- **(시장동향)** 현지 기업은 대부분 고용인구 50인 이하의 영세 업체들로 기본적인 의료기기 및 장비 등을 주로 취급, 제품 생산 및 유통 겸업
 - 현지 생산 시장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정, 생산품의 절반 이상 수출
 - 현지 생산 기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디지털 영상의학 시스템 전문 업체 Lodox Systems로 주로 X-ray 기기 생산

- **(현지화)** 남아공 정부는 산업 전반에서 강도 높은 현지화 정책을 추진,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 형태로 운영
 -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판매, 유통, 서비스 부문에 집중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
 - BSN Medical, Fresenius Medical Care, Becton Dickinson, Elekta, GE Healthcare, Johnson & Johnson, Philips, Stryker, Vairan Medical Systems, Smith & Nephew 등이 진출

- (주요국) 미국, 독일, 중국이 3대 수입국으로 전체 시장의 55% 이상 점유하는 중, 아프리카 국가 중 선진국 수입 비중이 높은 편
 - 전통적 수입국인 미국, 독일에서의 주요 수입품은 정형외과용품 및 인공관절, 치과용품 등 전문용품
 - 중국은 3위 수입국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대신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기본 봉대 등 의료소모품을 주로 수입

〈2016년 남아공 의료기기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 자료원 : ITC

〈2016년 남아공 의료기기 수입 상위 3개국 품목별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미국		독일		중국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의료소모품	45.2	24.9	10.2	5.6	26.4	14.5
진단영상기기	36.2	21.3	35.7	21.1	16.2	9.6
치과용품	8.0	23.6	10.5	31.2	1.6	4.8
정형외과용품 &인공기관	56.8	43.8	10.8	8.3	3.6	2.7
환자보조용품	33.4	26.7	8.0	6.4	15.9	12.7
기타	114.0	28.8	53.4	13.4	34.3	8.6

* 자료원 : ITC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HS CODE 9018, 9022	
주요 제품	심전계, 초음파 영상진단기, MRI, X-ray 등
제품 특성	진단영상장비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Lodox : 광업 분야에 최초로 X-ray 기술을 도입한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 De Beer's의 엔지니어들이 독립하여 1992년 창업한 남아공 로컬 업체로 X-ray 장비를 생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가우텡주 정부와 56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
	GE Healthcare : 진단영상기기(MRI, CT, 분자영상의학, 디지털 유방촬영기 등)를 집중 취급. 남아공 4개 지역에 법인을 운영하고 총 고용인원은 400명에 달하나 별도 생산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음
	Philips : 2017년 진단영상기기 및 심혈관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Spectranetics와 CardioProlific 인수. 심혈관계 진단영상기기, 영상유도장비, 환자 모니터링기기, 홈케어 시장을 선도하며 2012년부터 Tygerberg 병원과 협업, 남아공 농촌보건 신장에 기여
	Siemens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근 미드랜드에 법인을 두고 약 1,500명을 고용. 진단영상장비, 초음파 등을 주로 취급하며 2012년 Netcare 재단에 휴대용 유방촬영기를 기부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의료기기 시장 주목

HS CODE 9018, 3005	
주요 제품	탈지면/거즈/붕대/습포제, 주사기/바늘/카테터/캐놀러 등
제품 특성	의료소모품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BSN Medical : 2001년 Beiersdorf와 Smith & Nephew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다국적회사로 남아공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접착 붕대, 고무 밴드, 거즈 등을 생산
	Medika : 꿀을 이용한 상처 치료밴드를 중점 생산. 현지 의료기기 생산기업 Southern Group의 계열사로 한 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이 남아공에서 판매됨. 제품 공장은 ISO9000 인증 기 획득

HS CODE 9021	
주요 제품	의치, 기타 치과용품, 정형외과용품 등
제품 특성	치과용품, 정형외과용품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Southern Group : 임플란트 기기 생산 1위 현지 회사로 남아공 임플란트 시장의 51% 점유. 정형외과용품도 함께 생산하며 유럽, 미국, 호주로 수출
	Johnson & Johnson : 심혈관 기기, 당뇨병 관리 기기, 안과기기 등을 주로 취급, 정형외과용품과 수술장비에 특화
	Stryker : 엉덩이, 무릎, 발목 등 정형외과용품과 절골술 장비, 척추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며 2017년 형광이미지기술 업체인 Novadaq을 인수

* 자료원 : BMI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진출 성공 사례

【아프리카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Africa Health를 통한 국내기업 진출】

- 2011년부터 시작된 Africa Health 전시회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로 매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고 있음. 아프리카 전역에서 바이어가 동 박람회를 참관하며 유럽 바이어와의 미팅도 가능
- 약 70개국, 550여개사가 참여하고 중국,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이 국가관을 운영하며, 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은 국내업체 모집 및 한국관 운영
- 까다로운 남아공 인증 절차로 인해 전시장 현장에서는 샘플계약 위주로 이루어지나 향후 높은 실 수출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2015년 동 박람회에 참가한 H사는 활발한 바이어 미팅을 통해 2016년 샘플계약 성약에 성공했으며, 2016년 A사는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성약, 최초 2-3만 달러 규모 및 지속적인 수출이 전망됨.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M사는 유럽 바이어와의 성약을 통해 전시회 참가 이후 인근지역 및 유럽 수출 증가 예정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병원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업체 M사】

- 주로 이탈리아, 미국, 독일, 스페인, 터키에서 제품을 수입함
- 의료기기 구매력이 있는 남아공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층은 남아공의 비싼 민간 의료보험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관계로 병원 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바 민간 병원은 자연스럽게 고품질 제품을 주로 취급
- 현지 생산 제품은 해당 고객층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남아공의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남아공에 아직 없는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장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품질의 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유망 품목

○ 남아공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병 발생 증가

- 남아공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으로 분류되며, 특히 당뇨(5.4%)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여 제2의 자연사 원인으로 부상
 - * 당뇨병 사망 건수는 2015년 57,318건에 달함
- 남아공의 성인의 약 7%가 당뇨병을 진단받는 등 아프리카 평균(3.2%)을 상회하고 있어 혈당측정기, 비만치료기 등 관련 수요 증가 전망

■ 제품군

○ (유망품목) KOTRA 빅데이터 통계(해외시장 빅봇*)를 통해 유망 품목 분석

- * 55년간 축적된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툴로, 시장별 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유망시장 제시
- 기타 의료기기(HS 901890), 안과용 기기(HS 901850), 혈압측정기(HS 901819), 초음파 영상진단기(HS 901812), 주사기(HS 901831) 등의 성장성 다대
-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높은 편으로 분석

〈남아공 의료기기 유망 품목〉

분류	HS Code	주요 제품	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종합
기타	901890	그 밖의 의료용 기기	상중	중	상중	상	상중
기타	901850	안과용 기타 기기	상중	중	상중	상	상중
진단영상기기	901819	뇌파계, 청력검사기, 혈압측정기	상중	중	상중	상	상중
진단영상기기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상중	중	상중	상	상중
치과용품	901849	치과용 버, 치석제거기	상중	중	중	상	상중
환자보조용품	902190	기타 휴대용 환자보조용품	상중	중	중	상	상중
의료소모품	901839	기타(카테터 및 부분품)	상중	중	중	상	상중
진단영상기기	902290	엑스선 발생기, 스크린	상중	중	중	상	상중
정형외과용품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상중	중	중	상	상중
의료소모품	901832	금속 바늘과 봉합용 바늘	중	중	상중	상	상중
의료소모품	901831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놀러	중	중	상중	상	상중
환자보조용품	901910	기계요법/마사지용 기기	상중	중	중	상	상중
의료소모품	300610	살균한 봉합재	상중	중	중	상	상중
정형외과용품	902131	인공 관절	상중	중	중	상	상중
정형외과용품	902139	기타 인조 인체 부분	상중	중	중하	상	상중
의료소모품	300510	반창고	상중	중	중	상중	상중
의료소모품	300590	탈지면, 거즈, 붕대	중	중	중	상	상중
치과용품	300640	치과용 충전제	상중	중	중	상	상중
치과용품	902213	기타 치과용 진단영상기기	상중	중	중	상중	상중
진단영상기기	902230	엑스선관	상중	중	중	상중	상중
치과용품	902129	기타 의치와 치과용품	상	중	중	상중	상중
기타	841920	내과용·외과용 살균기	상중	중	중하	상중	상중
진단영상기기	901811	심전계	상중	중	중하	상	상중
환자보조용품	901920	산소 흡입기	상중	중	하	상	중
치과용품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상중	중	하	하	중하

*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 빅봇

○ **(진단영상기기)** 수량 부족에 따른 진단영상기기 수요 확대 예상

- 남아공 공공 의료시설은 총 MRI 10대, PET 스캐너 3대 보유(1,000명당 각각 0.2, 0.1개에 해당), CT 스캐너와 유방 촬영기 또한 각각 51대, 32대(1,000명당 각각 1.0, 0.6개에 해당)에 불과(WTO)
- 진단영상기기 시장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특히 심전도기와 MRI 시장이 유망*
* 남아공 전체 의료기관이 보유한 선형가속기는 총 71대로, 이는 매년 100,000명 중 255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60%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 하에 비한 필요 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

○ **(인프라)** 남아공 정부는 '16~'19년 의료 인프라 구축에 17억 달러 집중 투자 예정, 이에 병원용 가구 등 기타 의료기기 수요 증가 전망

- 동 기간 동안 국민의료보험 시험 구역인 11개 지역의 1차 의료 시설 872개 보수 및 216개 시설 신축 예정

■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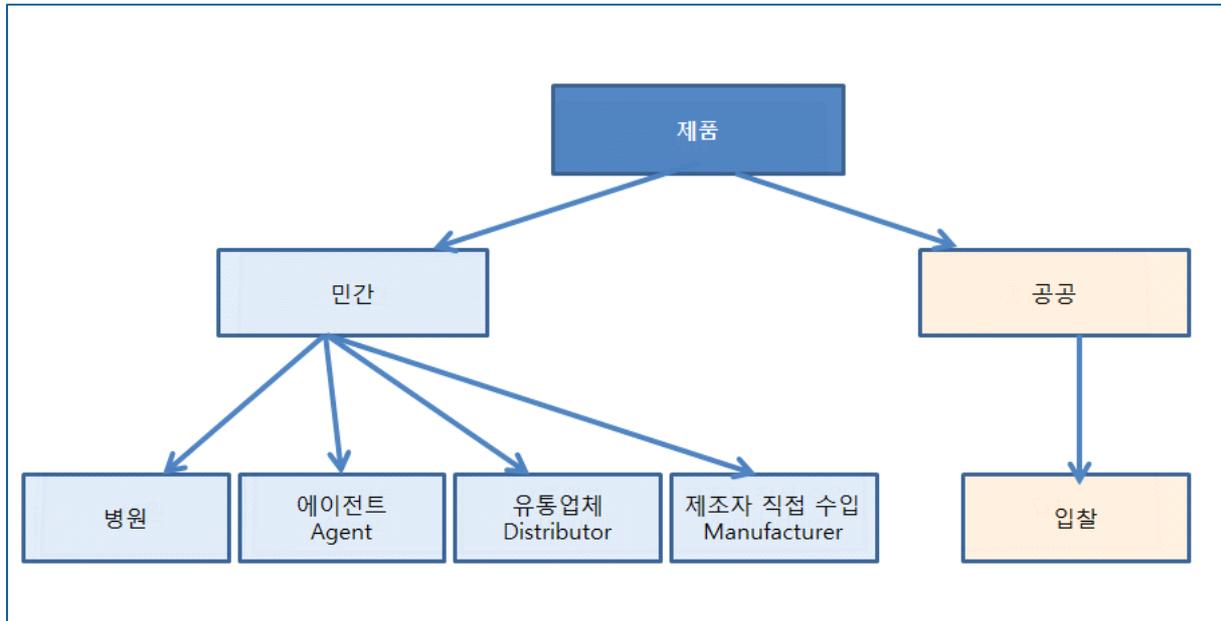
○ **(라이선스)** 수입상은 에이전트, 유통업체, 제조업체로 분류되며, 유형(생산, 수입/유통, 도매)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를 부여

- 라이선스 신청 비용은 생산업자 21,000랜드, 유통업자와 도매업자 13,000랜드
* 2018년 3월 현재 1USD = 12랜드 수준
- 외국 업체의 경우 반드시 남아공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시장에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 **(독점권)** 남아공은 에이전트 중심 시장으로, 산업 전반 부문별 독점 에이전트 제도 정착

- 남아공 수입상들은 대부분 수입 상담 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
- 한국 생산업체가 민간 의료기관에 납품 시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편리하며, 남아공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바, 현지 기업과 합작 필요

〈남아공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무관세

〈남아공 의료기기 품목별 관세 현황〉

HS Code	주요 제품	관세
▶ 진단영상기기		
901811	심전계	0%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0%
901813	MRI	0%
901814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0%
901819	뇌파계, 청력검사용기구, 혈압측정기 등	0%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902214	엑스선기기(치과용 제외)	0%
902221	알파/베타/감마선기기	0%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370110	엑스선용 평면사진플레이트	0-15%
370210	엑스선용 롤 사진필름	0%
902230	엑스선관	0%
902290	엑스선 발생기, 스크린 등 부분품	0%

HS Code	주요 제품	관세
▶ 의료소모품		
300510	반창고	0%
300590	탈지면, 거즈, 붕대 등	0-20%
300610	살균한 봉합재	0%
901831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놀러	0-20%
901832	금속 바늘과 봉합용 바늘	0-15%
901839	기타(카테터 및 부분품)	0%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300691	장루(腸瘻)용 기구	0%
401511	외과용 장갑	20%
▶ 정형외과용품 & 인공기관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902131	인공관절	0%
902139	기타 인조 인체 부분	0%
▶ 치과용품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0%
940210	치과용 의자	0%
902213	치과용 엑스선 기기	0%
300640	치과용 충전제	0%
901849	기타 치과용 기기	0%
902121	의치	0%
902129	기타 치과용품	0%
▶ 환자보조용품		
902140	보청기	0%
902150	심장박동기	0%
902190	기타 휴대용 환자보조용품	0%
901910	기계요법/마사지용 기기	0%
901920	산소흡입기	0%
▶ 기타		
871310	비 기계구동식 신체장애인용 차량	0%
871390	기타 신체장애인용 차량	0%
901850	안과용 기기	0%
940290	기타 의료용 의자	0%
841920	의료용 살균기	0%
901820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	0%
901890	그 밖의 의료용 기기	0%

*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

■ 비관세 장벽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현지 조달 우선

- 동 법은 역사적으로 차별받던 흑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도입
- 흑인 소유 지분 정도에 따른 등급 차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흑인 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 남아공 정부의 사업면허 발급 또는 정부 발주사업 참여 필수 조건

○ 남아공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의 등록 지연

-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MCC 등록이 필수적,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보통 약 3~5년 소요
- 남아공 정부는 MCC를 해체하고 남아공보건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로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를 추진 중, 이에 인계 기간 중 혼란 가중 예상

* 등록 기능을 담당하는 MCC의 업무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11월 SAHPRA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2017.2.1. SAHPRA 1차 이사회가 개최되며 MCC는 자동으로 해체

■ 등록 및 인증 절차

○ (등록)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을 위한 규제 기관은 남아공보건기기규제이사회(SAHPRA), 국가공인인증기관(SANAS: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표준협회(SABS: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국가규제감독국(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tandards) 등

- (인증) 기존 남아공 시장 내에서 국제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기는 별도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 유통이 가능했으나, SAHPRA 출범에 따라 자체 등록 관련 정책이 생길 예정
 - 각 유통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4개 등급으로 분류, 동일한 품목이어도 사용 목적, 제품 특징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분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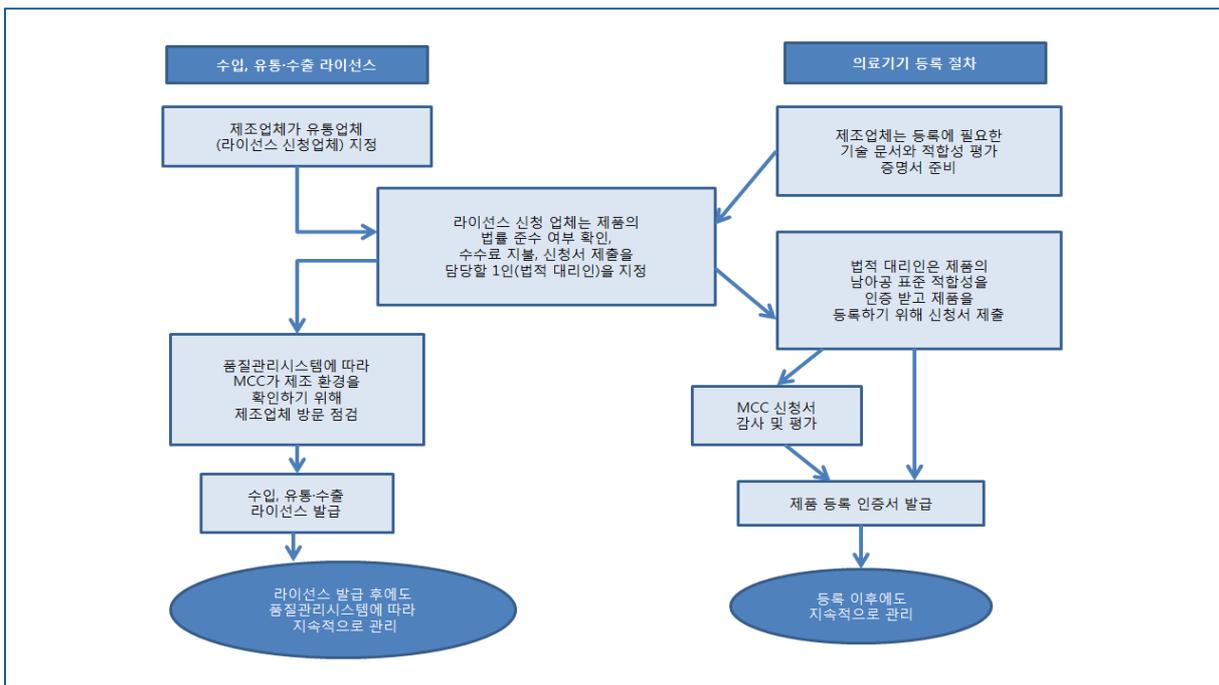
〈의료기기 등급 분류〉

등급	위해성 정도	예시
A등급	낮음	드레싱, 치과용 큐어링 라이트 등
B등급	낮음-중간	석션용 장비, 심전계 등
C등급	중간-높음	의료용 가스 조절기, 선형 가속기 등
D등급	높음	심장판막, 동물·인간의 세포를 함유한 의료 소모품 등

* 자료원 : MCC

- **(등록)** 라이선스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글로벌 의료기기 명명법(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에 따라 분류한 의료기기 목록, 라이선스 신청서, 판매증명서 등
 - C, D등급으로 분류된 제품의 경우 시판 전 사전허가 증명서(Proof of pre-market approval) 또는 국제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기술서류 제출 필요
 - * 호주 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유럽감독관청(CE), 일본MAH, 미국 FDA, WHO
 - 세부 서류 목록은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지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리스트 파악 권장
 - 남아공에 진출하는 외국 업체들은 라이선스를 가진 유통업체를 통해 등록을 대행

〈등록 및 인허가 절차〉



* 자료원 : MCC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경제 선도국 - SSA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 - 높은 민간 의료산업 발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성장에 따른 보건 인식 확산 - 의료 전문 인력과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부 차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 SAHPRA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환경 개선 노력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가적 차원의 의료보험 미비 - 의료기기 등록 절차 지연 -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건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적인 환율 - 부족한 정부 자금 - 흑인경제육성법, 토지개혁 등 강경한 흑인 보호 정책

- **(성장가능성)** 역내 주도국으로서의 남아공 시장을 선점,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국가로 활용 가능
 - 남아공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을 통하여 정치적 선도국 역할 수행, 경제·산업 인프라 발전도 또한 역내 최고 수준
- **(경쟁력)**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수반 요구
 - 한국제품은 전통적 수출국인 미국, 독일 제품 등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 중국산 제품보다 높은 가격
 -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제품으로 진출 가능
 - 매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적극 활용
- **(고품질)** 남아공 바이어들은 대부분 유럽계 백인들로 유럽 수준의 품질을 요구
 -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금 부족으로 가격에 집중하는 반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유리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A/S 시스템 구축 중요

- **(IT 연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료 IT 발달에 주목
 - 어플리케이션과 연계되어 원거리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기 등 모바일 원격 진료 분야 공략 가능

- **(정책 활용)** 흑인 소유의 현지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한 현지화 방안 강구 필요
 -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하의 흑인 소유지분 조건 충족 중요
 - 남아공 산업통상부는 광업, 제조업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 조달 강조

- **(정치 변화)** 불안정한 랜드화 환율에 대한 대비 필요
 - 2018년 주마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라마포사가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경제는 안정화될 전망이나, 랜드화는 정치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지속적인 랜드화 환율 추이 모니터링 필요

2 케냐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케냐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의 회원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중산층의 성장(전체 인구의 44.9%)과 더불어 의료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
 - 케냐의 GDP는 2000년 후 약 6배 증가했으며, 인구도 54% 증가
 - 의료보험 적용범위 증가 및 해외 지원기금 증가 또한 케냐의 의료산업 동력으로 작용
 - 케냐의 인구는 4,846만 명으로(2016년 기준) 연평균 100만 명의 인구 증가 추세, 중위값은 19세, 출산율은 여성 1명당 4.4명 수준

* 평균수명도 2000년 51세에서 2016년 66세로 증가하는 등 당분간 인구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가 개요〉

구분	2000	2016
인구(만 명)	3,145	4,846
도시 인구 비율(%)	19.9	26.1
15세 이하 비율(%)	55.6	57.8
60세 이상 비율(%)	2.8	2.8
기대 수명(년)	51.7	66.6
여성 1명 당 출산율(명)	5.0	4.3
1인당 GDP(달러)	710	1,380
총 GDP(억 달러)	127	705

* 자료원 : UN, WHO 등

- (보건상태)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유행 질병형태 변화
 - 최근 소득 향상에 힘입어 암,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
 - 평균 수명 남성 60세 · 여성 65세, 영아 사망률 1,000명 당 52명,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률 1,000명 당 39명, 산모 사망률 10만 명당 525명 기록

- **(주요 전염병 관련 수요)** 케냐 전염병인 말라리아·에이즈·결핵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관련 의료기기는 계속 부족하여 관련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2016년에 보고 된 사망자의 32.9%를 차지하는 1위 사망 원인은 폐렴이며, 이어 말라리아, 암, HIV/에이즈, 결핵 순
 - 케냐의 생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고 암·고혈압·당뇨병 등 성인병 증가 추세

〈케냐의 주요 사망 원인〉

(단위: 명)

순위	질병	2012	2013	2014	2015	2016
1	폐렴	22,051	22,918	21,640	22,473	21,295
2	말라리아	24,772	23,789	22,948	20,691	16,000
3	암	12,574	13,720	14,175	15,714	15,762
4	에이즈	11,111	11,448	12,235	11,131	9,471
5	결핵	11,149	n.A	n.A	n.A	4,735

* 자료원 : 케냐 통계청

- **(관리체계)** 케냐 의료·보건 시스템은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종교 조직 등 세 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분류
 - 의료시설의 수는 공공 부문, 민간부문, 종교 조직 순이며 케냐 보건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 시설 중 52%를 직접 관리·운영
 - * 민간 부문, 종교 단체 및 지방 정부가 나머지 48%를 관리
 - 의료 산업의 성장은 민간 의료시설 증가와 기존 민간 의료시설의 투자 증가에 기인
 - 총 4,634개의 보건 시설 중 2,304개는 정부 소유*, 867개는 종교 단체 후원 기관이며 1,458개는 민간 부문에서 운영
 - * 정부 소유 보건 시설 중 114개 병원은 케냐보건부가 운영하는 병원, 일반적으로 케냐 공공 의료시설은 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장비가 부족한 실정

- **(주요 정책)** 케냐 정부 주도하에 의료/보건 부문 전략 및 투자 계획 2013-2017(Kenya Health Sector Strategic and Investment Plan, KHSSP) 수립 및 전략 방향 제시
 - 케냐 보건부는 KHSSP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적 분배의 형평성 문제로 47개 지방 정부와 조율 중, 보건 서비스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보건 정책 2014-2030 제정
 - 동 정책 하에 추진 중인 대규모 정부-민간 합작 프로그램으로 장비 관리 서비스(Managed Equipment Services, MES) 진행 중, 이로 인해 국가 전역에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전망

- 소독실, 투석실, 집중 치료실 및 방사선 기계 등 전문 장비를 갖춘 공중 보건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4억 5,000만 달러 투자 계획
- 국민건강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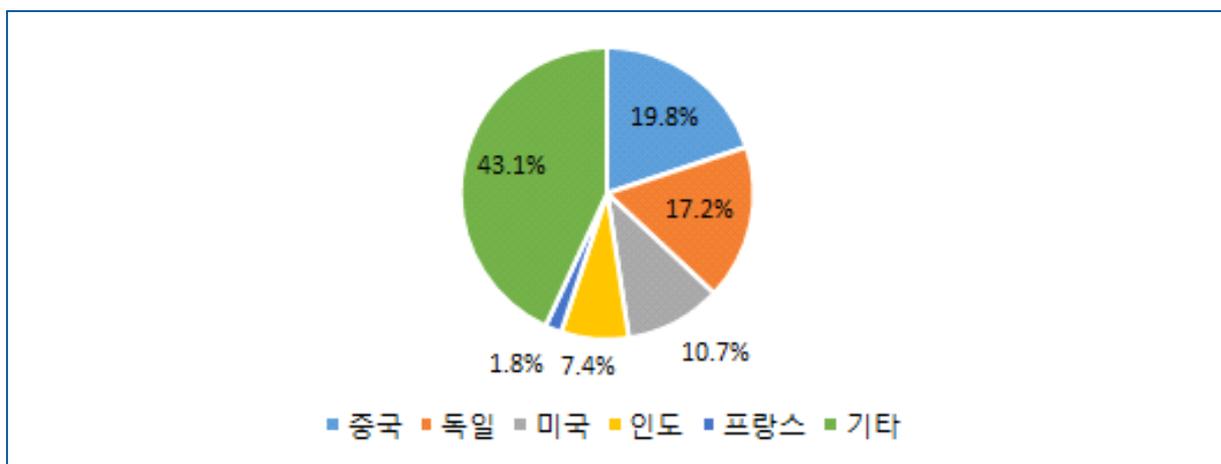
* 케냐 내 정규 직원(약 290만 명 정도로 추산)은 동 기금 가입이 의무 사항

* 현재 자율적 가입자를 포함한 총 회원 수는 약 700만 명 수준이며, 인구 4,600만 명 기준 NHIF 가입률은 전체 인구의 15%

■ 수입 시장 동향

- **(시장규모)**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2016년 전체 수입품 시장 규모는 1억 2,192만 달러로 2015년 1억 3,518만 달러에서 9.8% 감소
 - 가장 수입액이 높은 품목은 내외치과용 기기(HS9018) 5,844만 달러, 방사선기기(HS9022)가 3,280만 달러 등으로 1~2위를 차지
- **(주요수입국)** 2016년 對 케냐 의료기기 수입은 중국이 7,900만 달러로 32.1%를 기록하였고 뒤이어 미국, 독일, 인도 순
 - 대표 브랜드는 미국의 SER, 이탈리아의 KW Scientific Instruments, 네덜란드의 Phillips, 덴마크의 BK Medical 및 일본의 Sanyo 등
 - 한국 비중은 1.1%이며, 주로 X-Ray 기계 및 외과용 기기 등을 판매 중

〈의료기기 국별 수입현황〉



* 자료원 : ITC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내,외,치과 수의과용 기기	9018	65,015	33.8	58,442	-10.1
2	방사선 기기	9022	39,535	179.7	31,057	-21.4
3	의료용품	3006	13,544	-31.6	11,264	-16.8
4	탈지면, 거즈 붕대	3005	7,402	-5.9	9,128	23.3
5	정형외과용 기기	9021	5,876	24.4	6,546	11.4
6	기계요법용 기기	9019	3,397	-1.1	4,247	25.0
7	호흡용 기기	9020	410	-72.3	1,236	201.5
총계			149.3	35.2	127.1	-9.8

* 자료원 : ITC

■ 한국 對 케냐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한국 의료기기 수출은 2011년에는 거의 전무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38만 달러로 최고치 기록
 - 2016년 수출은 25% 감소하였으나, 2011년(133.7만 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對한국 수입이 상승하는 추세

〈한국의 對 케냐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케냐	1,404	13.32	4,382	212.11	3,274	-25.29

* 자료원 : ITC

- (품목별) 2016년 한국의 대 케냐 수출 상위 5개 제품은 초음파 진단기(17.8만 달러), 치과용 시멘트(6만 달러), 치료용 호흡기기(5.7만 달러), 치과용 인조품(5.5만 달러), 봉합용 바늘(2.3만 달러) 순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HS CODE 9018	
주요 제품	초음파 영상진단기(9018)
제품 특성	의료 화상기기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GE 아프리카는 방사선 장비의 글로벌 선도 업체로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필립스가 약 1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2015년 1월, GE Healthcare는 케냐보건부로부터 의료 장비 서비스 관리 업체로 선정되어 7년간(2015-2022) 47개 카운티 98개 의료시설에 방사선 장비 임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원 : Kenya Times 등 현지 일간지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진출 성공 사례

<Nairobi Enterprises Limited>

- NEL은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케냐 내 의료기기 종합판매점(One Stop Shop)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의료기 공급업체
- 현재는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서부·중부 아프리카에 의료장비, 의약품, 수술 및 진단기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케냐 내에도 제약회사인 Universal Pharmacy사와 의료실험장비 및 화학약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Chemoquip사 등 두 개의 자회사 운영
- 동부 중부 아프리카 병원에 PSA 산소 호흡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농축산소를 전량 공급하고 있고, 기타 진공기, 산소 호흡기 등의 공급뿐만 아니라 시공 서비스 또한 제공함. 케냐 내에서는 치과용 자재 공급 최대 업체
- 성공비결의 핵심은 바이어 신용관리에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서 배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용을 보증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백업서비스 및 A/S를 제공
- 한국의 미가의료기는 NEL의 주요 취급 브랜드 중 하나로 케냐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이외에도 미국의 Airsep Co-operation, BCI International, 브라질의 Gnatus, 영국의 Bray Health & Leisure 와 Coopers, 프랑스의 Technilogie Medicare, 스위스의 Novvag 등이 있음

○ 연락처:

- Nairobi Enterprises Limited
- Kikuyu town Past Post Office
- P.O.Box1462,Kikuyu-Kenya.
- Phone: +254-154-31459/60/61/62, 32305
- Fax: +254-154-31461
- Email: info@nelent.com
- Website: www.nelent.com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 나이로비 내 Medanta Africare Center의 Handa 박사는 한국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자신의 의료 시설에서 SG Healthcare의 초음파 장치를 사용한 경험을 설명하며 검토 및 피드백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변, SG Healthcare의 장치와 관련하여, 품질이 GE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서술
- 한국 제품의 약점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여 고도로 전문화 된 의료 산업에서 장벽이 될 수 있으나 케냐 시장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첨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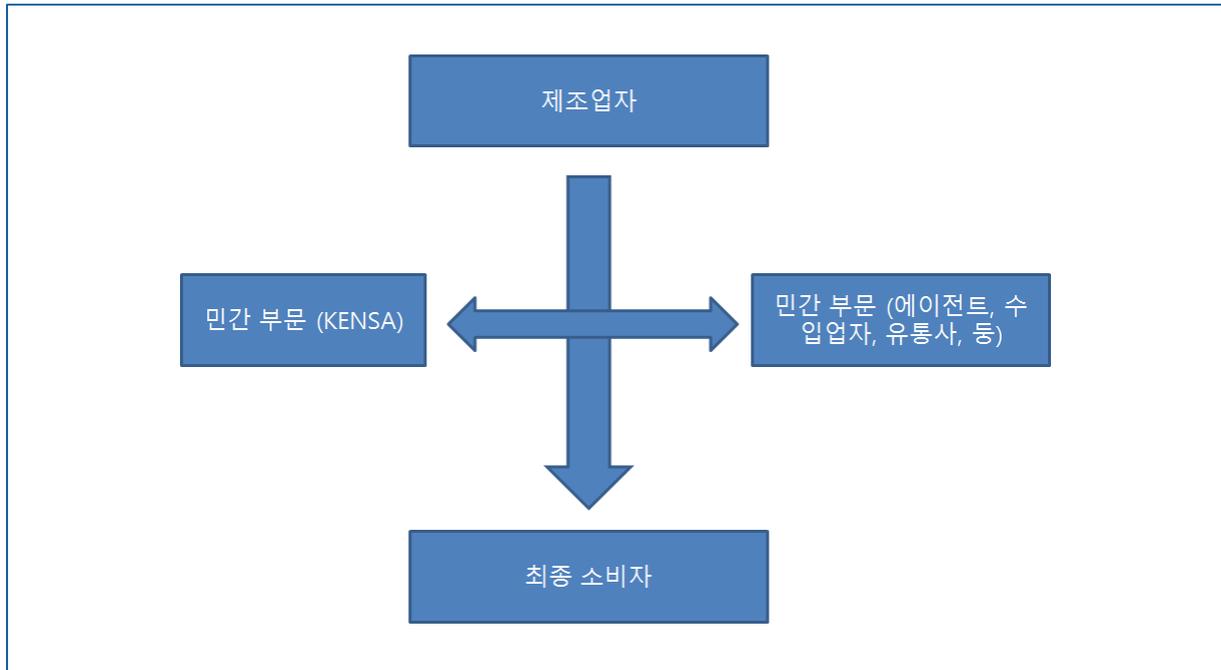
■ 제품군

- (소규모 장비) 최근 케냐의 의료 산업은 대형 병원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개인 전문 클리닉이 빠른 속도로 증가
 - 케냐 의료 산업의 추세에 발맞춰 저비용의 소규모 의료 장비 유망
 -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투석기(9018), OPG(9022), 휴대용 산소 농축기(9020), 인공 호흡기(9020), HME 박테리아 필터(9019), 인공 호흡기 호흡 회로(9020) 및 중앙 관련 장비(9018) 등

■ 유통구조

- (유통채널) 케냐 의료시장에서 수입 에이전트 역할 가장 중요
 - 케냐 의료기기는 직접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십 년간 입지를 굳혀온 수입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
 -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현재 케냐 시장에서 독점 수입 유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 최근 현지 지사를 직접 설립하여 병원 및 진료소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추세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관세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의료 장비에 16%의 부가가치세 부과

HS Code	주요 제품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9018.12.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16%
9018.14.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16%
9018.41.00	치과용 드릴엔진	0%	16%
9018.2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16%
9022.12.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16%
9022.13.00	기타(치과용 한정)	0%	16%
9018.90.00	그 밖의 기기	0%	16%
9022.21.00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0%	16%

* 자료원 : 케냐 관세청

■ 비관세 장벽

○ 케냐 내 의료기기 관련 비관세 장벽의 사례는 파악 된 바 없음

■ 등록 및 인증 절차

- **(수입허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케냐 표준청이 지정한 Intertek Testing Services (ITS)를 통해 사전 적합성 검사 필요
 - 동 검사를 통해 수출 적합 품목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취득 가능
 - 동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제품 도착 시 케냐 표준청에서 직접 제품 적합성 검사를 재시행, 경우에 따라 수입자 지불 조건으로 강제 환적사례 발생 가능

- **(인증)** 1994년 케냐보건정책안(Kenya Health Policy Framework) 고안 및 국가보건분야 전략계획(National Health Sector Strategic Plan, NHSSP)을 입안하여 시행 중
 - 방사선 관련 기기에 대하여 별다른 수입규제는 없으나, 설치 시 국립방사선보호국 (Radiation Protection Board)의 승인 필요
 - 중고 의료 장비의 경우, 케냐 표준에 준하거나 ISO 규정에 준한 경우에는 별도 수입 규제사항은 적용치 않음
 - 의료기기의 경우 관련 인증기관(인증기구)의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 가능
 - 경우에 따라 의료기기 자체가 인증이 된 경우 해당 의료기 일부 부품이 비 인증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추세
 - 필수 인증을 득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만 수입 허용
 - 1) 표준청에서 제시한 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수출국 또는 국제표준을 준수한 경우
 - 2) 수출국 산업인증표를 득한 경우
 - 3) 국제표준이 아니더라도 제조자 내부 표준절차를 통해 개발된 경우
 - 4) 최신기자재, 디자인, 제조과정 등으로 제조된 기자재 등의 경우
 - 다만, 위의 경우 해당 제품의 필수 기술 사양을 충족한다는 기술 관련 서류를 요구. 주로 자체 적용한 기술표준, 적용방식, 차이점, 테스트 결과 또는 적용 성과 등의 기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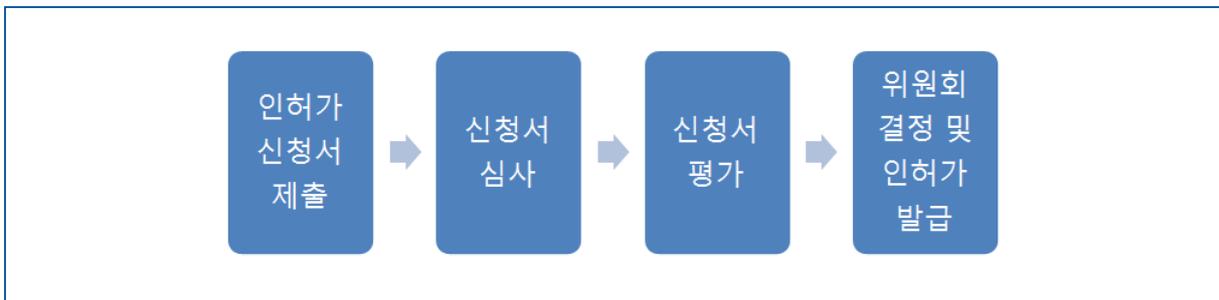
* 표준기술타입(Types of Standards) : 케냐에서 인정하는 표준 기술 국제 인증으로는 IEC와 ISO가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인증으로는 CEN과 CENELEC가 있음

* 그 외에도 독일 Deutsches Institut fuer Normung, 영국의 British Standards Institute, 미국의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AMI 등과 일본의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유럽의 European and national Pharmacopoeias 등이 있음

○ 필요 서류 등

- 1)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
- 2)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3) 항공 요금 청구서(선하 증권) 또는 선하 증권(해상 운송료)
- 4) 출하 전 조사 결과 CRF(Clean Report of Findings)

〈도식 : 등록 및 인허가 절차〉



○ (지정 대리인) 국제관례에 따라서 케냐 내 등록을 위해 현지 지정 대리인(에이전트) 필요

- 관련 당국에 현지 판매를 하려는 제품에 대한 제품 등록 및 매년 갱신(필요시) 필요
- 현지 에이전트 변경 시 이전 명의로 등록된 경우, 등록명의를 타 에이전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전 에이전트와의 합의 필요
- 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초기 등록 시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한국기업의 명의로 직접 등록하는 것이 유리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케냐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경제성장 및 구매력 증가 - 동아프리카의 최대 규모 시장 - 인근국 진출기지로 활용하기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식 의료기기 도입에 개방적 -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 - 웰빙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상승세 -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 여전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 한국 제품 인식 부족, 브랜드 파워 약함 - 기술적 지원 어려움(특히, AS) - 문화적 이질성 및 물리적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 대형 거래와 관련한 정부 부패 - 기존 에이전트로 인한 진입 장벽 - 기술 부족

- **(시장입지 확보)** 정부의 자유경쟁 허용으로 갈수록 경쟁 심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시장입지 확보 필요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추진 가능
 - ① 현지 에이전트 또는 공급자 확정
 - ② 현지 및 인근 시장을 확보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세일즈 활동
 - ③ 현지 기존 딜러를 통한 판매
 - ④ 규모가 큰 제품의 경우는 독점 딜러십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방식

- **(시장경쟁력) 현지 바이어 및 딜러들의 요구에 맞춘 시장경쟁력 제고**
 - 현지 바이어의 경우 한국산 의료기기 구매에서 주로 선적기간, 경쟁력 있는 가격, 현지 기술 사양 적합성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 특히 유럽 업체들에 비해 느린 한국 업체들의 A/S 보완·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케냐 바이어들은 비교적 구매 규모가 작고 여러 품목을 섞어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최소 구매 조건 등을 맞추기가 힘든 편

- **(입찰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점포, 에이전트, 도매업자들을 통해 거래, 사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등은 직접구매
 - 수입업자들이 제품을 수입하여 점포 및 최종 바이어에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
 - 대형 도매업자들은 직접 수입하여 규모가 큰 병원이나 중간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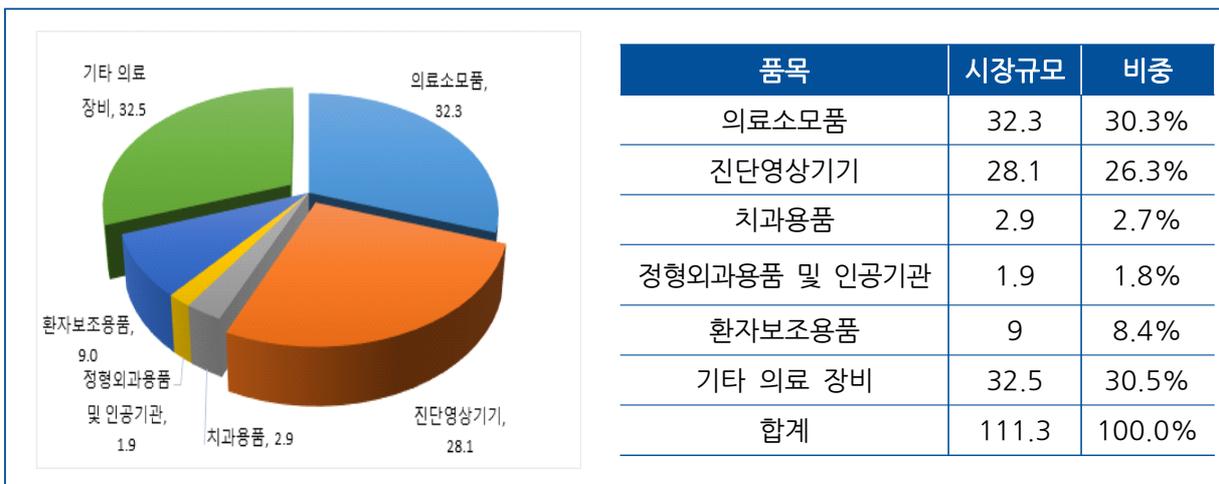
- **(유의사항)** 현지에 에이전트를 두어야하는 법적 규제는 없으나,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속품 및 소모품 등을 조달하는 것이 인근 시장 진출에 매우 유리
 - A/S가 부실할 경우, 시장 개척 후에도 유럽 동종 업체에 시장을 잃는 경우 빈번

3 나이지리아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2016년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억 1,130만 달러 달성, 2016~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달할 전망
 - 2020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달러화 기준 1억 3,470만 달러(438억 나이라), 나이라화 기준 동일기간 연평균 성장률 13.5% 예상
 - 남아공보다 인구는 3배, GDP는 1.4배 규모이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10 수준,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음
- * 나이지리아 인구는 2050년 3억에 도달, 세계 3위 인구 대국이 될 전망

〈2016년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주요 품목〉



- (특징) 매우 열악한 의료 인프라 상황
 -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병원 960개 포함 총 병원 수는 3,569개
 - 연방정부 3차 진료기관* 수는 54개로, 대학병원 20개, 연방 의료센터 22개, 국립정형외과 병원 3개, 국립안과 센터, 국립이비인후과 센터, 정신병원 7개로 구성
- * 연방정부 3차 진료기관은 모두 나이지리아 연방보건부(MoH)의 감독 하에 있음
- 나이지리아 의료체계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은 막중한 편, 2,600개의 민간 병원과 클리닉 포함, 전국에 약 9,000개의 민간 의료시설 존재
 -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극소수에 불과, 대부분의 의료기기 및 장비 수입에 의존

○ **(주요 정책)** 나이지리아 정부의 보건 예산 배분은 매우 낮은 편

-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부하리 대통령(Muhammadu Buhari)은 보건 분야에 국가예산의 3.9%에 불과한 3,400억 나이라(9억 4,600만 달러) 배정*
* 2016년(4.23%), 2017년(4.16%)
- 2001년 아프리카 각국은 건강분야 개선에 국가예산의 최소 15%를 반영기로 하는 ‘아부자선언(Abuja Declaration)’ 천명
-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2012년 5.95% 배정 이래 건강 및 보건 분야 예산 비중이 6%를 넘은 경우 전무
-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분야 서비스 도입 확대, 제도개선을 목표로 2005년 6월 이래 국민건강보험(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제도 운영
- 일반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 시행

〈나이지리아 보건 분야 예산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보건부	722	695	857
국민건강보험(NHIS) 기여분	175	176	137
의료기기 구입(보건부 제외)	36	66	26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분담금	10	10	10
기타	22	35	26
합계	965	982	1,05

* 자료원 : 나이지리아 통계청

○ **(의료관광)**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 연간 3만 명 추정

- 열악한 의료 인프라 및 의료기기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3만 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인도, UAE, 미국, 남아공 및 영국 등 유럽국가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상황
- 해외 의료관광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

○ **(잠재력)** 나이지리아 시장의 잠재력,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 높음

- 의료분야 서비스 틈새시장과 2억 명 규모의 시장을 노리고 나이지리아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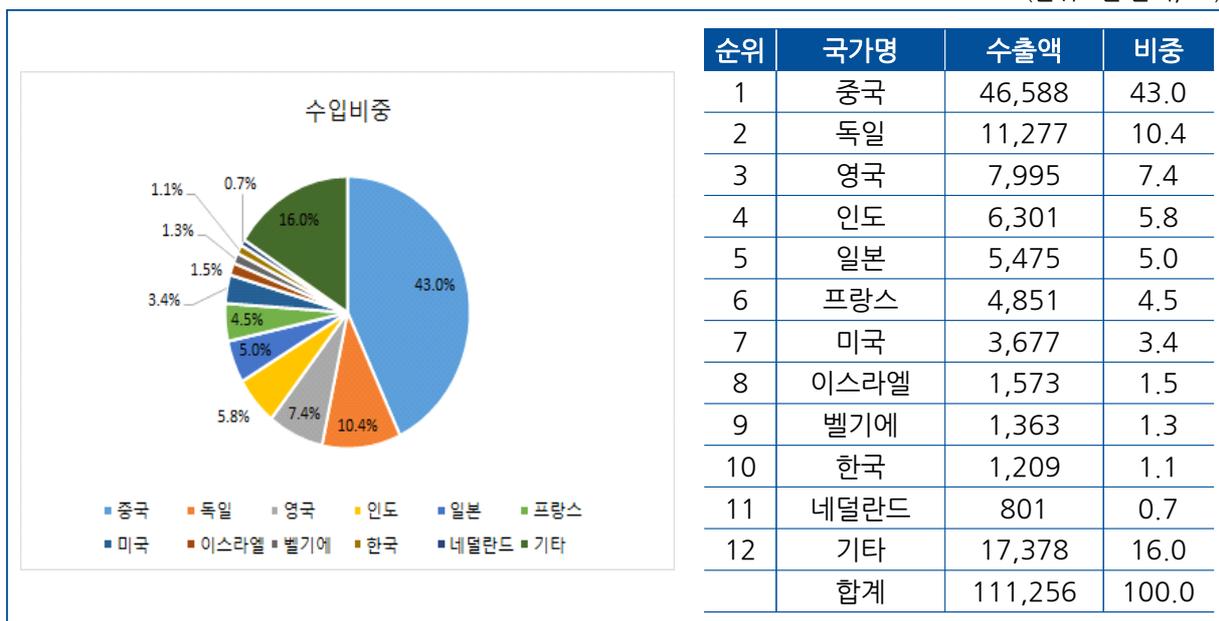
- 아직 의료 서비스는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미달, 더불어 공공부문의 의료기관들도 낙후된 상태
- 민간부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 주로 전문의들이 소유한 소규모 병원과 클리닉은 제대로 된 의료기기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이유로 수요 높음

■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 (규모) 2015년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수입규모 약 1억 1,126만 달러
 - 2011년(1억 1,690만 달러)부터 2014년(1억 5,750만 달러)까지 연평균 11%로 증가세, 2015년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감소세 돌입
- (주요국) 수입 대상국은 중국, 독일, 영국, 인도 순
 - (개발도상국) 나이지리아는 자금 부족으로 가격에 매우 민감, 2016년도 對중국 수입 비중이 43.0%, 인도 비중이 5.8% 차지
 - (독일) 고가 제품 생산국인 독일, 영국 수입은 각각 10.4%, 7.4%에 불과
 - (한국) 대한민국 수입은 103만 달러, 점유율은 1.1%에 불과하여 나이지리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

〈2016년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달러, %)



* 자료원: ITC

■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2016년 對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수출은 103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감소
 - 나이지리아 경기침체 및 나이라 환율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품목별)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 76만 8,000달러, X선 및 방사선 기기 13만 달러, 의료용기기 및 관련 부품 수출 4만 2,000달러 달성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나이지리아	1,319	371.1	1,150	-12.8	1,029	-10.5

* 자료원 : ITC

- 한국의 수출 상위품목(HS 9018류, 2016년 기준)은 초음파 영상진단기, 안과용 기기, 기타 의료기기, 혈압측정기기 등 기타 진단기기, 심전계 순

〈對나이지리아 한국 5대 의료기기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6단위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39	-71.7	354	807.7
2	안과용 기기	901850	178	50.8	154	-13.4
3	기타 의료기기	901890	508	111.6	146	-71.2
4	기타 진단기기	901819	80	128.5	108	35.0
5	심전계	901811	19	-13.6	9	-52.6

* 자료원 : ITC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 나이지리아에 진출하였거나 잘 알려진 외국 의료기기 브랜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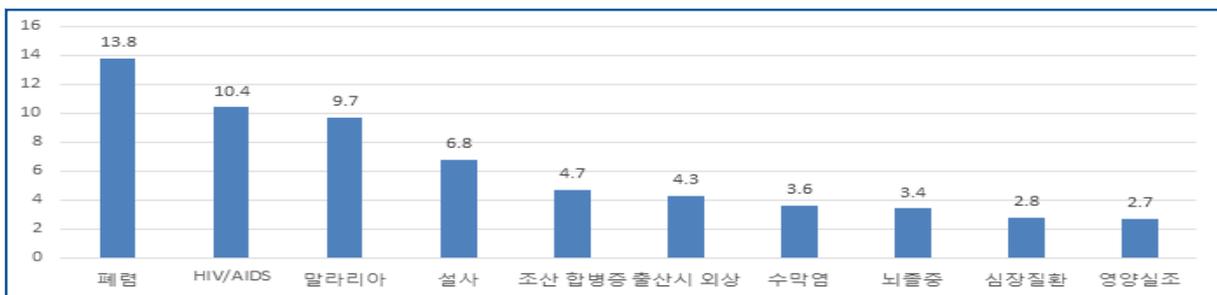
브랜드	국가
Toshiba Medical Systems	일본
Olympus	일본
ArjoHuntleigh	영국
Maquet Critical Care	스웨덴
Maquet Surgical Work Places	독일
Penlon Anaesthesia Systems	영국
B.Braun/Aesculap	독일
Bbraun	독일
WAS Ambulances	독일
Paxeramed	미국
Carestream Health	미국
Getinge	스웨덴
Schiller	스위스
Siemens Healthcare	독일
Analogic Corporation	미국
GE Healthcare	미국
Philips Healthcare	네덜란드

- (품목별) 자기공명영상 장비(MRI), 컴퓨터단층촬영 장비(CT),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 등 각종 의료기기 및 장비 수요 높음
 - 신제품에 대한 낮은 구매력으로 신규 의료기기 외 말라리아, 결핵 등 주요 전염병 관련 중고 진단장비 수입비중 높음

■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나이지리아 3대 사망원인인 폐렴, HIV/AIDS, 말라리아가 전체 사망률의 33.9%를 차지, 관련 진단기기 유망

〈나이지리아 10대 사망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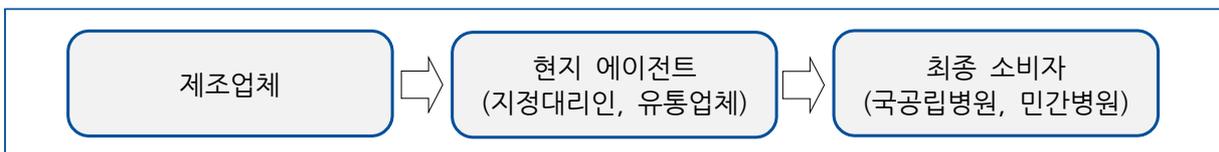
* 자료원 : WHO

- 진단영상기기 중 MRI, 초음파진단기, 기타 전자진단기기 수출 유망
 - 방사선 장비의 경우 CT 스캐너, 기타 X레이 장비 수입이 각각 연간 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유망 품목
- **(기타의료장비)** 기타의료장비의 수입액은 연간 3,6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비중 차지
- 병원용 가구, 의료용 및 수술용 살균소독기(Sterilisers) 등 유망 품목 전망
- **(의료용 소모품)** 수입액은 연간 4,288만 달러에 이르며 높은 수요 발생
- 인슐린 주사기, IV Catheter, 일회용 주사기 등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품 수출 유망
 -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을 대비, 가격 경쟁력 제고 필요

■ 유통구조

- **(유통채널)** 외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시 나이지리아 현지 에이전트(법인 또는 개인) 지정 필요
- 현지 에이전트는 수출업체를 대리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후 최종 소비자인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병원, 클리닉 등으로 공급 가능
 - 나이지리아에 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에이전트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 **(상권 구분)** 나이지리아는 거대 시장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 존재
- 현지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 선정 시, 남서부, 남동부, 북부 등 지역 상권을 구분한 접근 필요
 - * 남서부-라고스 등; 남동부-트하코트, 에누구 등; 북부-아부자, 카노, 카두나 등
 - 라고스를 포함한 남서부 지방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편이나, 남동부·북부지역도 인구 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의료기기 수요가 높음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유통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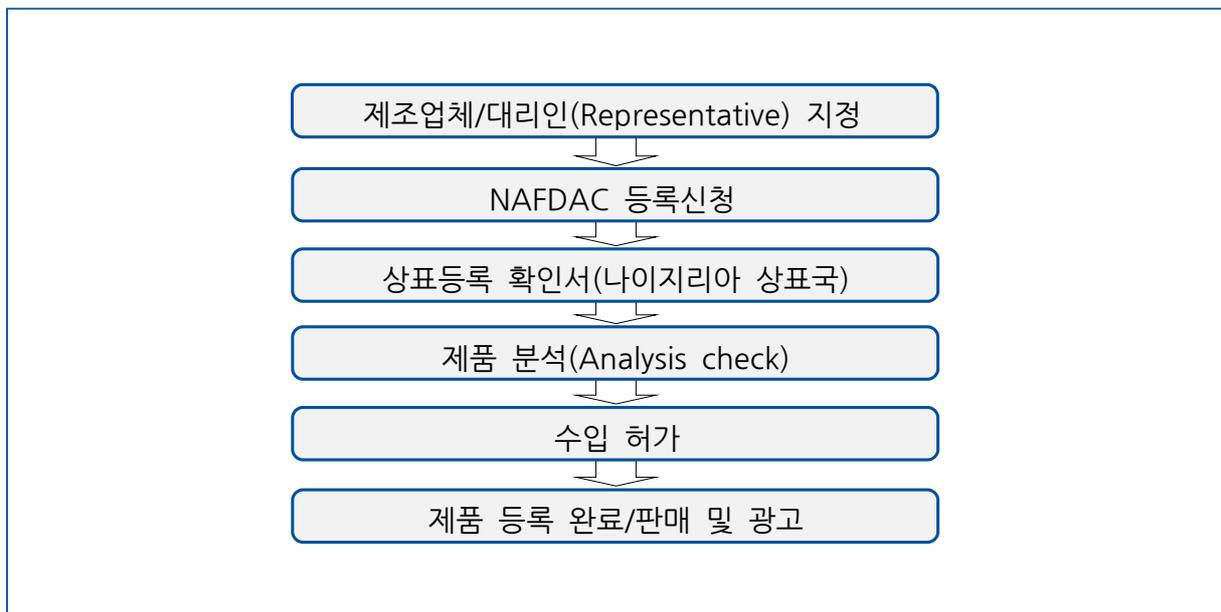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의료기기 수입관세는 5%,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5%의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음

■ 등록 및 인증 절차

- (등록) 나이지리아 식품의약청(NAFDAC)에 의료기기 등록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위임장 : 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가 발행한 나이지리아 현지 등록 위임자(등록 법인 또는 개인)를 지명하는 공증 위임장
 - 제품등록 신청서 : NAFDAC 등록 양식에 따라 제조업체, 제품명(브랜드명) 등 관련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제출
 - 상표등록 확인서(Trade Mark Approval for Brand Name) : 나이지리아 상표국 (Trademark Registry)에서 발행
 - 제품분석표(Comprehensive Certificate of Analysis of the Batch of Product)
 - 현지 수입에이전트의 회사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Incorporation)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등록 및 인허가 절차〉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2대 경제규모, 석유자원 - 1억 8,700만 명의 아프리카 최대인구 - 중산층 증가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건법 시행에 따른 자금유입 확대 - 국민건강보험(NHIS) 수혜인구 증가 - 의료장비 수요 증가 및 수입확대 예상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의료장비 시장 -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 충분치 못한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 농촌지역의 병원 의료 인력부족 - 국가보건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불안 및 치안부재로 인한 긴장고조 - 2016년 경기침체 이후 미흡한 경기회복 - 나이러화 평가절하 및 수입 타격 - 정부의 불충분한 건강분야 예산 배정 - 병원 의료종사자들의 정기적인 파업

○ (시장구조) 아프리카 최대 인구대국, 의료기기 잠재력 높음

- 1억 8,7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 2대 경제규모 시장
 - * 2050년 나이지리아 인구는 3억에 도달, 세계 3위 인구대국이 될 전망
- 중산층 확대 추세, 도시화 가속화로 인해 수요 증가 전망
-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원조 및 지원 규모가 상당
- 민간협력사업(PPP)와 같은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치 증가,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 필요

○ (진출전략) 가격정책 중요, 국제인증 및 나이지리아 의료당국 등록 필수

- 중국·인도 시장점유율이 거의 절반인 등 고품질 기기보다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바 가격 전략이 성패를 가르는 요소임
-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마련 필요
- 미국 식약청 등록 또는 유럽 표준규격 인증마크 제시하는 등 타 국가 정부 또는 병원 등 납품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

4 수단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2016년 기준 인구 3,900만 명, GDP 950억 달러의 아프리카 3대 시장
 - 주사기 등 일부 소모품을 제외한 98% 이상이 수입품
 - 수단 통계청에 따르면 수단 내 의료기기 수입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7,000만 달러, 정식 수입 외 통관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수입 분까지 감안 시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동향)** 수단 보건시장 규모는 2017년 56억 달러로 전년보다 0.6% 감소, 단 현지화(SDG)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추산(최근 달러대비 현지화 가치 급락세 영향 반영)
 - 2016년 기준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42달러, 2005년 36달러에 비해 4배 증가, 2026년에는 226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추세
 - 특히 2012년 이후 중대형 병원, 의과대 신설로 인해 의료기기 수요 점차 증가 추세

〈수단 의료비 지출규모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비지출 총액	52	56	56	56	60	65
1인당 의료비지출액	136	142	137	134	142	150
GDP대비 의료비지출 비중	5.4	4.7	3.8	3.3	2.9	2.6

* 자료원 : WHO, BMI

〈수단 병의원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

	병원수	침상수
공공병원	516	30,308
민간병원	257	1,340
의원	5,391	N/A

* 자료원 : 수단 통계청

〈수단 인구증가 동향 및 전망〉

(단위 : 천 명, %, 세)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전체 인구	27,250	30,911	34,385	38,647	43,541	48,999
연평균 인구증가율	2.4	2.4	2.4	2.4	2.4	2.4
도시 인구	8,855	10,127	11,375	13,065	15,239	17,972
지방 인구	18,396	20,785	23,011	25,583	28,301	31,028
평균 수명(남자)	57	59	61	63	64	65
평균 수명(여자)	60	62	64	66	67	68

* 자료원 : 월드뱅크, UN, BMI

○ **(시장특징)** 1인당 GDP 2,000 달러 남짓한 빈국이지만 주변국에 비해 의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

- 낮은 소득 수준,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한 열악한 의료 인프라 상황
-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확대 현상 진행 중
- 소량의 주사기를 제외하면 국내생산이 거의 전무, 국내 사용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수단 통계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국내생산규모 2016년 기준 57만 달러로 극히 미미

○ **(성장가능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및 정부주도 정책으로 인한 시장 성장 가능성 다대

- 2000~2016년 인구 50% 증가했으며,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2007~2017년 135% 증가하는 등 완만한 경제성장률 유지
- 2012년 이후 중대형 병원, 의대 신설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20년 만에 해제된 미국발 對수단 경제 제재, 정부주도 시장이라는 점은 외국기업 진출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

○ **(시장구조)** 민간분야보다 공공 의료 비중이 높음

- 과거 사회주의의 경험으로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제공*

* 의료기기 최종 수요처인 병원 중 정부운영 병원 비중이 65%, 민영 비율은 35%

- 또 다른 주요 수요처인 UN 등 국제기구, NGO도 공공조달시장으로 분류
- 원조 및 국제입찰에 의해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지원 사업 규모는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주요 정책)** 의료기기에 세금 면제, 수입 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부여
 - 의약품, 의료기기를 밀(뺑), 석유 등과 함께 생필품으로 분류, 가격, 수급 등을 통제
 - 의료 분야 투자 시 세제인센티브 제공,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시 관세 면제, 영업세(sales profit tax)를 제외한 관세, 부가세, 개발세 등 기타 세금 면제, 의료기기 등록요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
 - 국가의료보험 확대 및 의료 환경 개선에 정부예산 증액 배정 계획이나 누적된 재정적자와 경제상황 악화로 실행 보류 상태

- **(미국발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2017년 10월 12일 부로 미국발 對수단 경제제재*해제로 관련 수입 시장 성장 기대

* 제재기간 중 은행을 통한 외화결제 불가능함에 따라 수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등 3국에 결제협력사를 보유한 기업만이 수입 활동 가능했음

- 조만간 은행을 통한 외화송금(in & out) 재개 시, 보다 많은 수단기업의 수입활동 증가와 수입결제 금융비용 감소 효과 기대
- 단, 경제제재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달러 공급 요인 없이 가수요 기대감이 몰리며 현지화가치 추가하락, 물가 급등, 국내소비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지난 2017년 10월 UNDP와 수단 보건부는 수단 동부지역의 의료시설 및 서비스 개선 지원 협약 체결

〈수단 정부 의료비 지출규모 동향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2015	2016	2017f	2018	2019	2020
정부 의료비 지출총액	11.0	11.7	11.6	11.6	12.5	13.5
전체 의료비 대비 정부비중	21.0	20.9	20.8	20.7	20.6	20.5

* 자료원 : WHO, BMI

■ 수입 시장 동향

- **(규모)** 의료기기 공식 수입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7,000만 달러, 이중 2/3를 차지하는 9018류(내과·외과·치과·수익용 의료기기) 기준 수단 수입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500만 달러 내외로, 미미하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세 시현

〈최근 3년간 수단의 의료기기(HS코드 9018 기준)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HS 코드	2014	2015	2016
9018	32.2	39.0	44.8

* 자료원 : 수단 통계청

- **(주요국)** 주요 수출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들이 차지

〈수단의 국가별 의료기기(HS코드 9018 기준)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1	중국	5.46	11.23	12.61
2	독일	6.94	5.51	7.11
3	인도	2.45	4.63	6.44
4	UAE	1.85	3.20	3.49
5	이탈리아	1.79	1.44	1.97
6	아루바	0.74	0.63	1.39
7	사우디아라비아	1.03	2.32	1.10
8	일본	2.28	1.69	0.77
9	세인트빈센트	1.75	0.86	0.71
10	한국	0.45	0.95	0.43
	소 계	24.74	32.46	36.02

* 자료원 : 수단 통계청

- 2016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 1위는 중국으로 1,300만 달러, 이어 독일과 인도가 각각 700만 달러, 600만 달러 순
- 한국의 9018류 의료기기 수출은 약 40만 달러로 수입시장 점유율 1.2% 기록
- 유럽, 아시아산 수입과 함께 특히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등 7개국과 접경한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아랍 국가들을 통한 제3국 수입이 활발한 편

- **(품목별)** 2016년 기준 전체 7,000만 달러 수입 중 9018류(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수입규모가 4,500만 달러로 2/3 차지
 - 호흡용 기기, 엑스레이기기, 의료용 소모품, 정형외과용 기기의 수입비중도 높은 편

〈수단의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품목명	HS 4단위	2014	2015		2016	
		수입액	수입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9018	35,252	38,927	21	44,818	15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	616	1,056	13	0,580	- 45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9020	75	0,020	- 68	0,034	71
정형외과용의 기기 (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 포함)	9021	1,510	2,013	19	3,523	75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2	2,465	4,349	- 13	3,249	- 25
탈지면·거즈·붕대	3005	4,295	5,650	11	6,012	6
기타 의료용품	3006	2,224	9,340	32	11,760	26
합 계		48,451	61,355		69,976	

* 자료원 : 수단 통계청

■ **한국의 對수단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우리나라의 對수단 의료기기 수출은 연간 200만 달러 내외* 한국 對 수단
 - * 수출(만 달러): 2015년(212)→ 2016년(160)→ 2017년(172)
- **(품목별)** 초음파 영상진단기, 엑스선기기 등 진단 영상기기가 연간 50만 달러 내외 수출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인조관절 관련 제품 수출도 20~30만 달러 기록 중

〈품목별 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6		2017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9018	891	-32	1,109	24
2	정형외과용의 기기 (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 포함)	9021	325	76	382	17
3	탈지면 · 거즈 · 붕대	3005	128	523	140	9
4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2	255	-48	60	-76
5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 산소흡입기 · 에어로졸치료기 ·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	0	-	12	-
6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9020	0	-	0	-
7	의료용품 기타	3006	5	-93.2	17	207
합계			1,604	-	1,720	-

* 자료원 : 한국 관세청

■ 국별 및 기업별 동향

- (주요국) 수단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의료기기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나,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은 일본, 유럽산들이 차지
 - 품질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의료기기 특성상 유럽(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
 - 특히 일본은 JICA(일본국제협력단) 봉사단원으로 연 인원 50여 명을 파견할 정도로 공여, 원조 등을 통한 일본기업의 이미지, 제품 홍보, 인지도 제고에 노력

〈국가별 수단 의료기기 수입시장 점유율, 2016년 기준〉

순위	수출국	시장점유율
1	중 국	21%
2	독 일	13%
3	인 도	12%
4	U.A.E	7%
5	일 본	6%
6	이탈리아	4%
7	아루바	3%
8	세인트빈센트	3%
9	사우디 아라비아	2%
10	이집트	1%

* 자료원 : 수단 통계청

- **(경쟁국)** 중국·유럽 기업이 수단 시장 선점, 경쟁이 불가피
 - 중국 의료기기 기업들은 정부 및 중국계 은행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수단 등 아프리카 시장에 대량 진출
 - 유럽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을 오랫동안 인정받은 결과, 한국제품들의 시장 진출을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 요건 등 경쟁력 제고 필요

〈수단내 판매중인 의료기기 가격 비교(예시)〉

수출국	제조사	제품	소비자가격(단위 : SDG)
한국	A사	PCA Pump	6,000(약 300달러)
한국	A사	Syringe Pump	6,000(약 300달러)
일본	Atom Medical	PCA Pump	9,000(약 300달러)
일본	Atom Medical	Syringe Pump	9,000(약 300달러)

■ **수단내 의료기기 생산기업**

- **(수입의존형)**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
 - 직접 생산 품목은 주사기 등 일부 단순 소모품에 한정되어 있고, 생산 규모도 2016년 기준 약 57만 달러로 전체시장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수단내 의료기기 생산 예시〉

HS CODE 901831	
주요 제품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제품 특성	하기 Type의 인체수용 주사기 생산 * Insulinsyringes. 3ml, 5ml, 10ml, Top-jeckt Syringes
경쟁기업 및 주요제품	Avamed for Medical Industries Co.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점유율)** 한국산에 대한 관심은 편이나 아직 한국산 점유율은 저조한 편, 약 1% 정도에 불과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단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산과 중동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
 - 한국산 가전, 의약품, 자동차의 선전으로 현지 한국산에 대한 인식 증가 및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호감도 증가

- **(진출 성공 사례)** 아래 사례를 포함 약 10개 한국기업이 최근 수년 내 수단에 의료기기를 수출했거나 수출중인 것으로 파악

- 국내 I사·S사, 수단 의료용 진단기기 전문 에이전트 H사와 협업, 수단시장에 수년째 제품 공급 중

- * 2017년 12월 카르툼에서 개최된 SIMPEX에도 참가

- 국내 A사, 수단 의료기기 전문 에이전트 A사와 협업하여 주사기 펌프, PCA 펌프 수출 중

- 국내 D사, 수단 의료기기 전문 에이전트 S사를 통해 물리치료 기구 수출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 의료기기 전문 디스트리뷰터인 A사의 Ahmed 대표는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만족하나 아직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고 언급

- 직접 한국산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품질이 만족스럽고,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종종 있었지만 공급되는 제품군이 한정돼 있다고 전함

- 단, 여전히 구매 결정의 핵심 요인은 가격이라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유연한 결제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중국산에 대해서는 가격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품질 우려가 있다며, 독일, 미국산 제품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통용된다고 언급

- 한국산 물리치료 장비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S사 대표는 한국 의료기기 가성비가 뛰어나고, 마케팅자료 제공 등도 적극적이어서 신뢰가 간다고 평가

■ 유망 품목

- **(가정용 의료기기)** 자가진단기기 수요 높음

- 현지 의료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 집안에서도 간단히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경량형 제품을 중심으로 가정용 의료, 진단기기 수요 존재

- 단 것을 즐기는 수단인들의 식습관 영향으로 성인 뿐 아니라 소아당뇨 환자 증가 추세로 혈당 및 혈압 측정기 등의 자가진단기기 수요 증가세

○ **(피부미용 기기)** 한류 여파로 인해 한국산 제품 인지도 확산

- 수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최빈국 중 하나로 피부 미용기기 수요가 한정돼 있으나, 밝은 톤 피부에 대한 선호로 일부 상류층·중산층 중심으로 피부 미용 기기 수요 존재
- 피부미용센터, 스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K-Beauty, 한국산 피부미용기기* 우수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 추세

* 초음파 피부미용기기(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한국산 수요 존재

○ **(병원용 진단장비)** 저가보다는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점 부각 필요

- 의료용 소모품 등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들 제품 선호
- 보다 고기술을 요하는 병원용 진단, 치료장비의 경우 유럽산 선호,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산 구매 수요 존재
- 아래 질병 관련 진단, 치료기기, 산소발생기 등 의료장비 유망

〈수단 내 질병 분포(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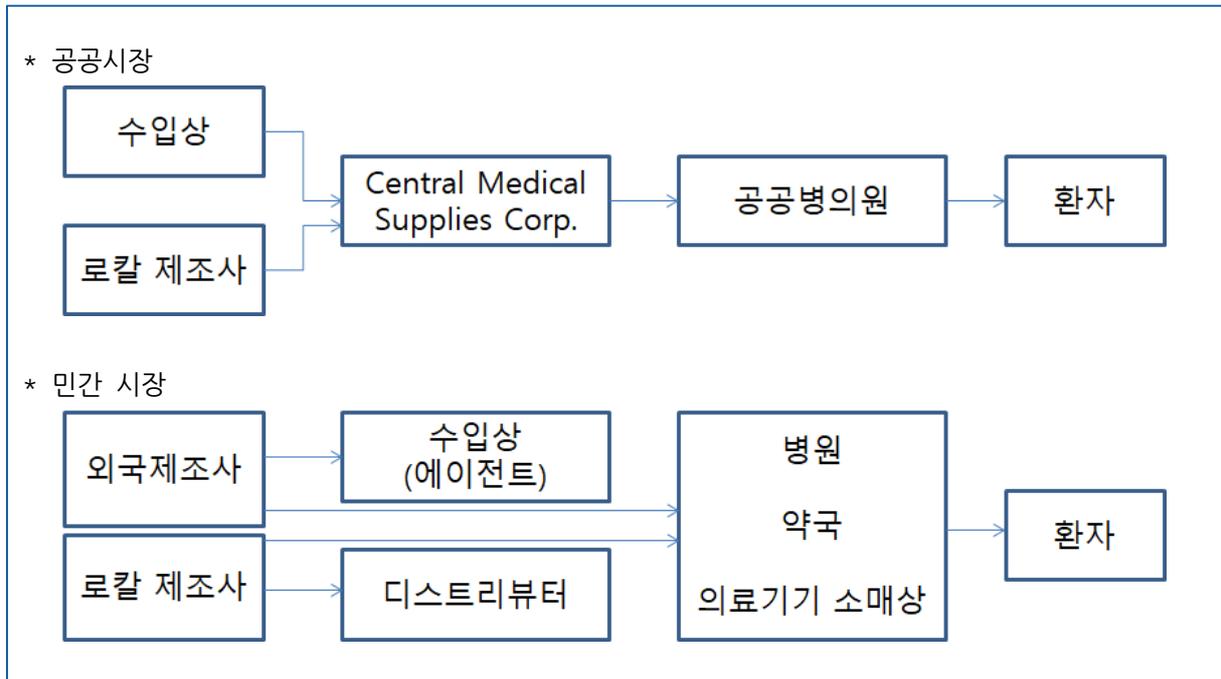
순위	병명	환자수	비중
1	말라리아	974571	9%
2	당뇨병	716654	6%
3	폐렴	724825	6%
4	설사 & 위장염	530302	5%
5	편도선염	576798	5%
6	요로 관련 질병	323517	3%
7	부상	313930	3%
8	M. C. for O. Con. Pred. R. to Pregnancy	284351	3%
9	Obs & gyna	242317	3%
10	호흡기 질환	229463	2%
	소 계	4916728	43%
	기 타	6566588	57%
	합 계	11,483,316	100%

* 자료원 : 수단 보건부

■ 유통구조

- **(유통채널)** 의료기기 주요 수입처는 의료기기 전문 디스트리뷰터와 판매상, 최종 수요처인 병의원, 의과대학, 국제기구 및 NGO 등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
 - 수입된 제품들은 CMSP(의료조달공사) 입찰과정을 거쳐 공공부문을 통해 병의원, 환자들에게 공급
 - 민간시장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유통한 제품을 소매상, 병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
- **에이전트의 역할**
 - 수입에이전트는 법무부, 등기과에 수입에이전트로 등록해야하며, 수입제품의 수단 식약청(NMPB) 등록 및 판매
 - 공공시장의 경우 CMSPC가 실시하는 입찰의 참가 주체로서 활동

〈도식 :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발세(Development Tax)면제, 영업이익세(Business Profit Tax)만 2% 부과

■ 비관세 장벽

- **(장벽)** 국내 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 이에 자국산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는 까다롭지 않으나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수단 식약청등록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자격은 제조사 및 제조사인증을 받은 공식딜러로 제한
 - 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일반 유통사는 의료기기 수출이 제한
- **(비용)**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선 우선 NMPB로부터 제조공장 등록을 마친 후 제품 등록 가능, 해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발생
 - 특히 공장 등록 시 반드시 NMPB 전문가가 해당 공장을 방문 및 실사토록 하여 관련 비용과 시간 소요
- **(고려사항)** 수단은 WTO 미가입국으로 지적권 보호가 어려운 점도 외국계 기업의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

■ 등록 및 인증 절차

- **(등록)** 수단 내 의료기기 판매 주관 부처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 판매를 위해서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NMPB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 및 제품 등록 필수
- **(제조사 등록)** 의료기기 제조사 등록을 위해 아래 신청서류 및 신청비용 제출
 - 신청요청 레터
 - 신청서(제조사 등록용 양식 활용)
 -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품 품질 인증서 카피
 - 외국산인 경우 제조국 정부 승인서 및 수단 현지 에이전트 지정 레터
- **(인증 절차)** 의료기기·의약품의 경우 GMP 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단의 경우 반드시 NMPB 전문가가 해당 공장의 실사를 거치도록 요구
 - 공장 등록신청서 접수가 완비된 것으로 판정되면, NMPB 전문가 3인이 해외 공장을 직접 방문 및 실사
 - 동 3인에 대한 항공, 숙박비 외 실사비 3,000유로를 실사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3~4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 단, 한국산 제품의 경우 그 제조기준의 엄격함을 인정, 공장실사 면제 및 관련 승인 서류 대체 방안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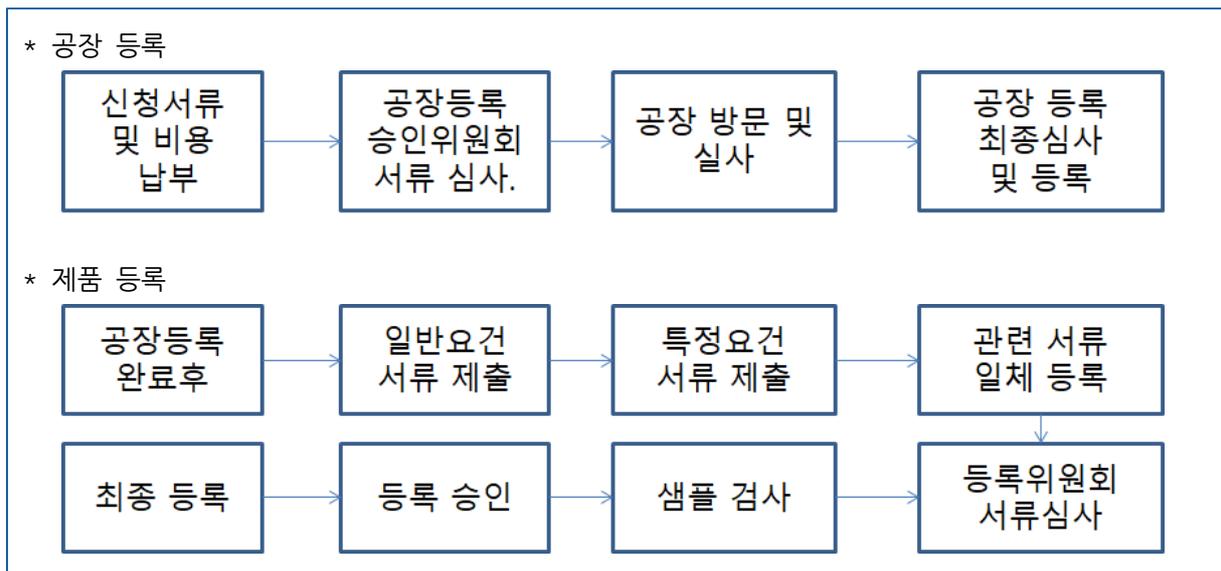
○ **(의료기기 등록)** 제조시설 등록 후 의료기기 자체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신청서류를 신청비와 함께 제출

- 신청요청 레터
- 신청서(의료기기 등록용 양식 활용)
- 규정 준수 확인서
- 수단 당국의 등록(승인) 확인서(필수)
- 해외수출 경험 보유시 관련 실적
- 기술설명서 사본
- 안전, 품질, 효과 관련 문서 사본

○ **(관련 법규)** 의료기기등록법(Law on Registration of Medical Supplies)

-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안전성, 품질, 효과성 등을 강조

〈도식 : 등록 및 인허가 절차〉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주재국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4천만, GDP 950억 달러에 달하는 내수시장 보유 - 아랍-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물류거점 역할 가능 - 공공의료 및 정부조달 시장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eauy(한류) 영향확산으로 피부 미용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인지도 향상 - 국민의료보험 확대 계획중 - 터키, 카타르, 나이지리아의 의료 인프라 투자 가능성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장 등록의 어려움 - 의료시설 부족 및 지역별 편차 - 지적권 보호 법규 미비 - 의약품 가격정보의 불투명성과 고가 - WTO 미 가입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품질 중국산 시장지배력 강화 - 환율, 물가 급등세에 따른 수입 위축 및 시장 불안 - 기타 정치, 치안 불안 요인 존재

- **(시장 성장 가능성)** 수단은 인구 3,900만 명의 GDP기준 아프리카 3대 시장(2016년 950억 달러), 의료기기 분야 상당규모의 내수 존재
 - 수입 의존형 의료기기 시장 형태, 정부 및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병의원 신설 및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등 시장 확대에 대한 호조요인 다수
 - 정부도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 투자 시 세제 혜택 부여 등 지원책 수행 중
 - 미국의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수입여건 개선으로 전반적 수입시장 증가 기대

- **(장애요인)** 부정적인 단기 경제 전망 및 공장 등록의 까다로움
 - 경제제재 해제로 장기적 경제전망은 밝으나 최근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지속된 현지화가치 하락, 그에 따른 물가 급등, 정부 재정 악화가 시장 확대 저하
 - 국제인증을 보유해도 수단 식약청 공장방문 및 실사 전에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등 무역 초기단계가 까다로움

- **(시장 경쟁력)** 현재 한국산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은 1% 미만으로 낮은 편, 이에 시장 점유율 제고 필요
 - 특히 피부미용기기 분야에서 K-Beauty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한국산 제품 취급 유통업 바이어들은 중국, 인도제품에 비해 고품질이며 유럽산과 비슷한 수준의 한국제품 품질을 강조하며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긍정 평가
 - 바이어들은 기존 기업들과 경쟁을 감안,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결제조건의 유연화,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교육훈련, 마케팅 지원 등 부대 서비스 제공을 요청

- **(에이전트)** 현지 에이전트는 제품 등록, 마케팅, 조달시장 입찰 전반에 걸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이에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이 중요
 - 수단바이어들이 이메일 교환에 약점을 보이며, 면대면 미팅을 특히 선호하는 점을 감안, 수단 출장 또는 수단 바이어 방한을 통해 역량있는 파트너 발굴 필요*

* 한국내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두바이 GITEX 등 인근국 전시회, 수단내 의료전문전시회인 SIMPEX(Sudan International Medical Health Care & pharmaceutical Investment Forum & Trade Exhibition) 등을 파트너 발굴에 활용

5 에티오피아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인구는 1억 명이나 의료기기 밀도가 낮은 잠재력 높은 시장
 - 에티오피아 인구는 2016년 기준 1억 명을 넘어섰으나,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
 - 의료기기 구매의 60%는 공공, 나머지 40%는 민간이 차지
 - 에티오피아의 보건 지출은 1인당 26달러에 불과, SSA 평균을 하회
 - * 보건 지출(달러/1인): SSA 평균(98.2), 에티오피아(26.6)
 - 에티오피아 전체 의료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11억 달러로 추산
 - 통상적으로 의료시장 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비율을 8:2로 추정하는바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2억 2,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 의료기기 수입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

〈에티오피아의 지역별 병원 현황〉

지역명	보건소	보건센터	국립병원	민간병원			종합병원
				의원	일반의원	전문병원	
Tigray	737	213	39	8	99	61	3
Afar	325	94	6	0	0	0	0
Amhara	3,342	841	68	746	188	48	10
Oromia	6,823	1,441	78	3,020	129	5	8
Somalia	1,184	204	12	40	50	10	1
Benishangul-Gumuz	402	40	2	105	29	2	0
SNNPR	4,182	742	78	1,200	274	29	8
Gambella	126	28	4	87	25	0	0
Harari	32	8	2	8	18	17	2
Addis Ababa	0	98	11	179	458	361	25
Dire Dawa	34	15	2	8	38	3	5
합계	17,187	3,724	302	5,401	1,308	536	62

* 자료원 : 에티오피아 보건부

○ **(시장특징)** 수입의존을 높으며, 공공 비중이 높음

- 현지 의료기기 제조업 부재로 인해 의료기기 수요의 90~95%를 수입에 의존
- 일부 제조기업은 병원용 가구(베드, 이동기기)에 국한

* 로컬의료기기 제조기업 : Neobiomedical, Yamrot Eng, Labora Int, Ashura Pharma 등

- 고가의 진단장비에 대해서는 미국, EU 등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 선호
- 일회용 제품과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제품은 중국, 인도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함

* 대다수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의 경우 가격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품질은 미국, EU의 80~90% 정도인 것으로 인식

- 민간의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시장진출과 일정 규모의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장진출이 합리적

* 국제인증 취득 제품은 수입업체 통해 등록 가능. 특히 영향력 있는 업체 통한 PFSA(의약품조달청) 발주 프로젝트 수주에 관심 보이는 외국기업 증가 추세

○ **(정부정책)** 보건 예산 지속적 증가 중, ODA 지원 의존도 높음

- 에티오피아는 1991년 사회주의 정권 퇴진 후 총 4차례에 걸쳐 의료부문개발계획(HSDPs - Health Sector Development Plan)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
- 2008년부터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나 의료보험 혜택과 수혜자층이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ODA와 NGO의 지원에 크게 의존
- 실제로 한국의 경우 KOICA의 모자보건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보건, 위생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WB, UN, EU국가들의 경우 의료부문 개선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
- 에티오피아의 의료부문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2017 회계연도 기간 중 배정된 예산은 6억 5,800만 달러를 기록

* 정부 예산은 자체예산(세수) 및 다자·양자 ODA로 구성

■ 수입 시장 동향

- (시장규모) 2016년 에티오피아의 의료기기 수입시장 규모는 9,900만 달러, 2015년의 1억 5,000만 달러에 비해 32.6%가 감소한 상황

*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부족에 따른 L/C 개설·결제 지연 및 지부티(Djibouti)항의 화물적체·배송지연도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외과용 기기	9018	83.6	21.3	72.4	-13.4
2	기계요법용 기기	9019	8.0	335.6	2.8	-64.5
3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9020	1.3	30	2.0	49.0
4	정형외과용 기기	9021	1.6	41	1.4	-16.1
5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2	15.0	-39.9	4.1	-72.7
6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3005	3.9	-39.5	3.9	0.7
7	의료용품	3006	18.2	16.11	12.7	-30.2
합계			147.4	10.65	99.3	-32.6

* 자료원 : ITC

- (품목) 의료용·수술용·치과용 제품군(HS 9018)이 전체 수입시장의 72%를 차지하며 진단기기 및 일회용 제품도 꾸준히 수입되나 비중에서는 3~5% 미만

■ 한국 대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수출은 2015년 250만 달러로 전년대비 54% 급증하였으나, 2016년에는 230만 달러를 기록하며 6% 정도 소폭 감소한 상황

* 2016년 에티오피아의 총 수입시장에서는 1.7%의 비중을 차지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한국	1,464	-15.2	2,206	50.7	1,906	-13.6

* 자료원 : ITC

- 한편 한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및 가격대비 높은 품질에 대한 바이어들의 평가는 향후 시장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품목)** 초음파 검사기 수출 크게 증가, 의료용 소모품 판매도 증가 추세
 -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은 초음파 검사기로 2015년 1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40만 달러로 확대, 對에티오피아 수출에서 61% 차지
 - * 메디슨 등 한국산 초음파기기에 대한 현지의 높은 인지도 예측 가능
 - 이밖에 관형 주사바늘, 기타 주사바늘도 신규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였으며, 치과용 기기도 큰 규모는 아니나 전년대비 86.7% 상승
 - *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치과치료 수요가 성장세이며, 향후 심미적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의 성장세도 예측 가능

■ 의료기기 전반 국가별 시장 점유율

- **(시장 점유율)** 중국이 약 3,200만 달러로 26.7%, 상위 5대 국가가 75%를 차지
 - 일반 의료용품의 경우 중국, 인도 등이 경쟁력을 보이는 반면 기술 집약적 의료기기에서는 미국, EU의 글로벌 기업들이 강세

〈2016년 에티오피아의 국가별 수입동향〉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중국	미국	인도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태국
수입액 (백만 달러)	31.9	20.4	20.2	11.9	4.5	3.5	3.4	3.1	1.9	1.8
비중(%)	26.7	17.1	17.0	9.9	3.8	2.9	2.8	2.6	1.7	1.6

* 자료원 : ITC

- **(중국 의료기기)** 현재 중국산은 주사기, 의료장갑 등에 국한되고 있으나, 최근 수입되는 전자식 의료기기를 보면 기술력과 품질이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 미국·EU 주도의 제품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

〈2016년 에티오피아의 對中 의료기기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제품명	HS 코드	총 수입실적	대중 수입실적	대중 수입비중
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9018	86.4	22.3	25.0
2	기계요법용 기기	9019	3.4	2.6	75.0
3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9020	2.4	0.3	10.5
4	정형외과용 기기	9021	1.6	0.03	2.1
5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2	5.9	1.6	27.8
6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3005	4.6	4.0	86.7
7	의료용품	3006	15.0	1.2	7.7
합계			119.3	31.9	26.7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진출 성공 사례

<M사 초음파 진단기>

- 에티오피아에 20년 이상 수출, 오랜 기간 쌓아온 인지도로 입지 구축
- M사의 시장진출 성공요인은 제품의 우수성과 바이어들의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수입 에이전트와의 협력이 중요
-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 제품 등록은 물론 현지 마케팅에 있어서 현지 수입업체의 역량 및 네트워크가 시장진출의 성패를 좌우, 향후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능력 있는 현지 수입기업의 선별에 유의 필요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 대다수는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막연히 미국산과 유럽산에 비해 성능은 80% 정도, 가격은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
 - * 상기 언급한 M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한국산 제품은 현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사례가 거의 전무
 - * 이밖에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적기 부품공급 및 A/S 미흡, 소량오더에 대한 소홀한 대응 등으로 인해 미국, EU, 인도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수입기업(5개사) 및 병원장(2명) 등 접촉 결과>

- 한국산 의료기기 중 초음파 진단기기 등은 오랜 기간 시장진출로 인해 업계에서는 매우 친숙한 제품이며, 유럽, 미국산과 비교시 품질에서 큰 차이 없음
-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데, 공공병원의 경우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산 제품이 곧바로 진출하기는 다소 어려움
- 한국산 의료기기는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오히려 기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용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료기기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도포기 하는 경우를 목격한바, 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수적
- 미국, EU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정기적으로 신제품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며,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 구매 후 소모부품 구입, A/S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선뜻 한국산을 구입하기 어려움

■ 유망 품목

○ 하기 제품은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PFSA-Pharmaceutical Fund & Supply Agency)이 2017~2020년간 중점적으로 구입할 20대 의료기기

– 의료기기

#	제품명
1	디지털 방수 체온계(온도 32~42℃)
2	어른용 암부백
3	어른용 혈압계(벨크로 커프 및 300mhg 밸브)
4	스테인리스 어른용 청진기
5	소아용 암부백
6	어른용 혈압계
7	태아경(목재)
8	배 모양의 체온계(온도 35~42℃)
9	자동조절 마이크로피펫(5-20마이크로리터)
10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인퓨전 스탠드

– 의료용품

#	제품명
1	탈지면 100gm BP 그레이드
2	반창고 산화아연 사이즈 7.5cmx10m
3	일회용 주사기(멸균) 5ml 루어 및 21G 바늘
4	일회용 라텍스 진료용 장갑 비멸균, 무분말, 미디움 사이즈
5	소변주머니, 폴리염화비닐, 라텍스 프리 2000ml
6	라텍스 파우더 프리 수술용장갑(멸균) No. 7.5
7	수술용 거즈 90cmx100m 메쉬 사이즈 19x15
8	반창고 산화아연 사이즈 12.5cmx10m
9	일회용 주사기(멸균) 3ml 루어 및 21G 바늘
10	일회용 라텍스 진료용 장갑 비멸균, 무분말, 스몰 사이즈

-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제품

#	제품명
1	자가 검진(말라리아, 결핵, HIV)
2	영상장비(초음파, 흉부 방사선)
3	조기 발견 비전염성 질환(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4	모자건강(진단 및 치료 장비) & 보건위원을 위한 장비
5	보청기, 휠체어, 인공 기관, 안구 렌즈

※ 참고(질병 등으로 인한 주요 사망원인)

- 2016/2017 회계연도 기간 중 주요 사망원인

#	병명(혹은 사인)	사례(건)	비율(%)
1	조산	1,865	7.4
2	출산질식	1,590	6.3
3	신생아 패혈증	1,469	5.8
4	폐렴	1,414	5.6
5	순환기관 관련 질병	1,091	4.3
6	뇌졸중	1,060	4.2
7	결핵	975	3.8
8	출생전 병	860	3.4
9	정신적 외상	771	3
10	에이즈	77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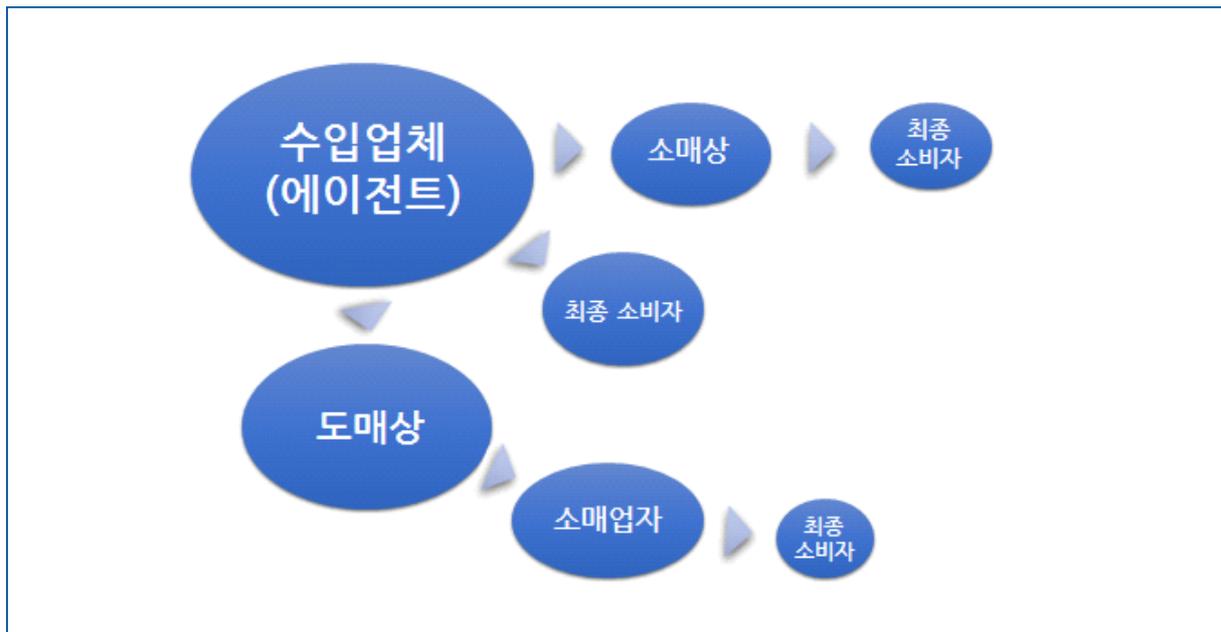
- 2016/2017 회계연도 기간 중 유아사망 10대 원인

#	병명(혹은 사인)	사례(건)	비율(%)
1	조산	1,865	18.7
2	출산질식	1,590	16.0
3	신생아 패혈증	1,469	14.8
4	출생전 병	860	8.6
5	영양실조	686	6.9
6	폐렴	696	7.0
7	저체중아	465	4.7
8	선천적 기형	324	3.3
9	수막염	216	2.2
10	설사로 인한 탈수증	183	1.8

■ 유통구조

- **(에이전트)**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시장진출은 능력 있는 수입 에이전트의 발굴에서 결정될 정도로 신중한 선택이 중요
 - 제품의 수입 및 신속한 제품등록, 병원 등 공급대상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대량 구매로의 유도는 수입 에이전트의 능력에 좌우
 - 특히 제품 등록시 에티오피아 식약안전청(FMHACA : Food, Medicine and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uthority of Ethiopia)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유능한 에이전트는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공공조달)** 특히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시장에서 공공조달 비중이 60% 이상임을 감안, 관련 정부기관과 네트워크 보유가 필수
 - 의약조달청(PFSA : Pharmaceutical Fund and Supply Agency)에서 조달 업무를 전담 수행, 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
- **(유통구조)** 수입상을 거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구조

〈의료기기 유통채널〉



■ 주요제품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 관세

HS코드	제품명	관세율	소비세	물품세	부가세	원천세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5	0	0	15	3
9019	기계요법용 기기	10	0	10	15	3
9020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10	0	10	15	3
9021	정형외과용 기기	5	0	0	15	3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0	0	0	15	3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5	0	0	15	3
3006	의료용품	0	0	0	15	0

〈관세 관련 용어설명〉

- * 관세율(Custom Duty) : 0%, 5%, 10%, 20%, 30%, 35%의 6가지 세율이 적용. CIF 가격에 적용되며 원자재, 반제품, 생산용 제품 및 공공을 위한 제품(버스 등) 등에는 세율이 10~20%이나 개별 소비 목적의 소비재 혹은 완성재의 경우 35% 적용
- * 소비세(Excise Tax) : 가장 보편적인 세금으로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물품 등에 부과.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 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은 10~100%를 적용. 정부의 주요 세수로서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
- * 물품세(Surtax) : 수입물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 기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보조 및 물가수준을 낮추기 위한 필요재정을 확보
- * 부가가치세(VAT) :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15% 적용. 세금 액수는 (CIF+수입관세+Excise Tax)의 15%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해 일부 면제품목 적용
- * 원천세(Withholding Tax) : 수입 품목은 3%, 기타 소비는 2% 부과

■ 비관세 장벽

- (L/C 거래 의무) 제도적인 비관세 장벽은 없으나 5,000 달러 이상의 수입 건에 대해 L/C 거래만 허용하여 원활한 수입활동을 저해
 - 에티오피아의 외환 부족으로 인해 L/C 개설시 6개월 이상 소요
- (높은 물류비) 의료기기 검사 및 등록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내륙국가라는 단점으로 인해 높은 물류비와 배송도중 파손, 분실 등의 위험 상존
 - 2018년 2월 아디스아바바-지부티간 철도 운행으로 물류 문제 해소 기대

■ 등록 및 인증 절차

- (식약안전청 등록) 에티오피아에서 외국산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티오피아 식약안전청에 제품 등록 신청
 - FMHACA에서 제품 등록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 세부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moh.gov.et/fmhaca>) 참고
 - 통상 제품등록은 현지 에이전트(바이어, 유통기업, 수입회사 등)를 통해서 진행되며, 제품등록 시 현지 에이전트와의 계약서 요구

1. Application form :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of a medical device is required to provide the completed templates by summarizing the registration dossiers. Information that is not provided in the dossier should not appear in the formats in the application form. Annexes and addendum in the registration dossier should always be cross-referenced in the application form.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 shall be handed in the same date with the submission of registration dossier to the FMHACA.
2. Agency agreement : The section describes the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the agent importing the products.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is explained as well as what criteria is required of them.
3. Declaration of conformity : States that the manufacturer shall attest their products fully comply with the applicable Essential Principles for Safety and Performance as documented in a written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4. Certificate of compliance : GMP certification, products certificate, TSE/BSE risk free attestation letter, and certificate of conformity in line with the DOC declared under the above item should be provided.
5. Manufacturer name and quality management : The basic information of manufacturer shall be provided, such as name, address, background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6. Medical device essenti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 All medical devices, irrespective of their class, should mee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medical device safety and performance principles as described in the guideline attached. The section further describes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medical de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with the registration dossier.
7.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Manufacturing procedures and manufacturing flow chart by including an in-process standard control mechanism should b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8. Labeling of medical devices : General requirements for labeling(the language of labeling, type of information, format etc.) and contents of medical device labeling(name and trade name, date of issue, address of manufacturer etc.) are listed in two sections in the guideline attached.
9. Sample of actual product : A sample of the product may be required for visual confirmation and for the purpose of laboratory testing or analytical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vice.

- **(주의사항)** FMHACA에 제품등록 신청 시, 신청에서부터 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넉넉한 기한 설정 필요
 - FMHACA의 매뉴얼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 및 서류 검토에 약 1년 내외 소요
 - 국제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FMHACA의 공장 실사를 거쳐야하기에 제품 등록이 더욱 지체되는 상황 발생

- **(국제인증 필수)** EU의 GMP, 미국의 FDA를 국제인증으로 인정, 보유 시 공장실사 면제
 - 국제 인증이 없는 경우 FMHACA의 공장 실사를 거쳐야 하는데, 공장실사 일정을 확정 받기 어려움

- **(소요비용)** 공장 실사 면제 시 약 3,000 달러, 공장실사 실행 시 2만~3만 달러 소요
 - 각 제품당 등록비용은 500달러이며, 매 5년마다 제품 등록 갱신 시에도 비용 소요

※ (참고) FMHACA 제품 등록 시 필요 서류 리스트

- <http://www.moh.gov.et/fmhcaca> 참조 요망

FOOD, MEDICINE AND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CONTROL AUTHORITY
New pre-screening check list for medical device (IVD & Non IVD)

Device Name : _____
General _____ use _____ Category _____ :

Device Class : _____ Local Agent : _____

S/n	Description of Topics	Yes	No	N/A	Re.
1	General information				
1.1	Covering letter				
1.2	Copy of the registration fee receipt				
1.3	Are all sections of the document in English or a translation version?				
1.4	Table of contents				
2	Filled application form				
3	Signed and dated detailed agency agreement				
4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5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recognized standard				
5.1	Copy of GMP certificate (for higher class devices, C&D for non IVD, and III & IV for IVD)				
5.2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recognized standard (e.g. ISO or DIN or TUV or BSI, etc. certificate)				
5.3	Original authenticated free sales certificate (if Ethiopian embassy)				
5.4	Product certificate (if applicable such as sutures,				
5.5	Risk-free TSE/BSE attestation (For ingredients contain animal origin, non-IVD device of higher classes)				
6	Manufacturer name & Quality management				
6.1	Company profile/ organogram				
6.2	Quality management system				
6.3	Registration status of manufacturer and its device				
7	Medical device essenti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8	Manufacture and Production information				
9	Packaging material labeling information(if require)				
10	Conformity assessment				
10.1	Device description				
10.2	Design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10.3	Essential Principle checklist				
10.4	Analytical Performance (for IVD)				
10.5	Clinical Performance (for IVD)				
10.6	Stability study report (if applicable)				
10.7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f applicable)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주재국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의료기기 수입수요 증가 - 꾸준한 경제성장·도시화 지속으로 인해 정부의 의료기기 구입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억 명 돌파 및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 보건 지출 비율이 매우 저조, 성장 잠재력이 높음 - 민간 병원 및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수입 의존적 시장형태 지속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강화정책의 더딘 추진 - 제품등록 및 인증취득·갱신 지연 - 가격 중심적 시장 형성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 거래로 인한 더딘 수입처리 - 시장규모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 **(잠재력)** 인구가 1억 명이며, 보건 지출은 아직 SSA 1/4, 전 세계 1/40 수준인 관계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음
- **(수요 증가)** 에티오피아의 GDP는 10년 만에 3배 성장했으나, 아직 도시화가 아프리카 최저 수준(19.9%)에 그쳐 의료기기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에티오피아 1인 GDP(달러): 2007: 220, 2016: 660
- **(국제인증)** 제품 등록 시 서류미비, 샘플 미제출로 인해 초과비용 및 시간지연 만연, 국제인증 취득 필수
 - 에이전트의 꼼꼼한 처리, 신속한 대처능력 요구(4회 반복 시 신청자격 박탈)
 - 국제인증이 없을 경우 공장실사로 인해 제품 등록이 지체되는바 미국 FDA, CE 등 주요 국제인증 취득 필수
- **(통관)** 수입 라이선스 및 통관서류의 실제 수입제품과 일치여부 중요
 - 정보 불일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과다

6 가나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지역 중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 2014-2020년 약 3배 성장 전망
 - 가나 의료 부문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및 중산층의 증가,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 예상
 - 2016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8,423만 달러이며, 2020년까지 2020년에 9,21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나 원유 증산에 따른 경제성장과 GDP성장이 인구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비전염성 질병의 증가, 의학 인프라 투자로 인해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나 의료기기 시장 성장의 주요인은 공공 병원의 확대 및 국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 높은 전염병 발병률로 인해 진단 및 연구 장비, 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가나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 천 달러, %)

	2014	2015	2016
전체 시장 규모	32,974.0	30,308.6	83,754.9
전체 수출	315.7	2,126.5	479.4
전체 수입	33,289.7	32,435.1	84,234.3

* 자료원 : ITC

- (시장특징) 가격경쟁력 중요, 1인당 보건지출은 아직 낮은 상태
 - 가나의 1인당 보건 지출 금액은 58달러로 SSA 평균(98달러)보다 낮음
 - 현지 소비자들은 제품·서비스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시하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
 -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소모품(29.3%), 진단영상(22.4%), 환자보조기구(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나는 의료 장비 및 장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시장 성장의 요인은 공공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제도 외에도 높은 노인 인구 비율, 민간 의료부문의 확대 등이 있음
 - 시장 성장의 저해요인은 낮은 1인당 GDP 및 의료지출, 낙후된 초기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행정집행의 미숙함 등

- **(정보정책)** 보건정책은 가나 정부의 중점 사업, 특히 결핵 퇴치 사업에 집중
 - 일반적으로 가나는 중고 의료기기 또는 개조된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수입 규제나 관세가 없으며, 신품 또는 중고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방식 적용
 - 구급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 장비는 관세 및 세금 면제
 - 건강 산업의 확대·발전은 가나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올해 275대의 새로운 구급차를 공급할 예정
 - 결핵을 신속·정확하게 진단·치료하고자 2016년 전국적인 결핵 진단 프로젝트 실시
 - ‘Accelerating Tuberculosis Case Detection in Ghana’라는 이름하에 12년 동안 민간투자사업(PPP)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10만 명당 290명인 결핵 환자 수를 5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 수입 시장 동향

- **(성장동력)**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및 치안환경, 성숙된 민주주의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률, 원유 생산량 증가, 유연한 노동 법규 등이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성장 기회) 높은 출산율, 비전염성 질병의 증가, 보건 산업 인프라 투자, 외부 원조 등
 - (낮은 진입장벽)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과 높은 수입 의존으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 **(취약점)**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행정시스템과 낮은 GDP로 성장 기반이 취약하며 의료시설, 의료기기 현대화에 대한 관심 부족, 낮은 1인당 보건 지출 등
 - (시장 불확실성) 의료기기 수입의 변동성, 원자재 중심의 경제 성장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의료기기 산업별 전망

- (소모품 시장)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 11.6%를 기록하여 2020년 2,93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 주로 봉대 및 의료 봉합제, 주사기·바늘 및 카테터, 수술용 장갑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진단영상 기기) 2015~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0%를 기록하며 2020년에 2,12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할 것으로 전망
- (치과 용품) 미개척 산업으로 2015~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1% 기록하며 2020년에 270만 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정형외과 및 보철) 가장 빠른 성장 전망이 예상되며, 2015~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8%를 기록하며 2020년에는 140만 달러의 시장규모 전망
- (후천성 면역 결핍증) 2015~2020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에 54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의료기기) 2015~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5%를 기록하며 2020년에 3,22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할 것으로 전망

○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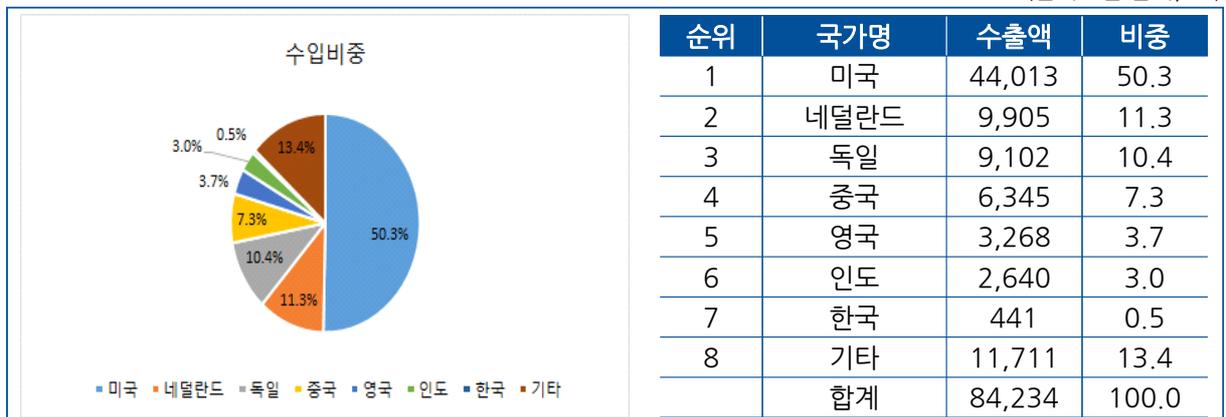
순위	품목명	HS코드	2015		2016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진단기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9018	19.7	3.11	59.4	201.85
2	방사선 기기(X, α, β, γ선 사용 기기)	9022	7.2	-5.58	16.1	123.02
3	의료용품 (봉합재, 컷거트)	3006	1.0	-33.26	2.9	183.09
4	기타 기기(마사지, 심리 적성 검사용, 호흡기기 등)	9019	1.8	-11.29	2.8	53.78
5	의료용 소모품(탈지면, 거즈, 붕대 등)	3005	1.5	0.75	1.6	2.39
총계	-	-	32.4	-	84.2	-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은 아직 가나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나, 무역관 개설 이후 한국산 제품의 홍보를 통해 바이어의 인콰이어리가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대부분의 의료기기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수출국 : 미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016년 가나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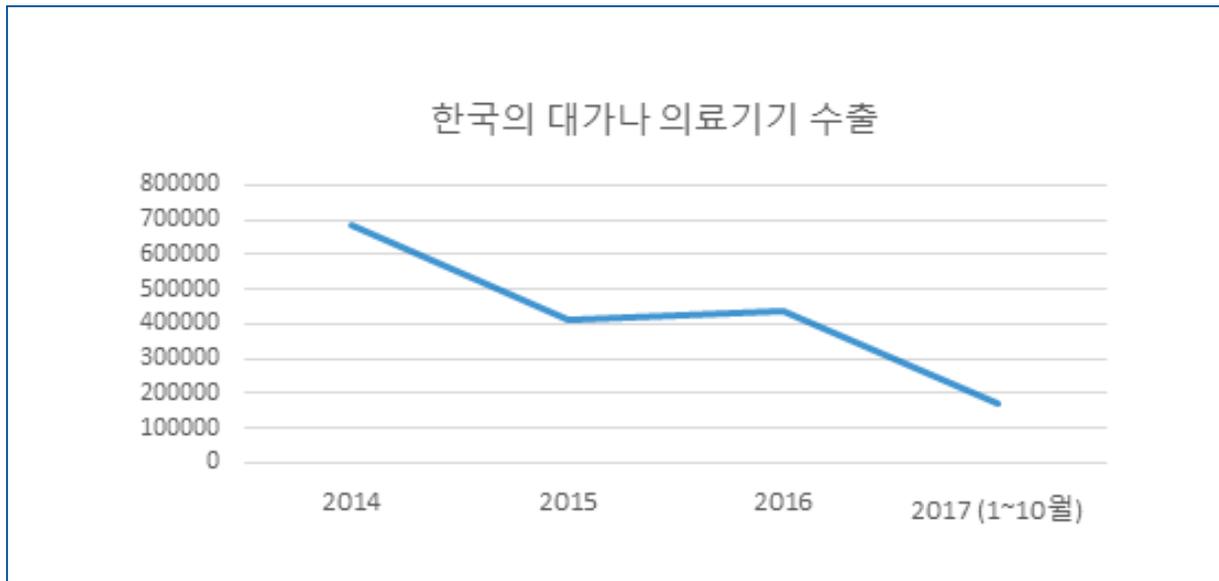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



* 자료원 : ITC

■ 한국 對가나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한국의 對가나 수출은 부진한 편
 - 한국의 대 가나 수출은 미미한 편이며, 시장 점유율도 1% 미만
 - 2017년 1~10월 전년대비 의료기기 수출액이 급감, 약 17만 달러의 적은 수출액 기록



* 자료원 : ITC

〈한국의 對가나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가나	682	-98.90	410	-39.88	435	5.96

* 자료원 : ITC

- (품목별) 최대 품목은 마사지, 기계요법 기기이나 판매량 감소 추세
 - 우리나라의 對가나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매우 작으며 대부분 제품의 수출액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 가장 큰 수출량을 차지하는 마사지, 기계요법용 기기의 경우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
 - 기타기기(임신진단기, 내시경, 인공신장기 등)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코드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기계요법/마사지용 기기	901910	328.1	-49.13	258.8	-21.13
2	기타 진단기기(산부인과일반외과수학과 등)	901890	6.9	175.96	88.5	1173.60
3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50.4	411.13	43.0	-14.59
4	엑스선 기기 부분품 및 부속품	902290	0	-100	16.8	-
5	엑스선 기기(치과용 제외)	902214	0	-100	12.7	-

* 자료원 : ITC

■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 (경쟁국가) 기타 SSA국과 다르게 중국산 점유율이 낮고, 고품질 미국·유럽 제품 선호
 - 의료기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순이며 중국산 수입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편
 - 한국산 의료기기는 점유율이 1% 수준이며 인지도도 낮은 편

○ 경쟁제품

제조 업체명	브랜드명	소비자가격	시장점유율	원산지 (수출국)
Hanisa Ghana Ltd.	Elcon Medical Instruments	다양함	20%	독일
3M & C Ltd.	Alaris	다양함	5%	미국
Mediwise Int'l Co. Ltd.	Olympus	다양함	10%	영국
Elektromediks Ghana Ltd.	Smiths	다양함	8%	미국

* 자료원 : 유력 바이어들 추정치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HS CODE 9022	
주요 제품	X-ray device with a specialized software Computer Aided Diagnostic for TB (CAD4TB)
제품 특성	결핵 진단 X-ray기기로 방사선 전문의 없이도 결핵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도와줌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가나 보건부는 'Accelerating Tuberculosis Case Detection in Ghana'라는 이름하에 2017년부터 향후 12년 동안 민간투자사업(PPP)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정부는 먼저 50개 병원을 선정, 최첨단 Tele-X-ray 기기를 설치하고 결핵 의심환자를 무료로 진단해줄 것으로 보임. 이 프로젝트에 네덜란드 기업 Universal Delft가 참여하면서 결핵 진단 흉부 엑스선(X-ray) 기기를 공급

* 자료원 : 가나 보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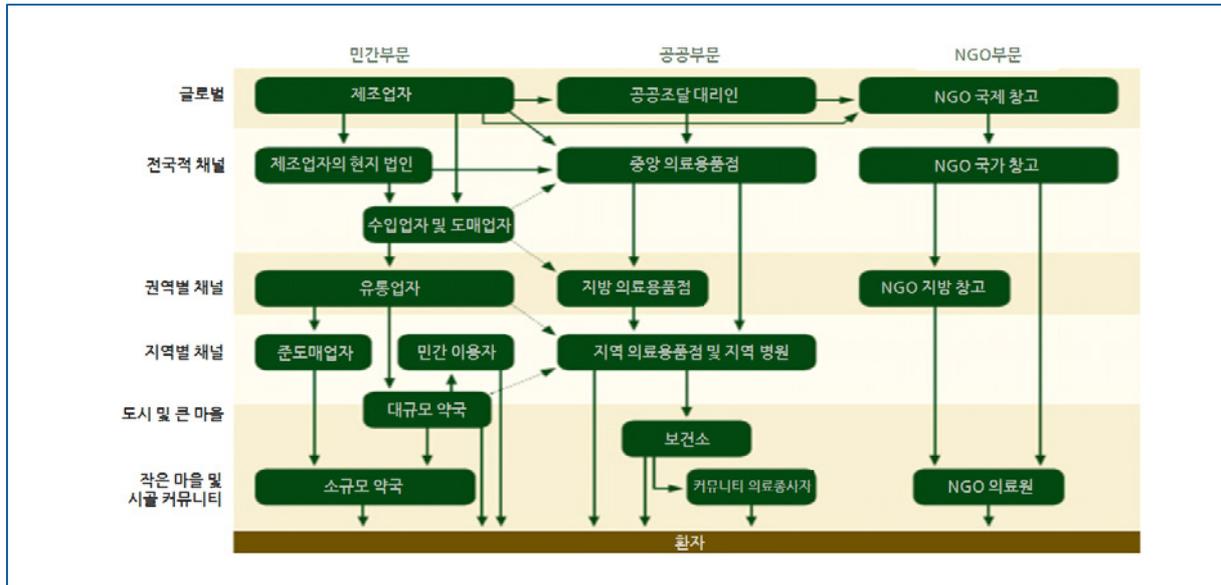
■ 유망 품목

- (의료영상 진단기기) 가나 보건부의 결핵 진단 프로젝트가 의료영상진단기기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진단기기) 전염병 발발이 높아 자가진단기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
 - *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 2014년부터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나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 중 가장 큼
 - 2016년 기준 미국이 가장 큰 수출국이기도 하나, 특정국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유통구조

- (유통채널) 의료장비 수입허가가 있는 에이전트 확보 필수, 장기 계약이 보편적이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
 - 가나에서는 의료장비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및 허가 필요
 - 보건부와 기타 다국적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다량의 의료장비를 수입해 현지 보건기관에 공급
 - 가나의 수입업체는 안정적인 장비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수출업체는 품질의 일관성 및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수
 - 유통채널 비중은 수입상(70%), 소매상(20%), 도매상(10%) 순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소매기업들도 통상 수입업체의 소유인 경우가 다수

〈의료기기 유통채널〉



* 자료원 : Yadav et al., 2011.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HS코드	주요 제품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901890	기타 진단기기(산부인과·일반외과·수외과 등)	10%	0%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10%	0%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5%	0%
901819	기타(혈압측정기, 청력검사 기구, 뇌파계 등)	5%	0%
901910	기계요법/마사지용 기기	5%	17.5%
902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 없는 보호용 마스크 제외)	5%	0%
902214	엑스선 기기(치과용 제외)	5%	0%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5%	0%
902290	엑스선 기기 부분품 및 부속품	5%	0%
300590	탈지면/거즈/붕대/습포제	0%	17.5%
300660	호르몬·제2937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17.5%

■ 비관세 장벽

- 특별한 비관세 장벽 없음

■ 등록 및 인증 절차

- 수입 허가 획득방법

- 모든 수입품은 가나 항구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의 최소 60%가 남아있어야 함. 단, 유효기간이 24개월 이하인 상품은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의 8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관련 인증제도 또는 표준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 Law)에 의해 규제
- 가나 Food and Drugs Authority Laboratory의 품질 보증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에 맞춰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개발·실행하고 있음

* 국제 표준 : ISO/IEC 17025:2005, WHO-GPPQCL(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y)

- 필요 서류

- 현지 수입희망업체는 수입 전 FDA(Food & Drugs Authority)로부터 수입면허 획득
- 보건부의 Biomedical Engineering Unit이나 Ghana Health Service의 Clinical Engineering Unit, Food&Drugs Authority에서 샘플 안전검사 후 승인
- 제품 수출 시 △수출, 수입업자 주소 및 이름 △제품명, 수량, 설명서 △제품 등록 번호 △원산지 및 제조업체 이름 △배치 번호 △Total CIF value △선적항 및 승인된 통관항의 이름 △날짜, 회사 서명 △제품 브랜드명 혹은 일반명 등 확인

* 가나 FDA 홈페이지의 'GUIDELINE FOR IMPORTATION OF MEDICAL DEVICE' 참고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가나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정치 환경과 경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NHIS), 한국 건강보험 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값싼 노동력과 융통성 있는 노동 규정, 안정된 인프라 - 서아프리카 시장 접근성이 높고 포괄적 상호 연결성 확보 가능 -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수입 환경 - 서아프리카 내 최고의 헬스케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산업 확대 - 민간 의료 부문 확대 - EU 자금 확보 - 다국적 활동의 확대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국내 생산량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서아프리카 시장의 높은 인구 증가 - 비전염성 질병 증가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 - 높은 물가와 체재비 -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민감 - 낙후된 의료 시스템, 느린 행정 시스템(정책 실행의 비효율성) - 한국산 제품의 낮은 인지도 및 수출 - 숙련된 의사나 간호사 부족 - 물, 전기, 도로 등 인프라 부족 - 적은 노인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1인당 GDP 및 의료 지출 - 서아프리카궤 국제(무역) 사기 - 선진국의 시장 선점 - 중국, 인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 - 수입 변동성이 큼 - 주요수출품의(석유, 금, 코코아) 가격변동에 경제가 취약

■ 현지 바이어 특성 및 구매 시 고려사항

- **(바이어 특성)** 저개발국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나, 현대화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 품질도 고려 필요
 - 현지 바이어 구매상담시 우선 고려사항은 가격, 품질, A/S, 공급자와의 신뢰관계 등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중요시 여김
- **(정부조달)** 가나 정부도 다양한 부문의 글로벌 파트너 물색 중
 - 통상적으로 정부와의 계약은 규모가 크지만 최종계약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및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으므로 인내심 필요

■ 마케팅 방안 및 타겟 고객층

- **(민간 수입업체)** 수입업체와 직접 공급 및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부 및 정부기관)** 정부의 각종 위원회 및 관리기관과 중장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
- **(현지지사 설립)**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모든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서아프리카 ECOWAS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 **(타겟 고객)** 정부, 민간보건기관, 의료용품 취급기업 공략 필요
 - 정부(보건부) : 가나 내 모든 정부보건시설의 활동을 관장하며, 전국에 200개 이상의 정부 병원과 보건기관을 관리
 - 민간보건기관 : 진단 및 검사센터 등
 - 의료용품 취급기업 : 수입상 및 유통기업 등

■ 효율적 마케팅 방법

- **(에이전트)**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유망기업과 에이전트 또는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방법
 - 관련 전문지식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한 에이전트 물색이 중요
- **(전략)**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정하고, 경쟁국 제품에 대응
 -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의료기기 선진국들은 높은 품질을 토대로, 중국, 인도 등은 가격경쟁력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적절히 맞추는 전략 필요

7 탄자니아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SSA 지역에서 인구 성장·기대 수명 증가·도시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
 - 탄자니아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8,300만 달러 수준이며, SSA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적 증가
 - * 탄자니아 도시 인구(%): 2000(22.3) → 2016(32.3)
 - 인구 성장률, 기대 수명 증가도 SSA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여 탄자니아 의료기기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음
 - * 탄자니아 인구(백만명): 2000(34.4) → 2016(55.63), 63% 증가
 - * 탄자니아 기대 수명(세): 2000(50.5) → 2015(65.5), 30% 증가
 - 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약 8,215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는 의료시설 지속 확대 추진 중
 - 의료서비스 관련 지출 규모는 2016년 25.3억 달러였고, 이 중 53%가 민간영역에서 발생
 - * 2017년은 지출은 11.3% 증가한 2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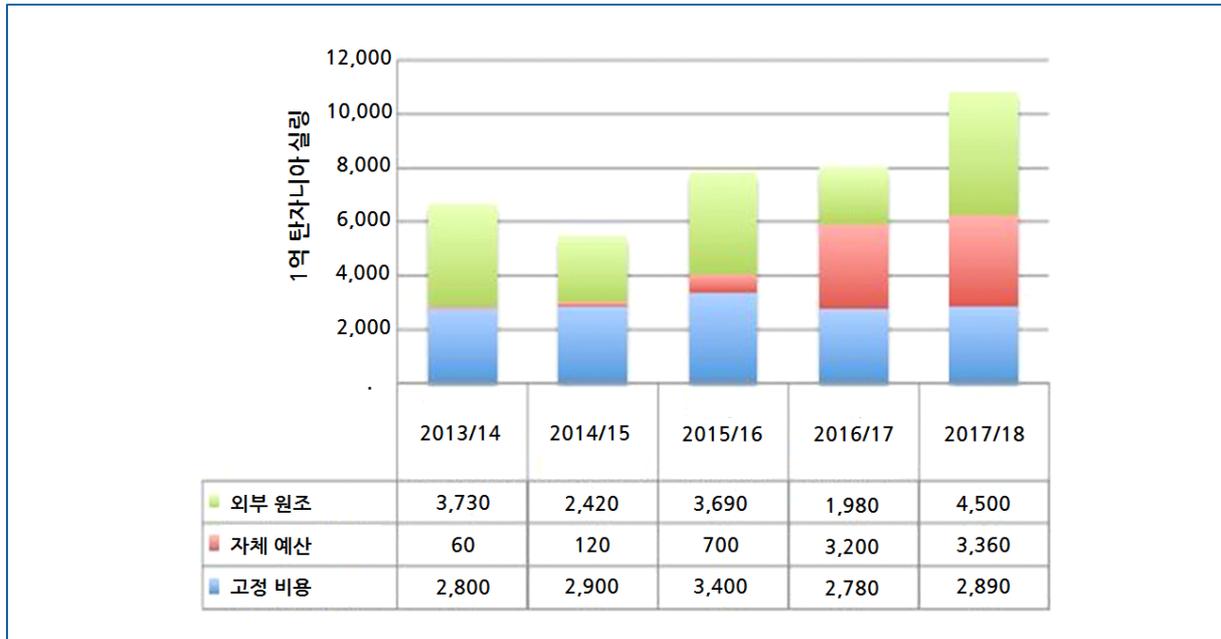
〈탄자니아 의료비 지출 현황〉

분류/연도	2014	2015	2016	2017f*
의료비 지출 (억 달러)	26.7	24.4	25.3	27.3
1인당 의료비 지출(달러)	51.0	45.2	45.6	47.7
GDP 대비 의료비 지출(%)	5.56	5.46	5.50	5.65

* 자료원 : 탄자니아 통계청

- (시장특징) 진단기기 수요가 높고, 국가 의료·보건 예산 증가 추세
 -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제조기술 부족 및 산업 미발달로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이에 전량 수입에 의존
 - 예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대에 따라 진단기기 수요 증가
 - 탄자니아 보건부(MoHCDGE)는 의료·보건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2017/2018년의 경우, 해외 원조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작년 회계연도 대비 전체 예산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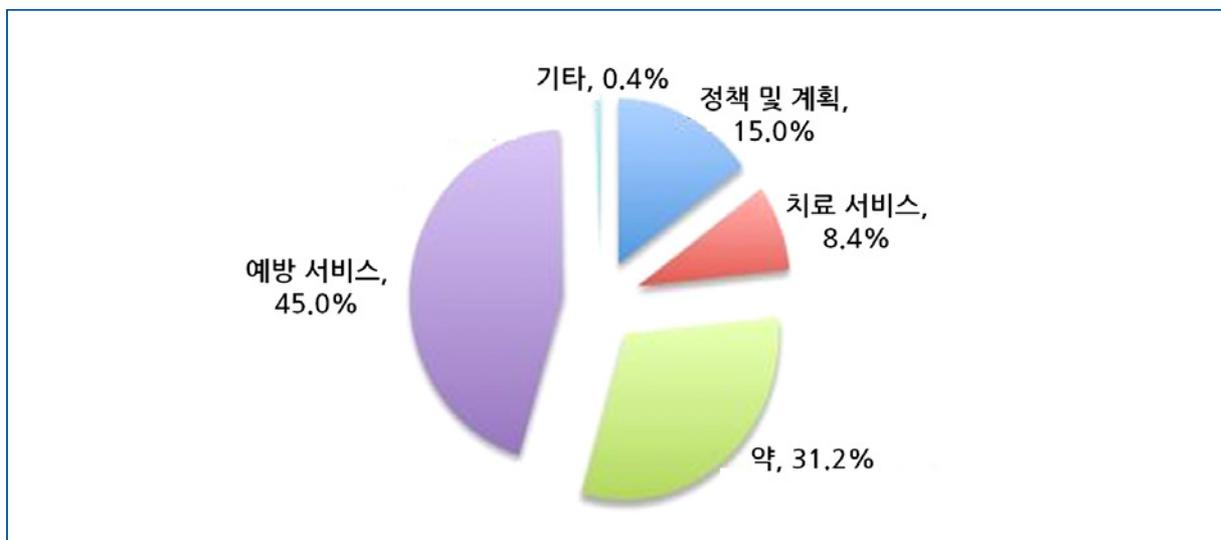
〈탄자니아 보건 분야 예산, 2013년~2017년〉



* 자료원 : 탄자니아 보건부

- 정부는 5개년 단위의 보건분야전략계획(Health Sector Strategic Plan, HSSP)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HSSP IV를 진행 중
- 예방분야에 2017/2018년 예산의 45% 배정, 질병치료에 앞서 예방 및 진단분야에 정책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의료분야 항목별 예산 비율 2017/2018년〉



* 자료원 : 탄자니아 보건부

- 의료서비스 지출 규모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0.8%로 증가하여 2021년 34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근로소득자 대상 의료보험 의무가입제의 도입이 관련 시장의 성장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World Bank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20%가 의료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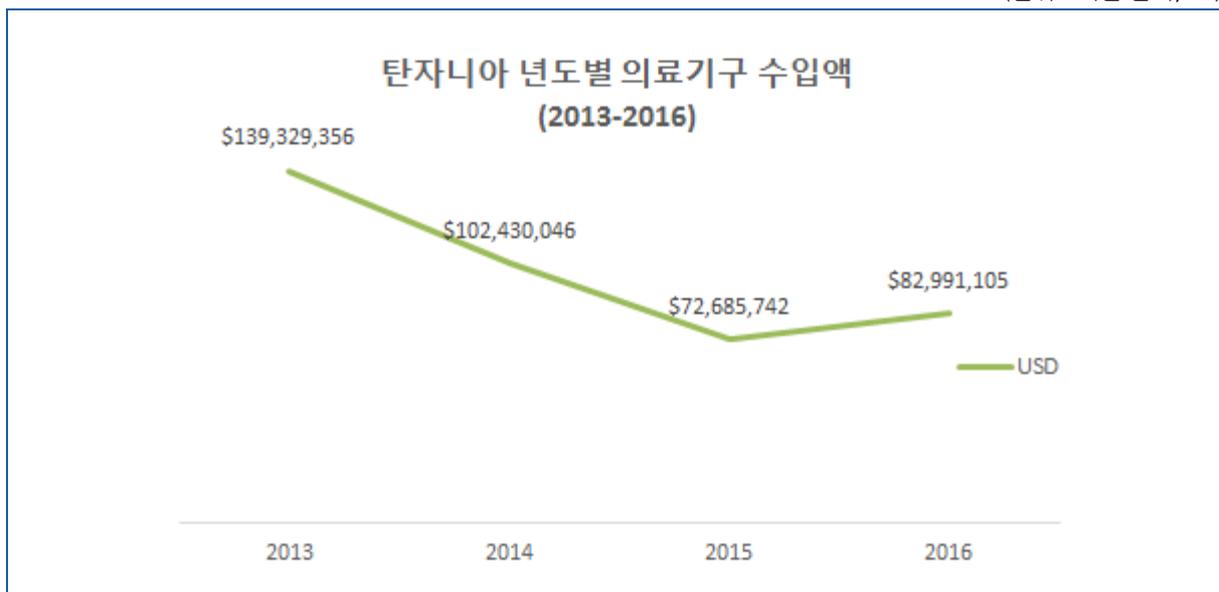
■ (수입 시장 동향) 한국, 2016년 탄자니아 최대 수입국

○ 수입시장 및 경쟁 동향

-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2013-15년 47% 감소했으나 2016년에 증가로 선회
- 주 수입국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순, 특히 2016년 對한국 수입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중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 주요 수입품목 : 내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기기(내시경), 엑스레이 기기(컴퓨터 단층촬영기), 물리화학용 실험기구, 카테터, 주사기 등

〈탄자니아 연도별 의료기기 수입액, 2013-2016〉

(단위 : 백만 달러, %)



* 자료원 : 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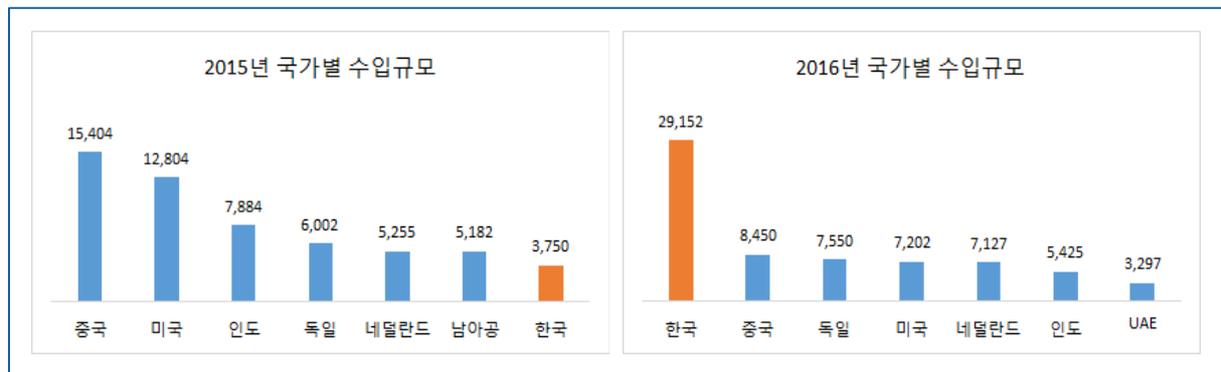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년		2016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내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기기	9018	44,870	-37	56,527	26
2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사용 기기	9022	15,686	111	11,471	-27
3	의료용품	3006	11,147	-36	9,414	-16
4	탈지면, 거즈, 붕대	3005	3,719	-44	2,618	-30
5	정형외과용의 기기	9021	1,496	23	1,470	-2
총계			72,686		82,991	14.2

* 자료원 : ITC

〈2015~2016년도 탄자니아 의료기기 국가별 수입규모〉



* 자료원 : ITC

■ 한국 對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EDCF의 무힘빌리 외과대학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에 2,915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도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

〈무힘빌리 외과대학병원 건설 프로젝트〉

-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7,650만을 지원한 탄자니아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 병원 건축 및 의료기자재 공급 등에 ECDF 차관 지원
 - 2009년 건설 착수, 2017년 11월 완공
- (진출 기업) 2011년 7월부터 우리 기업*이 병원 설계·시공, 의료기자재 공급 등 병원 건립 사업 전반을 수행
 - 병원 건축 : (설계·감리) 범건축, (시공) 코오롱 글로벌,
 - 의료기자재 등 공급 : (병원운영 컨설팅) 메디라인메디컬, (공급) 삼성물산

〈무힘빌리 병원 주요시설 사진〉



* 자료원 : 기획재정부

〈한국의 對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탄자니아	3,750	-6.3	29,152	677.4

* 자료원 : ITC

○ (품목별) 내시경 의료기기 수출 크게 증가

- 내시경 관련 부속품, 초음파영상진단기 및 부분품 수출 크게 증가
- 위내시경 등은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의 96% 차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내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기기	9018	3,371	4.0	28,164	735.5
2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사용 기기	9022	294	673.7	889	202.4

* 자료원 : ITC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HS CODE 9018	
주요 제품	자가검진 진단기기
제품 특성	그밖의 기타,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용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Borosil(인도) - 실험실 장비
	Liofilchem(이탈리아) - 임상 미생물학 실습 장비
	CTK Biotech(미국) - 진단 기기
HS CODE 9022	
주요 제품	엑스선 진단기, 모바일 엑스선 장비, C-Arm(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유방 촬영술, CT(컴퓨터 단층촬영), 심혈관 엑스선 장비
제품 특성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 · 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Philips(남아공) - 영상 기기
	Siemens(독일) - 모바일 엑스선, PC 방사선 장비, C-Arm(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중소기업 진출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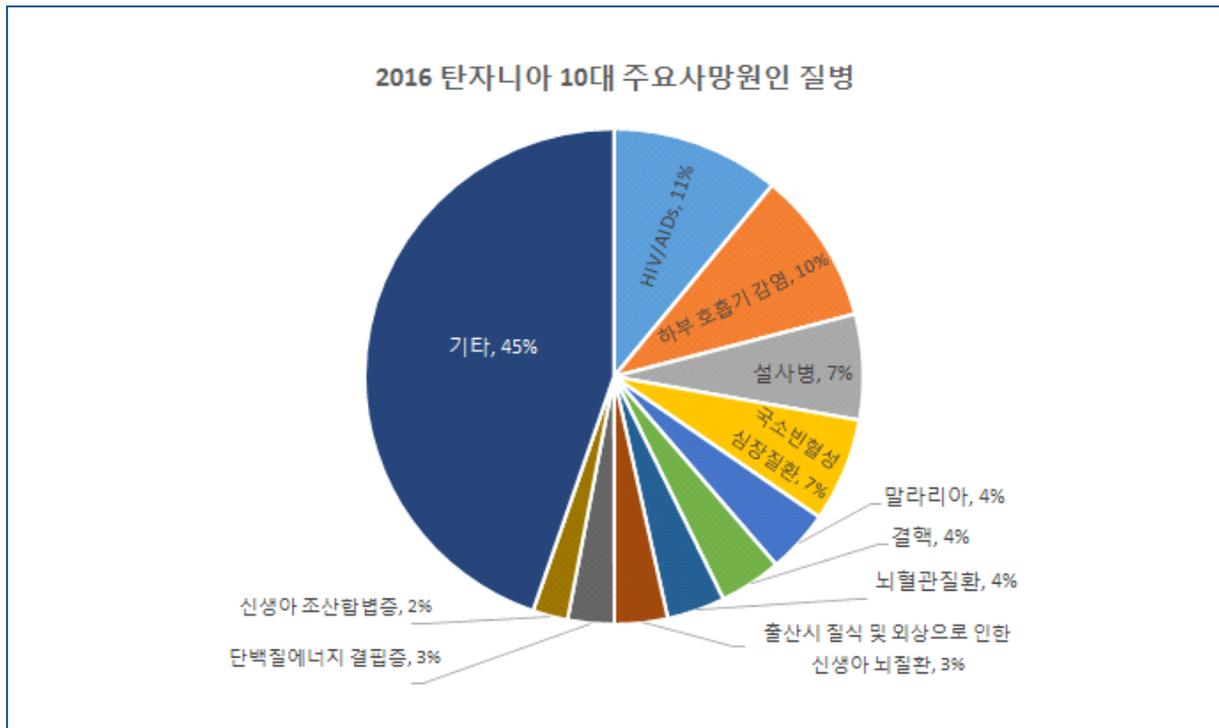
- 기업명 : 메디칼스탠다드(2000년 설립)
- 수출품목/규모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300만 달러
- 수입처 : 무힘빌리 종합병원
- EDCF 프로젝트(무힘빌리 종합병원 건설 및 의료장비 공급)를 탄자니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 공략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현지바이어	수입제품	취급항목
Bahari Pharmacy Ltd (1995년 설립)	- 실험실진단키트 - 의약기기 - Acrason Cream 10G - Amol - G Cream 10G	HS CODE 901890 그밖의 기기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 의용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 기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 한국, 덴마크, 중국, 케냐, 인도, 요르단 • 한국제품 장점 : 다소 고가이나 우수한 품질로 최종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음 • 개선점 : 한국기업은 가격협상이 경직되어 있으며, 국내 의약품 시장이나 소비자의 반응에는 다소 무관심하고 수입업자(도매상)와의 거래에 더 치중하는 편. 유연한 가격협상과 국내 시장 동향이나 소비자 피드백에 반응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진입 필요 • 유망제품 : 일반의약품 		
IMMUNOLABS MEDICAL SUPPLIES (2005년 설립)	- 실험실장비 - 임상미생물실험장비 - 진단장비	HS CODE 901890 - 치과용 · 수 의 용 기 기 [신티 그 래 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기타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 한국, 인도, 이탈리아, 미국 • 한국제품 장점 : 품질이 타국가 제품보다 우수 • 개선점 : 탄자니아 시장가격에 비해 제품 가격이 고가인 편 • 유망제품 : 진단키트, 실험실 장비 		
LIFELINE PHARMACY LTD (2007년 설립)	- Stool Blood Test	HS CODE 901890 그밖의 기기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 의용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 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 기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 한국 • 한국제품의 장점 : 좋은 품질 • 유망제품 : 혈액테스트기(HSK 901839) 		

■ 유망 품목

○ (주요 질병)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관련 의료기기 수요 높음



* 자료원 : GBD Comp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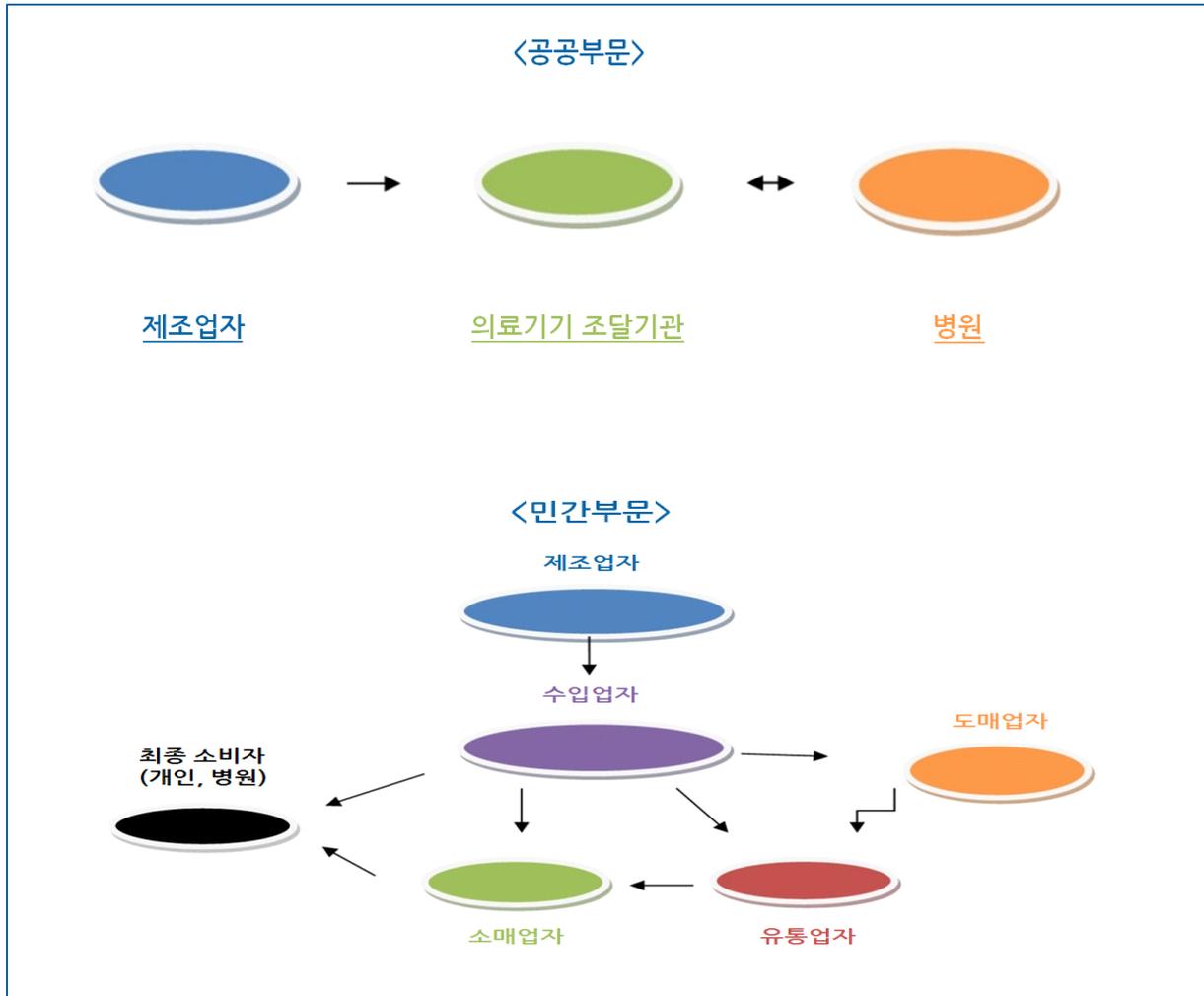
- 탄자니아 전체 국민의 4.7%(약 140만 명)가 에이즈 보균자
- 탄자니아의 3대 전염성 질병이자 주요 사망원인인 HIV/AIDS, 말라리아, 결핵 관련 진단 장비 보급이 확대될 전망
- 장기적으로는 상기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확대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암, 당뇨 등 비전염성 질병의 비율 증가 예상

■ 유통구조

○ (유통채널) MSD를 통한 조달이 보편적

- MSD(Medical Store Department)는 탄자니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기관으로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입의 90% 담당
- 그 외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공공/민간 병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에 직접 납품 가능

〈도식 :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HS코드	주요 제품	관세 및 기타 세율
3005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유사제품	0%
3006	살균된 외과용 캐터트, 봉합재, 지혈제, 진단용 시약, 치과용 시멘트 등	0% (단, 폐의료용품 (3006.92)은 25%)
9018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 기기(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뇌파계, 혈압측정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응용기기 등)	0%
9019	마사지용 기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기계요법용 기기 등	0%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0%
9021	의치, 인조관절, 보청기, 심장박동기, 스크루, 스테이플, 핀 등	0%
902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혈관조영 촬영장치, 골밀도 측정기, 감마사진장치, 엑스선 발생기 등	0%

* 자료원 : 탄자니아 관세청

■ 비관세 장벽

- **(제한사항)** 제조업체가 법적 허가를 취득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탄자니아 내 유통할 제품을 선 등록할 것을 의무화

■ 등록 및 인증 절차

인허가제도	처리기간
① TFDA 담당자에 의한 의료기기 검증 ② 등록신청서 승인 ③ 지원서 재검토(2회) ④ 등록 완료	① Class A: 90일 ② Class B, C, D: 180일

* 참고사항

- 당국의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 완료시점까지 절차 일시 중단
- 90일 내 답변 없을 경우 신청자가 등록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빠른 시간 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국에 빨리 연락 취해야 함

* Class 구분

- Class A: 낮은 위험도(비외과용) 예) 서지컬 리트랙터/ 설압자
- Class B: 중하급 위험도 예) 피하주사기/ 석션
- Class C: 중상급 위험도 예) 인공 호흡기/ 플레이트
- Class D: 높은 위험도 예) 심장 판막/ 삽입세동제거기

- **(수입신청)** 수입 허가 의료기기 수입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수입자, 수입업체, 신청자의 서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TFDA 본사 혹은 지역사무소 (Dares Salaam, Arusha, Mwanza, Mbeya, Mtwara, Dodoma)에 견적송장 원본과 함께 제출
- 승인 후 FOB 가격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하면 허가증 발부
- 수입허가는 6개월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함(분할 배송 시 3회)

- **(주의사항)** TFDA 사전 승인 필수, 아래 절차 준수

- 진단기기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TFDA 사전 승인 득해야 함
- 모든 의료기기의 수입은 TFDA에 의해 승인된 수입자를 통해야만 함
- 지정된 항구(Port of Entry)에서만 수입 가능(2015년 7월 기준)
- 등록 시 기재한 내용과 제품라벨 상 정보 동일해야 함
- 수입 당시 사용가능기한이 제품수명의 60% 이상 남아있어야 함

○ 필요 서류

Class A	Class B, C, D
- 신청서 (Annex I)	- 신청서 (Annex I)
- 허가 요구서 (Letter of Authorization)	- 허가 요구서 (Letter of Authorization)
- 사용설명서, 환자 주의사항 책자 (Patient Information Leaflet)	- 기기 세부사항
- 카탈로그를 포함한 홍보자료 (Promotional Material)	- 기술문서 요약 (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 라벨링 정보 / 제품표기사항 (Labeling Information)	- 라벨링 정보 / 제품표기사항 (Labeling Information)
- 소독/살균 방법 및 사용처	- 필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nnex II) (Essential Requirements Checklist)
- 품질인증서 (Proof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예) ISO 13485 Certificate	- 품질인증서 (Proof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예) ISO 13485 Certificate

○ 수수료 : “Fees and Charges Regulations” 참고, 신청 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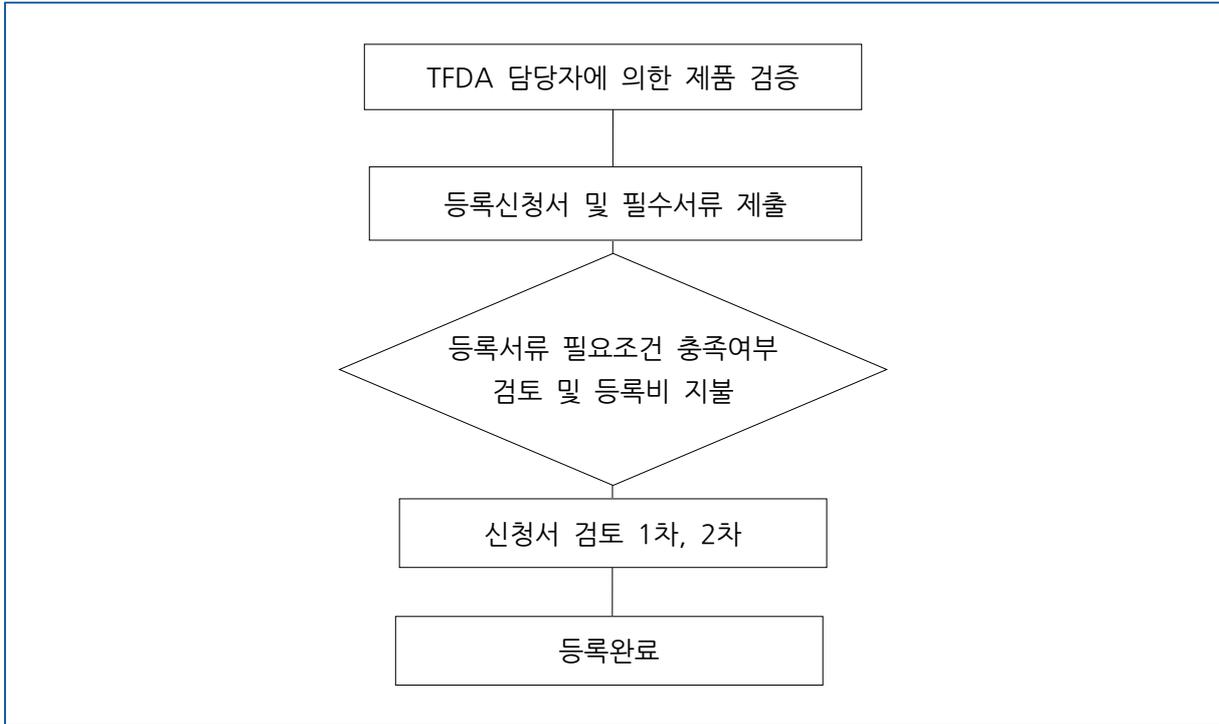
(단위 : 달러)

항목	수입제품	현지제품
Class A	500	-
Class B	2,500	75
Class C, D	2,500	250
Variation - major	300	75
Variation - minor	150	-
Exportation Certificate	-	25
Duplicate Certificate	100	30

○ (에이전트) 에이전트 자격 및 책임은 아래와 같음

- (자격): 탄자니아 거주자(Resident)로, TFDA에 의해 의료기기 딜러로 등록된 사람
- (책임) : 제품 리콜,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 발생 시 등록 철회, 주의사항 추가한 라벨 재등록 등

〈도식 : 등록 및 인허가 절차〉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주재국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인구성장률과 평균수명 증가, 도시화 확대에 따른 의료시장 성장 기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SSA) 중 의료분야 지출 안정적 - 질병부담의 증가로 의료시장 향후 몇 년간 확대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프리카 의약품규제화합(EAC-MRH)으로 의료 제품 등록절차 정립 기대 - 증가하는 질병부담 대비 불충분한 의료 시설 - 근로소득자 대상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으로 의료시장의 확대 기대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원자재 의존 - 조달, 유통 시스템 및 재정 불안정 - 공공의료 및 의료진 부족 - 의료시설 접근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제품 무역불균형과 국가재정 부담 - 관료주의와 더딘 행정 업무로 인한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저해

- **(ODA)** EDCF 등의 ODA 사업 적극 활용 필요
 - M사, S사 등은 EDCF의 ODA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시장 진출, 우리 의료기자재의 글로벌 품질·가격 경쟁력을 아프리카에 홍보

- **(진출방안)**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진단장비 시장 확대 전망
 - 탄자니아 정부의 보건예산 중 45%는 예방 및 진단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 중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진단장비에 예산이 집중
 -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높아 자가진단이 일반적인 이유로 질병 진단키트 분야 유망

- **(유의사항)** 경쟁력 있는 가격 및 A/S 정책 필수
 - 탄자니아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하므로 중국·인도 경쟁사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가격정책 제시 필요
 - * 대부분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인지
 - * 가격경쟁이 불가할 경우 브랜드 강화, 워크샵·세미나 등으로 높은 품질을 강조할 필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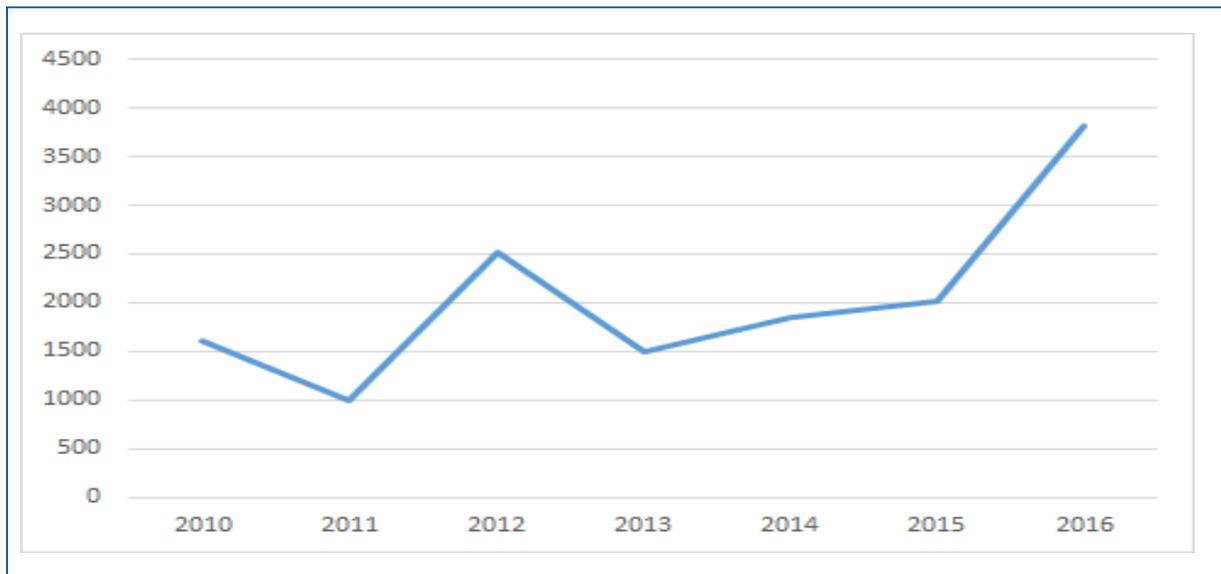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절대적 규모는 작은 편이나 2011~2016년 4배 성장
 - 코트디부아르 내 의료기기 자체 생산 전무
 - 수입 시장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료용 소모품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과 동일
 - 2011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0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7년 약 3,800만 달러 규모로 6년 만에 약 4배 성장

〈코트디부아르 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만 달러)



* 자료원 : ITC

- 2016년 기준 주요 수입 품목 : 내과용 진단기기(내시경, 임신진단기,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등) 36%, 엑스선기기 29%, 영상진단기 10% 등

〈의료기기 별 시장규모 및 점유율(201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

HS CODE	품목	규모	점유율
9018.9	내과용 진단기기	15,600	36
9022.1	엑스선 기기(시험용 및 내과, 외과용 기기 등)	12,628	29
9018.1	영상진단기(초음파, 자기공명 촬영기기)	4,040	10
9018.3	의료용소모품(주사기, 수혈 및 수액세트 등)	2,943	7
3005.9	의료용소모품(탈지면, 거즈, 붕대 등)	1,998	5
9019.2	치료용 호흡기기	1,56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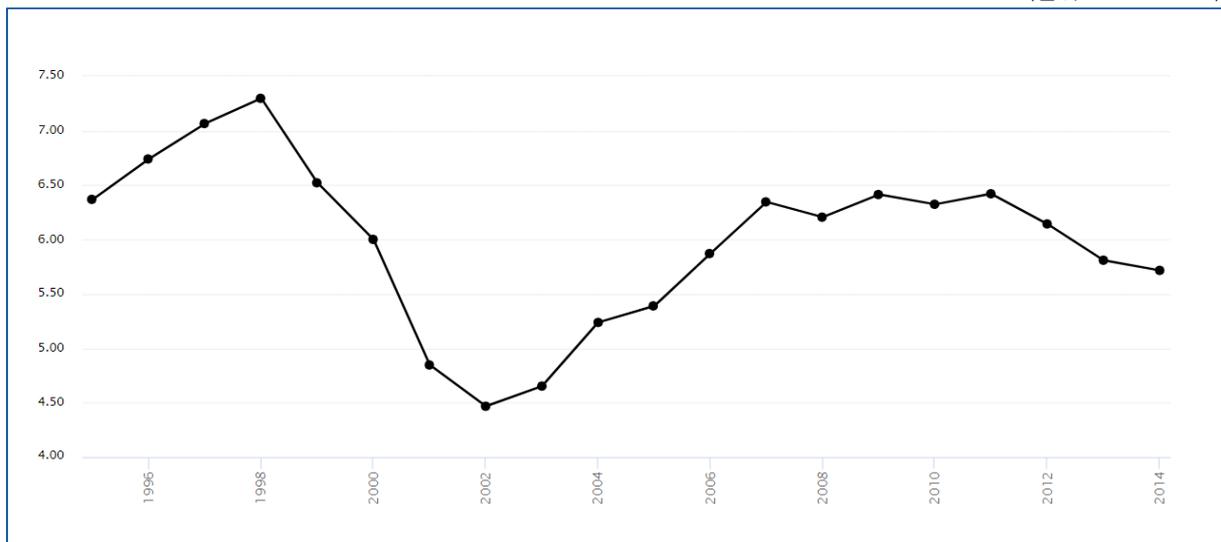
* 자료원 : ITC

○ (시장특징) 정부 보건예산 확대 의지, 중국제품에서 수입 다각화 추진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건 분야에 1995~2014년 평균적으로 GDP의 약 6% 지출
- 최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은 지속 증가 전망
-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없는 상황
- 제한된 예산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제품을 다량으로 수입 중이나 잦은 고장과 낮은 품질로 인해 만족도 낮음
- 중국제품 외의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다각화 추진 중

〈보건비 지출액 추이〉

(단위 :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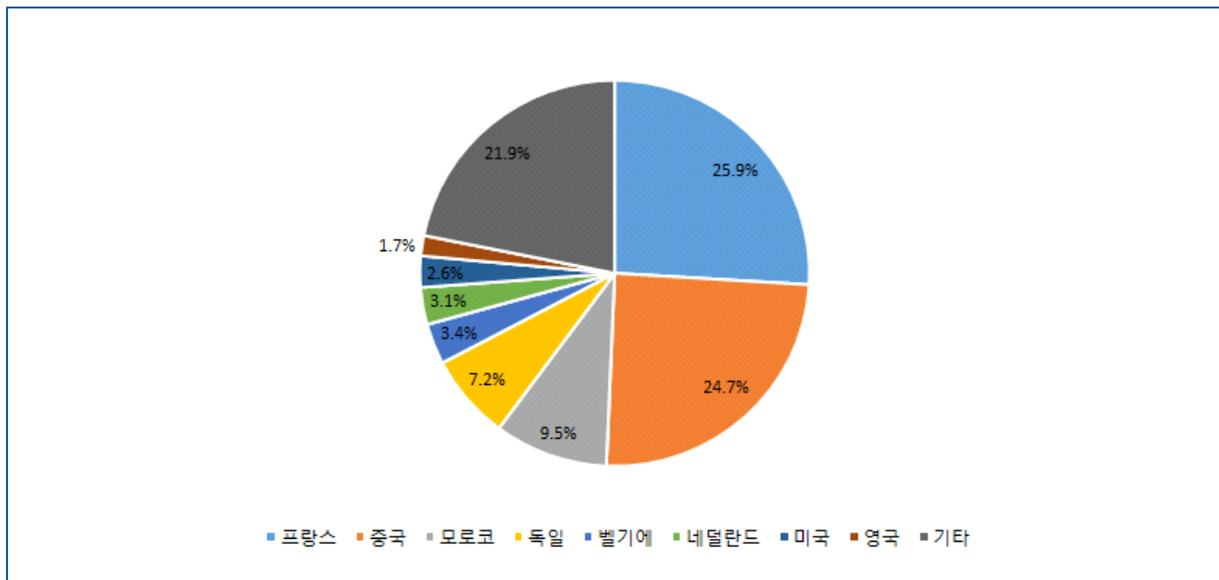
* 자료원 : 세계은행

- 지난 2017년 8월, 정부 중장기(2017~2025년) 보건 분야 투자증대 계획 발표
 * 3년간 보건인프라 및 장비 10억 달러 투자 △ 암, 방사선, 혈액투석 센터 건립(암센터의 경우 한국 원조 수혜 계획)
 △ 전문의 교육 강화 △ 의약품 공급 증가를 위한 공공약국(PSP)재정수입 증대 △ 무상진료에 할애된 예산 확충
- 국립병원 재정비 3개년 계획 도입, 2018~2020년 총 5,770억 세파(약 10억 7,500만 달러)를 투입해 8개 국립병원을 지원할 방침
-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ADRA)로부터 10억 세파프랑(약 187만 달러)을 지원받아 전국 14개 병원 내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

■ 수입 시장 동향

- (수입시장) 고가제품은 프랑스, 저가제품은 중국 점유율이 높음
 -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 프랑스, 모로코, 독일
 - 중국산 제품의 경우, 폭발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렴한 제품을 다량 수입하는 추세
 - 2016년 기준 : 프랑스(25.9%), 중국(24.7%), 모로코(9.5%), 독일(7.2%)

〈국가별 의료기기 수출 비중(2016년)〉



* 자료원 : ITC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내과,외과,치과,수의용 기기	9018	11,841	-10.4	20,734	75.1
2	기타기기(내과용 진단기, 호흡기 등)	9019	363	-34.4	1,664	358.4
3	호흡용기기 및 가스마스크	9020	648	-47.7	952	46.9
4	정형외과용 기기	9021	745	-1.3	1,115	49.7
5	엑스,알파,베타,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2	3,844	18.2	13,216	243.8
총계			17,441	-8.3	37,681	116

* 자료원 : ITC

■ 한국 對코트디부아르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한국 수출 비중은 매우 낮은 편
 - 한국의 의료기기 비중은 1% 미만이며 매우 미미한 편

〈한국의 대주재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대한민국	353	2,106.3	103	-70.8	260	152.4

* 자료원 : ITC

○ 품목별 수출동향

〈품목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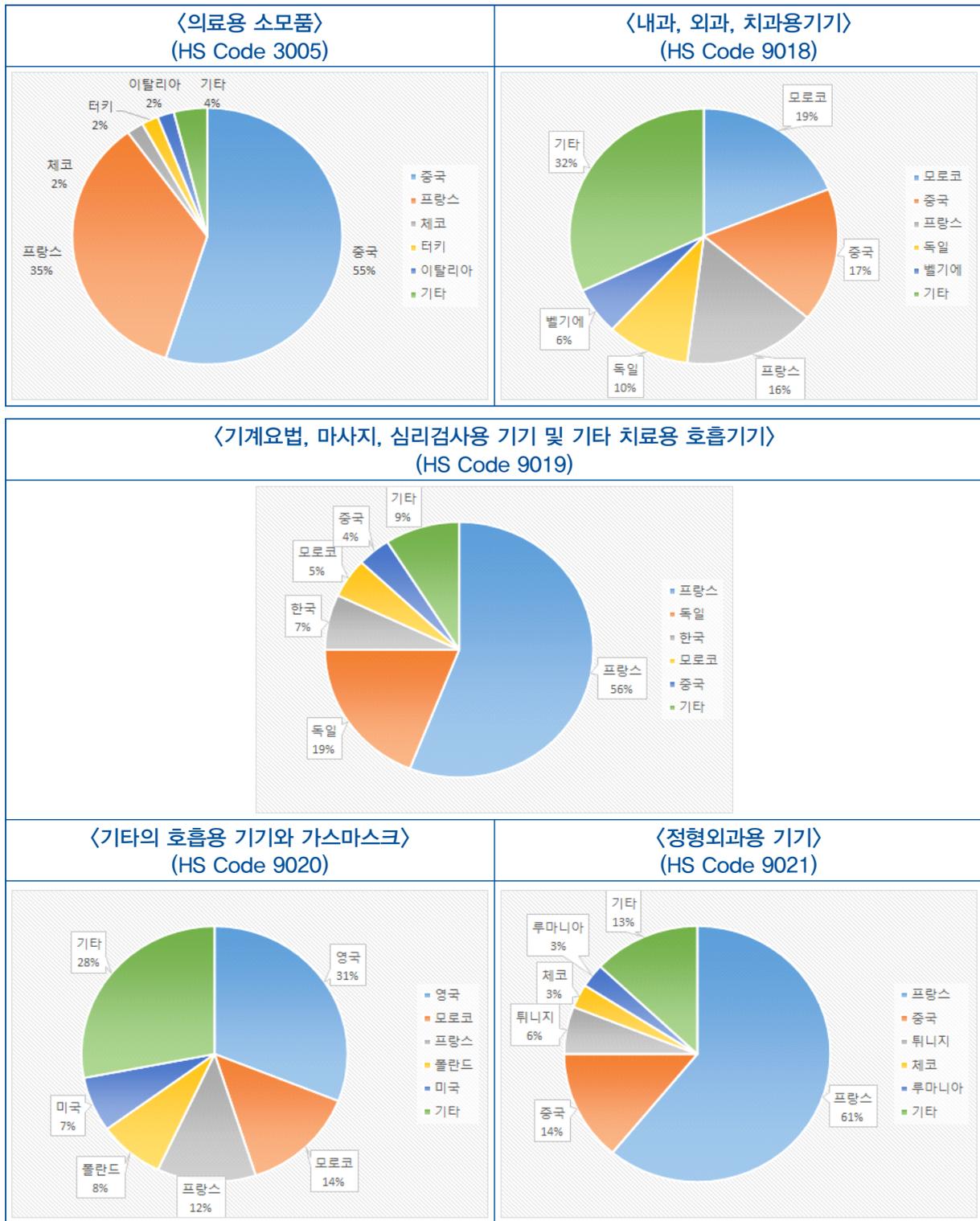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코드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기계용법용, 마사지용, 심리학적검사 기기	9019	0	-	126	-
2	내·외·치과·수의과용 기기	9018	31	181.8	79	154.8
3	방사선 기기	9022	68	209.1	45	-33.8

* 자료원 : ITC

■ 의료기기 주요품목 시장 점유율

○ 의료기기 주요품목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2016년)



* 자료원 : ITC

■ 주요 항목별 경쟁기업 현황

HS CODE 9018	
주요 제품	내과용 진단기기(혈압측정기, 청진기 등)
제품 특성	사용기간이 길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제품 선호
경쟁 기업 및 주요 제품 현황	Bosch : 대부분의 청진기는 Bosch사의 제품을 주로 사용
	Omron : 가정용 혈압계 및 체온계 큰 인기, 온라인 구매 가능
	Gustala : 자동 디지털 혈압계 판매, 온라인 구매 가능

* 자료원 :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비장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진출 성공 사례

스피덴트(SPIDENT) : 현지기업 NOGBO Dentaire에서 한국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스피덴트(SPIDENT)사와 계약을 맺고 치과용 기기 수입을 진행 중. 본 제품을 사용한 바이어는 유럽이나 중국산 제품 구입을 중단하고, 향후 한국산 제품만 구입하겠다는 의사 밝힘

○ 현지 바이어 및 병원 관계자 인터뷰

Kouakou Nadia(의료기기 프로모터) : 한국기업은 보통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하여 판매 전략 수립. 이러한 판매 방식은 아프리카 시장과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 개발 필요

M Lorgn(치과용 의료기기 판매담당) : 한국제품은 품질은 매우 우수하나 다소 고가라는 인식이 있으며, 잘 알려진 브랜드가 없음.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후 시장에 진입한다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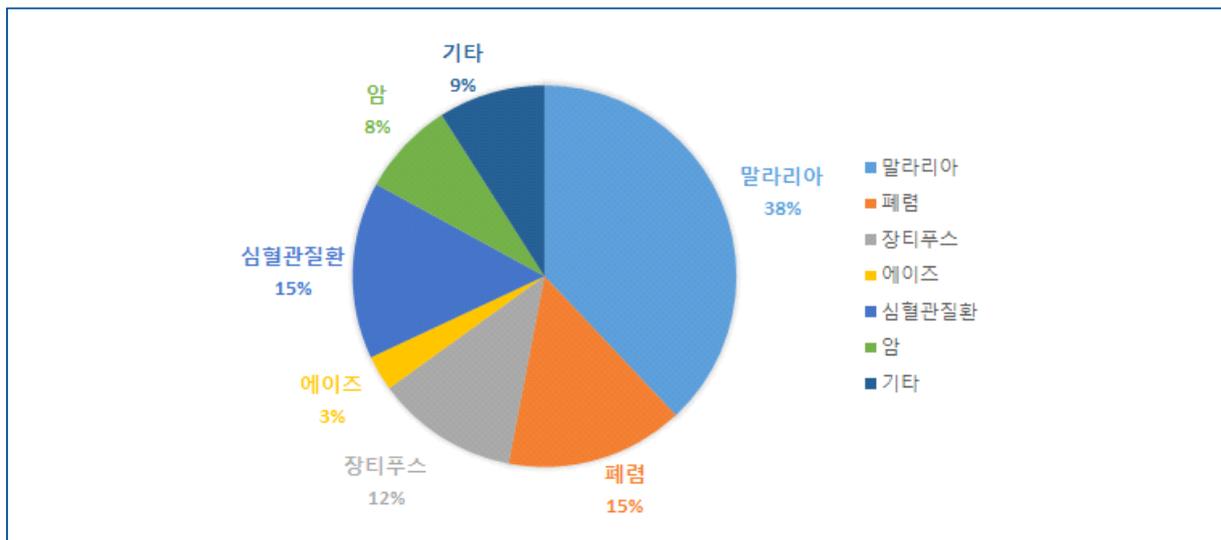
M Coulibaly(의료기기 판매담당) :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또한 고장도 잘 나지 않아 한 번 구입 후 오래 사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음.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수리해서 쓰려는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유망 품목

- (의료용 소모품) 일회용품 소모품은 지속적 수요 발생
 - 일회용 의료용 소모품의 수요는 지속 발생하지만, 자체 생산은 전무한 상태
 - 위생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수입 증가 예상

- (진단 키트) 사망 최대 요인인 말라리아 진단 키트 수요 높음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인 중 1위는 말라리아(38%)로, 말라리아 진단 키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수요 지속 증가 전망

〈코트디부아르 질병에 의한 사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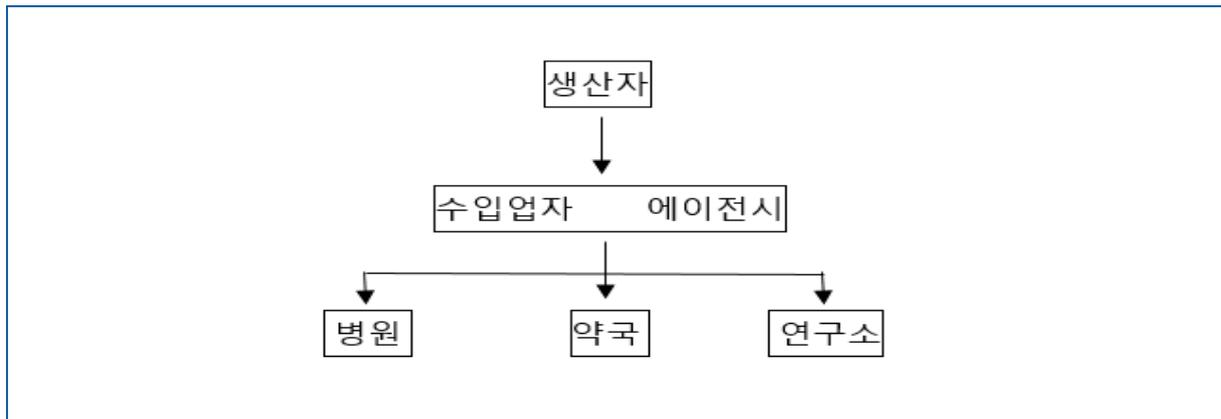


* 자료원 : UNICEF, WHO

■ 유통구조

○ (유통채널) 구조 : 생산자 → 수입업자/에이전시 → 병원/약국/연구소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HS코드	주요 제품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3005	의료용 소모품(탈지면, 거즈, 붕대 등)	2.5%	18%
3006	의료용품(봉합재제, 컷거트 등)	2.5%	18%
9018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7.5%	18%
9019	기타기기(내과용 진단기, 호흡기 등)	7.5%	18%
902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7.5%	18%
9021	정형외과용 기기	2.5%	18%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7.5%	18%

■ 비관세 장벽

- 코트디부아르 내 자국 산업 보호 위한 비관세 장벽 없음

■ 등록 및 인증 절차

- 코트디부아르 내 특별한 의료기기 등록 및 인증 절차는 없음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등록 및 인증절차 없이도 의료기기 판매 가능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주재국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기기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부문 투자 확충 - 정부의 보건부문 지출 확대 - 자체 의료기기 생산 전무 - 보건 인프라 확충과 기존 의료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중국제품 시장 장악 - 한 번 구매한 기기(소모품 제외) 교체 가능성 희박 - 낮은 의료비 지출 - 의료 분야 전문의/의료진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높은 투자 리스크 - 프랑스 및 중국 기업들의 시장 장악 - 2017년에 발생한 군인소요, 공무원/학생 시위 등 정정불안으로 인한 경기 악화 가능성 증가

- **(에이전트)**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수입 판매 경험이 풍부한 바이어(에이전트)를 통한 진출이 성패를 가름

- **(가격정책)**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수한 품질 제공보다 더 중요
 - 제품의 질 역시 중요하나, 가격에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므로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저렴하나 품질이 낮은 중국 상품에서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 수입을 모색 중으로 우리기업에 기회 발생

- **(품목)** 교체주기가 짧은 의료용 소모품 적극 공략
 - 자금 부족으로 의료기기의 교체 시기가 지나도 수리 후 지속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 관련 부품 및 소모품 공략 유망
 - 일회용 수술장갑·주사기 등의 의료용 소모품이 유망
 - 말라리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임으로 저렴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9

모잠비크

■ 시장 개요 및 특징

- (시장규모) 3,600만 달러 소규모 시장, 성장률이 더디고 잠재력이 낮은 편
 - 2016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 3,600만 달러, 2011년 대비 23.6% 감소
 - 모잠비크의 1인당 GDP는 480달러에 불과,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 유지, 동 기간1인 GDP가 2-3배 증가한 기타 SSA 국가와 대조
 - * '06-'16년 1인당 GDP 증가율(%): 에디오피아(200), 나이지리아(150), 수단(135)
 - 모잠비크의 경제 규모는 나이지리아의 2.7%, 남아공의 3.7% 수준으로 잠재력이 높은 편은 아님
 - * GDP(억 달러) : 나이지리아(4,051), 남아공(2,948), 모잠비크(110)
 - 2016년 기준, 모잠비크 내 병원 수 총 1,597개
 - 모잠비크 내 병원은 크기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 개인병원 수준의 소규모 병원 『Health Center』 비중이 압도적
 - * 의료기기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병원 수를 기준으로 작성

〈모잠비크 내 병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병원	14	14	14
지방병원	48	50	52
보건소	1,277	1,307	1,401
진료소	160	164	130
합계	1,499	1,535	1,597

* 자료원 : 모잠비크 통계청

- (시장특징) 국립병원들이 주요 의료기기 수요처
 - 모잠비크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
 - 모잠비크 내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키트, 혈액분석기, X-ray 기기, 혈액투석기, 주사기, 도뇨관 등
 - 주로 의료기기 수요처는 모잠비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병원
 - * 모잠비크 보건부 내 조달부서(CMAM, UGEA)에서 의료기기 구매하여 국립병원에 공급

○ **(정부정책)** 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수요 발생 가능성

- 2018년 기준, 정부가 편성한 보건 분야 예산 전년대비 48% 증가한 4.4억 달러(전체 정부예산의 8.6%)

〈보건분야 정부예산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예산(천 달러)	356,716	300,100	443,333
증가율(%)	△39.0	△16.0	48.0

* 자료원 : 모잠비크 재무부

-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분야 육성정책도 동 계획에 포함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① 보건서비스 수혜자 확대, ② 의료서비스 질 개선, ③ 지역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④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 ⑤ 기관간 협력 확대, ⑥ 정책투명성 제고, ⑦ 의료시스템 강화
-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의료보험 제도는 없으나, 과거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국공립 병원 진료비는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
- 저렴한 병원 이용료와 낮은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약 480달러)으로 인해 의료보험 제공 업체는 4개에 불과하는 등 매우 영세한 편
- 정부는 2019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없이 전액 보험 수혜자(공무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계획
- 정부의 ‘2018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3개 병원 설립 예정

■ **수입 시장 동향**

○ **(수입시장)** 민간시장보다 정부조달시장 비중이 높음

- 정부조달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들은 주로 공공조달 낙찰 후 제품 수입
- 2016년 기준, 수입액은 약 3,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8% 감소(『은닉부채¹⁾』 스캔들로 인한 모잠비크 정부의 전반적인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현상)

1) 2013~14년 동안 의회와 IMF의 승인없이 차입한 20억 달러 규모의 숨겨진 부채가 '16.4월에 드러남에 따라, IMF 등 국제사회는 모잠비크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잠비크 경제도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주요 수입 품목은 외과 및 치과용 기기(HS코드 9018)로, 2016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약 64%를 차지
- 단일 품목으로는 X-ray의 수입액이 약 530만 달러로 가장 많은 편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외과/치과용 기기	9018	24,362	26.8	23,378	△4.0
2	X-Ray 기기	9022	5,267	△5.2	5,378	2.1
3	탈지면, 거즈, 붕대 등	3005	6,986	54.5	3,000	△57.1
4	의료용품	3006	3,343	44.5	2,114	△36.8
5	마사지용 기기	9019	655	△11.8	1,016	55.1
6	정형외과용 기기	9021	1,847	△9.3	941	△49.1
7	기타 호흡용기기	9020	821	△41.3	637	△22.4
총계			43,281	21.0	36,464	△15.8

* 자료원 : ITC

- 주요 수입국 : 남아공,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과 미국
- 저가제품 시장에서는 중국 및 인도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

■ 한국의 對모잠비크 의료기기 수출 동향

○ (수출동향) 한국, 모잠비크의 제1위 의료기기 수입국

- 2016년 한국의 對모잠비크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7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5% 증가, 제1위 의료기기 수입국 등극

* 2014년 대비 360배 증가

* EDCF 지원 ODA 프로젝트(켈리만 중앙병원)로 인해 우리기업 수출 급증

※ 우리기업 켈리만 중앙병원 프로젝트 참여

- 우리 정부는 지난 유상원조 사업(EDCF)으로 2008년 모잠비크 중동부 켈리만 (Quelimane) 지역의 중앙병원 건설을 지원(승인금액 : 4억 5,000만 달러)
- 2016년 600병상 규모로 완공되었고, 모잠비크 내 최대 규모의 현대식 병원
- (우리기업 납품) Y社 : 진단기기 등 1,600만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 납품
M社 :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 공급

〈한국의 對모잠비크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모잠비크	21	-22.2	866	4,023.8	7,578	775.1

* 자료원 : ITC

- (품목별) 2015~2016년 켈리만 병원 납품 내시경 관련 의료기기 급증, 2016년 전년대비 709% 증가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 4단위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내·외·치과·기기	9018	866	9522.2	7,005	708.9
2	기계요법용 기기	9019	0	-	572	-

* 자료원 : ITC

■ 의료기기 전반 기업별 시장 점유율

○ 주요 브랜드

- 독일 Siemens, 네덜란드 Philips, 미국 Medtronic 등

*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관련통계 부재로 파악 불가

- (국별 수입시장 점유율) 한국이 켈리만 병원 프로젝트로 인해 2016년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남아공·중국·포르투갈 점유율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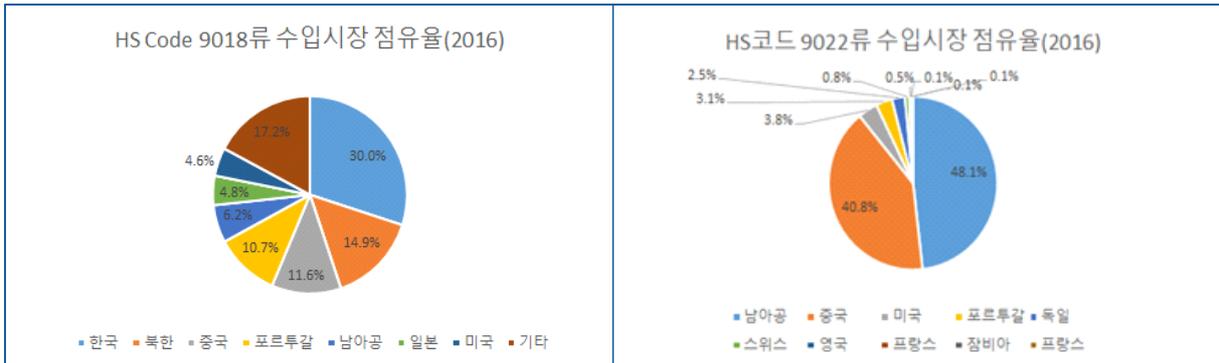
- 남아공은 지리적 인접성 등에 힘입어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인도는 의료용품 등 중저가 시장, 독일·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진단기기 등 고가제품 군에서 우세

- 2016년 기준, 모잠비크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과/치과용 기기(HS코드 9018)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기록

* (한국) 우리정부의 유상원조로 건설된 켈리만 중앙병원에 국산 의료기기 공급

** (북한) 모잠비크 내에 북한 보건대표부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있으나, 2016년에 일시적으로 수출 급증 : (2014년) 5만 9,000 달러 → (2015년) 6,000 달러 → (2016년) 약 350만 달러

- 2위 수입 품목은 X-ray는 남아공 및 중국이 시장을 거의 양분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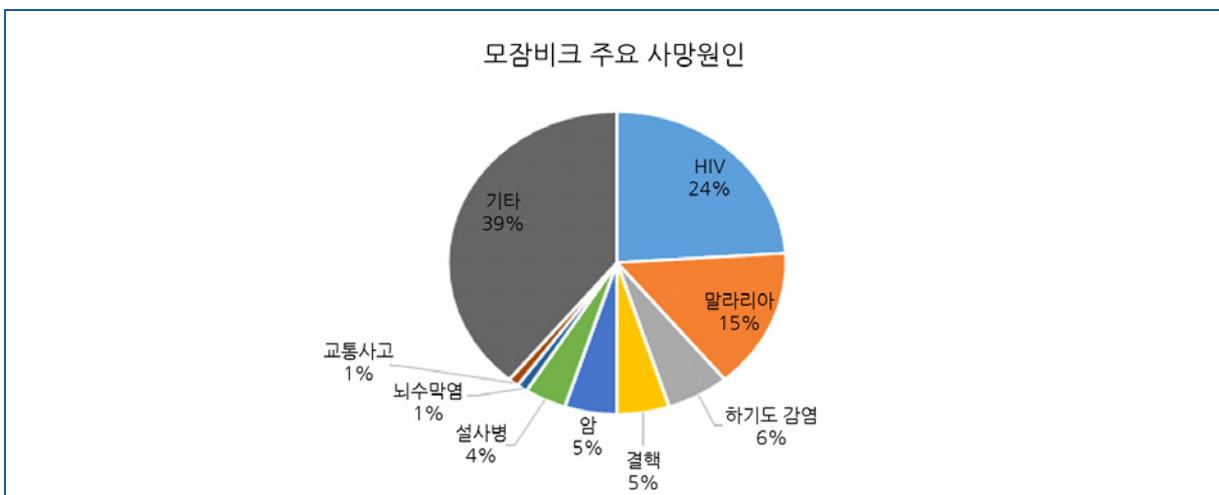
○ 진출 성공 사례

※ 우리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을 활용한 모잠비크 시장진출

- 우리정부가 지원한 모잠비크 중북부 켈리만 중앙병원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산 의료기기 납품
- (주요사례) Y社 : 진단기기 등 1,600만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 납품
- M社 :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 공급

■ 유망 품목

○ 주요 사망원인 : 에이즈 감염, 말라리아, 결핵 감염 등



* 자료원 : 모잠비크 보건부

■ 제품군

- 현재 주사기, 바늘, 도뇨관 등 의료용 소모품(HS코드 9018류) 수요 증가 추세
- 간편 혈액진단기, 디지털 X-ray, 혈액분석기, 유선조영촬영장치, 초음파 스캐너의 제품 수요도 높음

■ 유통구조

- (유통채널)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없으므로, 유통구조에서 수입 에이전트 등 바이어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
 - 의료기기 유통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입 에이전트를 통한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 다국적 기업의 유통채널 : 수입에이전트 등 중간 유통상을 통한 간접진출 방식 및 정부입찰을 통한 직접진출 방식

〈모잠비크 의료기기 유통채널〉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HS Code	주요 제품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901819	초음파 기기	5%	17%
902290	엑스레이 기기	5%	17%
902780	생물화학기기	5%	17%
901839	주사바늘, 카테터	5%	17%
901831	주사기	5%	17%

■ 비관세 장벽

- 의료기기 제조기반 전무, 비관세장벽 없음

■ 등록 및 인증 절차

-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별도의 등록 및 인증제도 운영하지 않음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주재국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Strengths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의료지원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료기기 제조기반 전무 - 국산제품의 높은 품질 수준
Weakness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한 시장 규모 - 의료기기 관련 기술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 글로벌 브랜드 제품에 대한 높은 충성도

- **(ODA)** 우리 정부의 ODA 사업(켈리만 병원 프로젝트)을 통해 국내 기업의 모잠비크 시장 진출 성공 사례 창출
 - 자금력이 강한 바이어를 찾기 사실상 어려워서 국내 ODA 사업과 맞물려 진출하는 사업이 성공 확률이 높음
 - * M사, 탄자니아·모잠비크 ODA 사업 동시 참여, PACS 기기 납품
- **(에이전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없어서 수입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며, 국내 중소기업은 현지 네트워크가 있는 수입 에이전트 없이 시장 진출 사실상 불가능
- **(잠재력)**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최빈국, 시장 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
 - 지난 10년간 1인당 GDP가 성장하지 못하고(1인당 GDP 480달러), 인구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등 잠재 성장 동력은 낮은 편
 - 국가경제 전체 규모가 110억 달러(나이지리아의 2.7%, 남아공의 3.7% 수준)에 불과, 시장 잠재력이 낮은 편

10

콩고민주공화국

■ 시장 개요

- (시장 특징)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시장 규모 · 잠재력 낮은 편
 - 콩고 시장 규모는 약 2,300만 달러이며 남아공의 2% 정도 수준
 - 아프리카 최빈국(1인당 GDP 420달러)이며,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1년 대비 5년간 30% 감소
 - 의료기기 생산 제조사 전무, 모든 의료기기 외국으로부터 수입
 - 산업 발전의 부재로 생산 공장 전무, 수입된 의료기기의 수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기 때문에 판매가격 인상 지속
 - 높은 수입 의존도(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미국, 아시아 등)
 - 의료기기 품질 저하로 인해 68개 대형병원, 340개 일반병원들은 2017년 8월부터 유니세프 자금으로 바이오 메디컬키트를 지원 받음

※ KOICA 원조 사례

- 말라리아 퇴치 사업
- 200만 달러 상당의 원조 기금을 마련하여 모기장, 살충제, 말라리아 검사 키트, 치료제 공급 프로그램과 의사, 간호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 시행(2010~2017년)

※ 유니세프 원조 사례

- 2014년 카사이 오리엔탈과 옥시덴탈 지역 소재 12개 병원에 의료기기 기증
- 원조 물품 : 심장 박동수 체크 기기, 수술용 침대, 초음파 장비, 입원실 용 침대, 입원실 내부 장비, 출산용 침대, 현미경, 의료용 냉장고, 엑스레이 장비 및 부속 장비, 진료실 용 테이블 등

■ 수입 시장 동향

- (가격정책 중요) 고가 신품 외국산 의료기기보다 중고 의료기기 수입이 활성화, 저가 가격정책이 성공할 가능성 높음
 - 주요 수입품목 : 초음파장비, 소독장비, 살균기, 혈체어, 체온계, 안과 장비, 산부인과 장비, 주사기, 외과용 수술 도구 등
 -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

〈의료장비 분야 주요 외국 수출업체〉

기업명	주요 제품
MICHELIS (벨기에)	산소호흡기, 마취장비, 소독기, 소아과용 의료 장비, 초음파 장비, 각종 램프, 각종 검진 키트, 기타 의료 장비
PHILIPS HEALTHCARE (프랑스)	산소호흡기, 심장 관련 진단기, 기타 장비
Siemens HEALTHCARE (프랑스)	소변 검사장비, 초음파 장비, 엑스레이, 혈액 검사 장비
Johnson & Johnson, Medtronic (미국)	정형외과 장비, 심혈관 검사 장비
CYPRESS DIAGNOSTICS (벨기에)	혈액검사 장비, 현미경
Boditech (한국)	복합 진단 검사 장비 i-Chroma II

〈콩고민주공화국 수입 의료기기 통계〉

(단위 : 천 달러)

분류명칭	HS코드	2014	2015	2016
내과용 기기	9018	17,872	14,022	1,4196
마사지 기기	9019	1,511	384	597
호흡용 기기	9020	804	1,111	1,384
정형외과 기기	9021	466	384	141
방사선 기기	9022	4,629	2,984	1,342
탈지면, 거즈	3005	246,450	393,351	346 494

* 자료원 : ITC

〈현지 주요 의료기기 수입기업 리스트〉

기업명	주요 제품	비고
SANTE MEDIC-KIN	의료 장비 및 기기	
Wagenia sprl	의료 장비 및 기기	
MEPHARTECH SARL	의료 장비 및 기기, 의약품	외과용 치료장비 및 여러 종류의 의료기와 진단 장비를 수입
PRODIMPEX	의료 장비 및 기기, 의약품	Philips Healthcare(프랑스), Medtronic(미국)으로부터 의료기 수입

■ 수입산 의료기기 경쟁동향

브랜드명	주요 제품
Johnson & Johnson, Medtronic (미국)	정형외과 장비, 심혈관 검사 장비
PHILIPPS HEALTHCARE (네덜란드)	산소호흡기, 심장 관련 진단기, 기타 장비
Siemens HEALTHCARE (독일)	소변 검사장비, 생화학 검사 장비, 초음파 장비, 엑스레이 장비, 혈액 검사 장비
CYPRESS DIAGNOSTICS (벨기에)	혈액검사 장비, 현미경
MICHIELS (벨기에)	산소호흡기, 마취장비, 소독기, 소아과용 의료 장비, 초음파 장비, 각종 램프, 각종 검진 키트, 기타 의료 장비

■ 한국산 제품 진출 현황

○ Santé Medic-Kin사에서 한국의 병원용 복합진단검사장비 수입·판매

- 기업명 : Santé Medic-Kin
- 주 소 : 1035 Av. de la liberation, Kinshasa
- 담당자 : Herve Muthe Samuel
- 연락처 : +243-89-91-81-466
- 이메일 : samuelmuthe@yahoo.fr

■ 유망 품목

○ 아이크로마 II(ichroma™ II) 측정기

- 혈액 · 소변과 같은 체액, 기타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를 정량 또는 반정량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자동 또는 반자동 체외진단용 기기
- SD 카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
- 배터리 사용을 통해, 현장진단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인 휴대성을 개선하여 불안한 전력 환경을 지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검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가능

■ 의료기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규정

- 의료기기 관세는 5%이며, 부가가치세 16%는 면제
- 관세 및 기타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콩고 수입청(Guichet Unique d'importation)에서 처리
- 의약품들은 부가세 16% 면제
- 의료기기 수입 시, 콩고민주공화국 보사부의 수입면허승인서 필요

○ 기타 세금

- ① 선적세
- ② 하역세
- ③ 수입 면허 : 발급 절차 및 비용 자세히 기재(수입면허는 보사부에서 취급)
- ④ DGRAD(general direction of administratif and domanical recette) 수입과 관련된 서류 발급 시 부과되는 세금)
- ⑤ OGEFREM(해양 운송관리소) : CIF 값의 0.6 %
- ⑥ 지방세. 1컨테이너 당 140달러
- ⑦ OCC(congolish control office) : 도착 시 합계 1%
- ⑧ 이민국: 콩고에서는 수입절차상 이민국에 내는 세금이 있음
- ⑨ 공항에서의 세금(공항 세관)
- ⑩ 창고세 : 창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세금이 부과됨
- ⑪ BIVAC(선적 전 물류검사) : CIF 가치의 2%
- ⑫ 산업 진흥 기금(REIT) : CIF 가치의 2%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Ⅲ. 붙임



불임 (국가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 관련자료

■ 남아프리카공화국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남아공 보건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기관성격	규제기관
전문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홈페이지	http://www.mccza.com/
신청부서	Operations & Administration
담당자	Estelle Taute
이메일	ectd@mccza.com (eCTD 접수 전용)
전화번호	+27 (0)12 395 8469
기타	2017.2.1.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가 해체되고 SAHPRA가 신설되어 업무 이관 중으로 관련 정보는 기존 MC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Africa Health Exhibition
개최국가/도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개최주기/기간	매년 (2018.5.29.-31 개최 예정)
전시장	Gallagher Convention Centre
규모	약 70개국, 550여개사 참가(전시규모 : 8,338m ²)
홈페이지	https://www.africahealthexhibition.com/en/home.html
비고	아프리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Medicare Hospital Equipment			
주소	Unit 2 Pinehurst, 69 Loper Avenue, Spartan, Kempton Park, South Africa			
전화	+27 11 392 1120	구매	담당자	Minjon
팩스	+27 86 571 7661		전화	+27 12 803 1652
이메일	info@medicare-hosquip.co.za		팩스	+27 86 571 7661
홈페이지	www.medicare-hosquip.co.za		이메일	minjon@medicare-hosquip.co.za
취급품목				

의료 가구 및 의료 기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국가: 미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터키 - 동 수입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한국 기업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 - 아시아 제품은 통상적으로 중국산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	---

4) 주요병원

회사명	Life Health Care			
전화	+27 11 219 9000	구매	담당자	Dion Hasell
팩스	N/A		전화	+27 11 219 9146
이메일	N/A		팩스	N/A
홈페이지	www.lifehealth care.co.za		이메일	dion.hasell@lifehealthcare.co.za
병원성격				

- 종합 병원: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종양학, 소화기과, 물리치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운영

회사명	Netcare Group			
전화	+27 11 301 0000	구매	담당자	Anita Hamilton
팩스	+27 11 301 0439		전화	+27 11 301 0180
이메일	N/A		팩스	N/A
홈페이지	www.netcare.co.za		이메일	procurement@netcare.co.za
병원성격				

- 종합 병원: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종양학, 소화기과, 물리치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운영

■ 케냐

1) 인허가 기관

기 관 명	Ministry of Health 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
기관성격	규제기관
전문분야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인증 및 관리
홈페이지	www.health.go.ke
신청부서	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
담 당 자	Mr. M. Owino
이 메 일	miewe@hotmail.com
전화번호	+254 202 717 077
기 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법률 제도 관리

기 관 명	The Pharmacy and Poisons Board
기관성격	의약품 규제 기관
전문분야	The Pharmacy and Poisons Board는 약국 실습과 약물 및 독극물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 모든 의약품, 화학 물질 및 의료 기기 (현지 제조, 수입, 수출, 유통,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효능 및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홈페이지	http://pharmacyboardkenya.org
신청부서	Pharmaceutical Inspectorate Department
담 당 자	Registrar
이 메 일	info@pharmacyboardkenya.org
전화번호	+254 720 608 811 +254 733 884 411
기 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심사 및 승인 기관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21st MEDEXPO 2018
개최국가/도시	Nairobi / Kenya
개최주기/기간	Annual / 04-06, Sep. 2018
전시장	Kenyatt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규모	63개 업체 참가 / 4800명 참관(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medexpo.expogr.com/
비고	의료분야에서 케냐와 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알려진 전시회

전시회명	Medic East Africa
개최국가/도시	Nairobi / Kenya
개최주기/기간	Annual / 25-27, Sep. 2018
전시장	Visa Oshwal Centre
규모	164개 업체 참가 / 3700명 참관(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s://www.medicestafrica.com/en/home.html
비고	최근에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전시회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Nairobi Enterprises Ltd(NEL)			
주소	P.O. Box 42367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20-2323578-9	구매	담당자	Rajan Dhanani (MD)
팩스	N/A		전화	(254)702-967300, 0733-967300
이메일	info@nelent.com		팩스	N/A
홈페이지	https://www.nelent.com/		이메일	info@nelent.com
취급품목				

각종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비고	한국기업 거래 경험 유(진단기, 의료소모품 등)
----	----------------------------

회사명	Surgipharm Ltd.			
주소	P.O. Box 46043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20-374-9304	구매	담당자	미공개
팩스	(254)20-374-1262		전화	(254)734-224228
이메일	info@surgipharm.com		팩스	N/A
홈페이지			이메일	
취급품목				

각종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비고(Note)	주로 중국, 독일, 영국, 미국, 인도 등에서 수입중
----------	-------------------------------

회사명	Pharma Specialisties Ltd.			
주소	P.O. Box 46043 00100 Nairobi, Kenya			
전화	(254)20-3569521~3	구매	담당자	미공개
팩스	N/A		전화	(254)722-206312
이메일	psl@phillipskenya.com		팩스	N/A
홈페이지			이메일	
취급품목				

주요 의료 장비

비고(Note)	(주)필립스 의료기기 케냐 에이전트임
----------	----------------------

4) 주요병원

회사명	Nairobi Hospital		
전화	+254 703 082 000	구매	담당자
팩스			전화
이메일	hosp@nbihosp.org		팩스
홈페이지	http://thenairobihosp.org/		이메일
병원성격			

- 케냐 내 최대 사립 종합병원

비고	
----	--

회사명	Aga Khan University Hospital		
전화	+254 (0) 20 366 2000	구매	담당자
팩스			전화
이메일	akuh.nairobi@aku.edu		팩스
홈페이지	https://hospitals.aku.edu/nairobi/Pages/default.aspx		이메일
병원성격			

- 아카칸 계열에서 운영하는 사립 종합병원으로 의과대학을 부속으로 운영하며 케냐 내 종합 병원 중 최신 첨단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비고	
----	--

회사명	M.P.Shah Hospital		
전화	+254 20 4291 100	구매	담당자
팩스			전화
이메일	info@mpshahhosp.org		팩스
홈페이지	http://mpshahhosp.org/		이메일
병원성격			

- 케냐 내 3-4위 수준의 사립 종합병원

■ 나이지리아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나이지리아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기관성격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최고 기관
전문분야	정책수립, 집행, 산하기관 관리
홈페이지	http://www.health.gov.ng
신청부서	Head office department
담당자	Head Ministry of Health
이메일	infol@health.gov.ng, hmofficel@health.gov.ng
전화번호	+234-81-27256638, +234-80-22139767
주소	New Federal Secretariat Complex, Phase 111, Ahmadu Bello Way, Central Bank District, FCT, Abuja, Nigeria

기관명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NAFDAC; 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기관성격	규제, 인허가 기관
전문분야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관련 장비 수입인허가, 검사 수행
홈페이지	http://www.nafdac.gov.ng
신청부서	Senior Regulatory Officer
담당자	Mr. Ukpi .O. Samuel
이메일	registrationl@nafdac.gov.ng
전화번호	+234-80-61665113, +234-80-54430259, +234-1-4772452
주소	Plot 1, Industrial Estate, Lagos-Oshodi Apapa Express Way, Isolo, Lagos, Nigeria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서아프리카 의료기기 전시회(Medic West Africa)
개최국가/도시	나이지리아/라고스
개최주기/기간	매년/2018.10.10.-10.12.
전시장	라고스 Landmark Centre(Victoria Island)
규모	참가국수 38개국/참가업체수 143개사/참관객수 4,500명, 전시면적 3,000 s/m
홈페이지	http://www.medicwestafrica.com
비고	2014년 최초 개최 이래, 서아프리카의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로 자리잡고 있음. 전시 주최자는 Informa Global Exhibitions사임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Biotec Laboratory Products			
주소	7A Cairo Street, Adetokumbo Ademola Crescent, Lagos, Nigeria			
전화	+2348037232909	구매	담당자	Mr. Chris Nwokobia
이메일	info@biotecltd.com		전화	+23497817909
홈페이지	www.biotecltd.com		이메일	chrisbiotec@yahoo.co.uk
취급품목				

Cholestech LDX, Blood & Sperm Analyser, Ichroma Reader Etc

회사명	Darlez Nigeria Ltd			
주소	10 Lingu Crescent, Wuse 11 Abuja, FCT, Nigeria			
전화	+2348037033962	구매	담당자	Mr. Onwugbufor Chinedu
이메일	darlezabj@yahoo.com		전화	+2348037876282
홈페이지	www.darlezmedical.com		이메일	darlezabj@yahoo.com
취급품목				

Medical Imaging, Hematology, Maternal Equipment & Consumables

회사명	Emzor Hesco Limited			
주소	1 Osho Street, Opebi, Ikeja, Lagos, Nigeria			
전화	+2347080606000	구매	담당자	Mr. Agamah
이메일	info@emzorpharma.com		전화	+234-1-7362608
홈페이지	www.emzorpharma.com		이메일	agamah@emzorpharma.com
취급품목				

Endoscopy & Ultrasound System, Surgical Instruments, Hospital Furniture, Medical Disinfectants and Orthopedics Equipments

회사명	Ricado Sunnies(Nig) Ltd			
주소	No. 1/3 Hycienth Richard Okorike Close, Praise Hill Estate, Arepo by AP Filling Station, Km 10 Lagos-Ibadan Express Way, Arepo, Ogun State, Nigeria			
전화	+2348026018264	구매	담당자	Mr. Hycienth .S. Richard
이메일	info@ricadosunnies.com		전화	+2348033129065
홈페이지	www.ricadosunnies.com		이메일	ricadosunnies@yahoo.com ricadosunnies@gmail.com
취급품목				

Autoclave and Anesthesia machines, Hospital cabinets, Cranked beds and Suction Apparatus, Digital Copolscope etc.

회사명	Americare Medical Distributors Ltd			
주소	Plot 990 Sterling Bank Boulevard By Grand Square/Leventis Motors, Central Business District, Abuja, Nigeria			
전화	+2348187784000	구매	담당자	Mr. Emmanuel.A.A.
이메일	americaremedicals@yahoo.com		전화	+2348085269328
홈페이지	www.americaremedics.com		이메일	aneke2003@yahoo.com
취급품목				

X-ray machines, Tonometer, DRR Radiography System, Euroclinic ENT Workstation, Wheel Chair, Pulse Oximeter, Blood bank etc

회사명	Dortemag Ventures Limited			
주소	Plot 381G Titilayo Adedoyin Street, Omole Estate phase one, Ojodu, Lagos, Nigeria			
전화	+2348033157214	구매	담당자	Mr. Seye Agboola
이메일	info@dortemagventures.com		전화	+2348033157214
홈페이지	www.dortemagventures.com		이메일	dortemagventures@yahoo.com
취급품목				

General Eye and Dental equipment, Scanner, Simulator, LCD Monitors, Ultrasonic scalar, Autoclave and hospital furnitures etc.

회사명	Jeagles Technical Limited			
주소	11, Sehinde Callisto Street, Charity Oshodi, Lagos, Nigeria			
전화	+2348072717632	구매	담당자	Mr. Moses Ayeni
이메일	gloessien@myjeagles.com		전화	+2348030675466
홈페이지	www.myjeagles.com		이메일	jetme2@yahoo.com, gloessien@yahoo.com

취급품목

Incubators, X-rays, Ultrasound, Microscopes, Sterilizers, immunoassay systems, Lab equipment alongside general services

회사명	Rovet Scientific Limited			
주소	1, Wire Road, Benin City, Edo State, Nigeria			
전화	+2348037650668	구매	담당자	Mr. Otunba Adebayo. W. O
이메일	rovetscientific@yahoo.com		전화	+2347030496455, +2348028989630
홈페이지	www.rovetscientific.com		이메일	adebayo@rovetscientific.com

취급품목

X-ray, scanners, hospital furnitures and general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Laboratory

회사명	McDonald Scientific Emporium			
주소	Plot 152, Raymond Iromaka Close By Festac/Amuwo Fly-over Bridge, Amuwo Odofin GRA, Lagos, Nigeria			
전화	+2348035302181	구매	담당자	Mrs. Abiola
이메일	mcdonaldscientific@yahoo.com		전화	+2348035266971
홈페이지	www.mcdonaldscientific.com		이메일	mcdonaldscientific@yahoo.com

취급품목

Analyser, Spray Dryer, Spectrophotometer, Chroatology, Muffle Furnace, Oscilloscope, Oxygen Concerntrator, Microtome, Laboratory equipping and general hospital beds and furni-ture etc.

4) 주요병원

회사명	Ave Maria Hospital			
주소	Plot 7, Block 14, Oba Idowu Abiodun, Oniru Layout, Off Lekki Express Way, Lagos, Nigeria			
전화	+2347086756096, +23414617755	구매	담당자	Ms. Oluwatosin Ayoade
이메일	info@avemariahospital.com		전화	+2349026917405
홈페이지	http://www.avemariahospital.com		이메일	tosin@avemariahospital.com
병원성격				

1995년 Dr. Valeri Goriainov에 의해 설립된 병원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 내과 전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5층짜리 병원 증축을 통해, 내과 전 분야에 걸쳐 진료 가능 - 70개의 병상이 있으며(Centralized oxygen), 의료진수는 40명임 			
----	---	--	--	--

회사명	Lagoon Hospitals			
주소	8 Marine Road, Off Liverpool Road, Apapa, Lagos, Nigeria Clinic and Special Suites: 11A & 13B Idejo Street, Off Adeola Odekun, Victoria Island, Lagos			
전화	+2349034136452,	구매	담당자	N/A
이메일	appointment@ lagoonhospitals.com		전화	+2347026892368
홈페이지	http://www.lagoshospitals.com		이메일	appointment@lagoonhospitals.com
병원성격				

1986년 설립되었으며, 라고스에 5개 지점을 보유. 의료진수는 150명이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5월,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로부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중 최고 호텔로 평가받음 - Hygeia그룹의 일부이며, Mr. Max Copoolles가 소유 - 민간부문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하나로, 최신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	--	--	--

회사명	Eko Hospitals			
주소	31, Mobolaji Bank Anthony Way, Maryland, Lagos, Nigeria			
전화	+2348060834949, +234-1-2716997	구매	담당자	Dr. Ajinde S. A
이메일	ekocorp@ekohospitals.com		전화	+2348028704331
홈페이지			이메일	remiajinde@yahoo.com

병원성격

1978년 3명의 의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병원으로, 50명의 의료진 보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 Eneli, S.F. Kuku, and A.AA. Oiora 3명의 창업의사 이름을 따서 EKO 병원이름을 명명 - 정부 및 민간부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	--	--	--	--

회사명	Lagos State University Teaching Hospital(LASUTH)			
주소	1-5 Oba Akinjobi Road, Ikeja, Lagos, Nigeria			
전화	+2348057699800, +2348057699900	구매	담당자	Chief Medical Officer
이메일	info@lasuth.org.ng		전화	+2347028195985, +234-1-8786066
홈페이지	http://www.lasuth.org.ng		이메일	remiajinde@yahoo.com

병원성격

1955년 6월 정부에 의해 설립된 병원으로, 라고스 Ikeja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종합병원임. 1,000개 이상의 침대와 400명 이상의 의료진을 보유한 대형병원의 하나임.

비고	-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핵심병원의 하나임			
----	-------------------------------	--	--	--

회사명	University College Hospital Ibadan			
주소	Queen Elizabeth Road, Oritamefa, Ibadan, Oyo State, Nigeria			
전화	+2348131733446 +2348131733459	구매	담당자	Chief Medical Director, Prof. Temitope .O. Alonge
이메일	info@uch-ibadan.org.ng		전화	+2348131733333
홈페이지	http://www.uch-ibadan.org.ng		이메일	cmd@uch-ibadan.org.ng

병원성격

서아프리카 최대 도시의 하나인 Oyo주 Ibadan시에 위치한 이바단 대학병원임
1957년 11월 설립된 종합병원으로, 85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비고	- 정부조달을 통한 첨단의료장비 도입이 활발한 편임			
----	------------------------------	--	--	--

■ 수단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NMPB(National Medicines & Poisons Board)
기관성격	규제, 승인 및 등록기관
전문분야	인체/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용 소모품
홈페이지	www.nmpb.gov.sd
신청부서	Registration Department
담당자	Dr. Samia: Human Medicines. Dr. Abdelwahab: Veterinary Medicines.
이메일	mrd@nmpb.gov.sd 또는 info@nmpb.gov.sd
전화번호	+249-155-880-324 +249-155-880-295
기타	수단내 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품의 경우도 우선 관련 제조 설비 실사 및 승인후 의약품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단 한국의 경우 최근 의약품 생산 기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공장 실사를 생략하고 관련 서류로서 제조설비 승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됨. 수단내 의약품 등록 관련 NMPB사이트 참조 : http://www.nmpb.gov.sd/MedicinesDEP.html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SIMPEX(Sudan International Medical Health Care & pharmaceutical Investment Forum &Trade Exhibition)
개최국가/도시	수단 / 카르툼
개최주기/기간	비정기
전시장	Grand Holiday Villa Hotel Suites & Exhibition Center
규모	4개 국가 50여개사 부스 설치, 참관 및 컨퍼런스 참가자 1,500 여명에 달하는 전문 전시회
홈페이지	http://www.sudanmedicalexpo.com/register.html
비고	영국 Valiant Media 그룹 개최, 수단 유일의 의료전문 전시회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Dal Medical Services Company Ltd			
주소	No. 1 Block 5 East, Khartoum 2, Sudan P.O. Box 68, Khartoum, Sudan.			
전화	+249-183-595-400	구매	담당자	Mahdi Abubaker
팩스	+249-183-471-885		전화	+249-912-350-738
이메일	-		팩스	-
홈페이지	www.dal-medical.com		이메일	-
취급품목				

Glaxo Smith Kline, Roche, Alcon, Wockhardt UK and Spimaco. 다국적제약사들과 딜러십을 체결, 100가지 이상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공급

비고	- 1997년 설립된 수단 최대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유통사로 직원 50여명 - 미국,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 판매중			
-----------	---	--	--	--

회사명	Sparta Medical Enterprises			
주소	Arkaweeet, Block #65, Khartoum, Sudan			
전화	+249-912-383-633	구매	담당자	Dr. Mohamed Hassan Osman
팩스	+249-992-344-444		전화	+249-912-383-633
이메일	spartamedicalco@gmail.com		팩스	+249-992-344-444
홈페이지	www.spartamedical.net		이메일	spartamedicalco@gmail.com
취급 품목				

수술기구, 의료용 소모품, 정형외과 기기, cardiology devices, skin staplers, fiberglass cast 등

비고	- 헝가리, 이집트, 한국, 파크스탄, 네덜란드,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의료기기 수입 판매 경험 보유 - 한국산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을 높게 평가			
-----------	--	--	--	--

회사명	Almuhajir Medical Equipment Co., Ltd.			
주소	Al Amarat 15 Street, Khartoum, Sudan			
전화	+249-912-301-044	구매	담당자	Mr. Suleiman Ahmed
팩스	+249-183-466-278		전화	+249-912-301-044
이메일	suliman59@hotmail.com		팩스	+249-183-466-278
홈페이지			이메일	suliman59@hotmail.com
취급 품목				

병원, 실험실용 서플라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비고	- 일본, 이탈리아, 한국산 수입 판매경험 보유 - 한국산 의료기기, 의약품 취급 관심 표명			
-----------	--	--	--	--

회사명	Kala Pharma Medical Co., Ltd			
주 소	Dr. Mohy Aldin Sabir Building, Khartoum 3, 29/A, Opposite to Sudatel Training Center, Khartoum, Sudan			
전 화	+249-183-474-323	구매	담당자	Dr. Tariq Mohy Aldin Sabir
팩 스	+249-183-474-322		전 화	+249-183-474-323
이메일	kalapharmah@hotmail.com		팩 스	+249-183-474-322
홈페이지	www.kalapharma.com		이메일	kalapharmah@hotmail.com
취급 품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실험실, 약국 등의 거래선 보유 - 이집트, 스위스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 경험 있음 			
-----------	---	--	--	--

회사명	Terma Medical Supplies Co., Ltd.			
주 소	1 st floor, Office#2, Bldg16/14, AlBalabil Street, Arkawet Sq.43, Khartoum			
전 화	+249-155-137-388	구매	담당자	Dr. Mahgoub Mirghani
팩 스	+249-183-255-523		전 화	+249-155-137-388
이메일	mahjoob@termamed.com		팩 스	+249-183-255-523
홈페이지	www.trmamed.com		이메일	mahjoob@termamed.com
취급 품목				

의료기기, 병원, 실험실용 기구 및 소모품

비고	- 현재 이탈리아, 일본산 취급중이며 한국산 취급 의사 보유			
-----------	-----------------------------------	--	--	--

회사명	Nomas Medical Technology Co., Ltd.			
주 소	Alsouq Alarabi, Alamarat Building, 2nd floor, office #3, Khartoum			
전 화	+249-183-627-466	구매	담당자	Mr. Sami Abdelraheem
팩 스	+249-183-740-074		전 화	+249-183-627-466
이메일	masonkeil55@gmail.com		팩 스	+249-183-740-074
홈페이지	-		이메일	masonkeil55@gmail.com
취급 품목				

의료기기, 병원, 실험실용 기구 및 소모품

비고	- 현재 일본,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중이며, 한국산 취급 관심 표명			
-----------	--------------------------------------	--	--	--

회사명	Ethar Medical Co.			
주 소	Khartoum - Alsoq Alarabi, Khartoum, Sudan			
전 화	+249-183-790-232	구매	담당자	Mr. Omer Mohamed Osman
팩 스	+249-183-790-405		전 화	+249-183-790-232
이메일	etharmed_sudan@yahoo.com		팩 스	+249-183-790-405
홈페이지	-		이메일	etharmed_sudan@yahoo.com

취급 품목

의료기기, 병원, 실험실용 기구 및 소모품 전반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수입중, 한국산 취급 관심 보유
----	----------------------------------

회사명	Falag Medical Co.			
주 소	East of 60 Street, South of Bashair Gas Station, Khartoum, Sudan			
전 화	+249-912-364-584	구매	담당자	Dr. Ikhlas Ahmed Mahgoub
팩 스	+249-183-492-793		전 화	+249-912-364-584
이메일	ikhlasama@gmail.com		팩 스	+249-183-492-793
홈페이지	-		이메일	ikhlasama@gmail.com

취급 품목

치과 장비를 포함한 의료기기, 병원, 실험실용 기구 및 소모품 전반

비고	인도, 파키스탄, 독일에서 수입중으로 한국산 취급 관심 표명
----	-----------------------------------

4) 주요 병원

병원명	Royal Care International Hospital(RCIH)			
전화	+249-156-550-155	구매	담당자	Dr.Abd Alla Merghani
팩스	-		전화	+249-912-399-927
이메일	info@royalcare.sd		팩스	-
홈페이지	royalcare.sd/en		이메일	info@royalcare.sd
병원성격				

- 2010년 설립된 수단내 가장 현대화된 종합병원으로
- 내과, 외과, 정신과, 재활센터,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운영

비고	수단내 최대병원으로 대부분의 외국인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	---------------------------------

병원명	Fedail Hospital			
전화	+249 183 766661	구매	담당자	Dr. Suliman Salih Fedail
팩스	+249 183 766669		전화	+249 183 766661
이메일	info@fedailhospital.com		팩스	+249 183 766669
홈페이지	www.fedailhospital.com		이메일	info@fedailhospital.com
병원성격				

- 50여개 진료과를 보유한 민간병원, 병실, 응급실 등을 보유, 수단내 비교적
-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으로 알려짐

비고	수단내 최대병원으로 대부분의 외국인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	---------------------------------

■ 탄자니아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TFDA(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
기관성격	보건복지부(MoHCDGEC) 산하 규제기관으로 식품, 의약, 화장품 및 의료기구에 대한 공정성, 안전성, 효과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2003년 설립
전문분야	- 식품, 의약, 화장품 및 의료기구 종류 및 품질기준 선정 - 식품, 의약, 화장품 및 의료기구 수출입, 제조, 유통 규제 - 규제 상품 안정성 관리감독 및 사업 인허가 발급 - 국민보건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www.tfda.go.tz
신청부서	-
담당자	-
이메일	info@tfda.go.tz mis@tfda.go.tz
전화번호	의료기기: +255 (0)743 110375 의약품: +255 (0)743 110974 HQ: +255 22 2450512 / 2450751 / 2452108 +255 685 701735(Airtel) +255 658 445222(Tigo)
기타	의료기기 신청양식 https://tfda.go.tz/index/?q=sw/node/113 의약품 신청양식 https://www.tfda.go.tz/index/?q=medicines_downloads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Medexpo(제21회) / Dentexpo(제3회)
개최국가/도시	탄자니아 다레살람
개최주기/기간	연 1회 개최. 2018. 10. 25(목) ~ 2018. 10. 27(토)
전시장	음리마니 컨퍼런스 센터
규모	한국, 영국, 프랑스, 중국, 남아공 등 약 20개국 47개사 참여/ 참여관객수 5,800여명 예상
홈페이지	http://www.expogr.com/tanzania/medexpo/
비고	- 탄자니아 최대규모의 국제박람회인 제21회 동아프리카무역박람회(East Africa Intl. Trade Exhibition, EAITE)와 함께 개최 - 의료박람회와 치과박람회 동시 개최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Jilichem(T) Ltd			
주소	Nyerere Road, Plot No. 20 Behind Lifemate Furniture Unit #2			
전화	0222 861 763/ 0763 800 963	구매	담당자	Darshil Shah
팩스	-		전화	0222 861 763/ 0763 800 963
이메일	Inst1@jilichem.biz		팩스	-
홈페이지	www.jilichem.biz		이메일	Inst1@jilichem.biz

취급품목

X-ray, Patient Monitor System, Defibrillator

비고	- 주요 수입국가: 중국, 인도, 일본 - 희망물품: 의료용 거즈, 방사선 또는 수술 기구			
----	---	--	--	--

회사명	Pacific Diagnostics Ltd			
주소	1st Floor, TTCL Customer Care Bld, Opp. Science & Telecommunication Bld, Bagamoyo Road,			
전화	0689 848 283/ 0 22 2701032	구매	담당자	Mr. Brian
팩스	-		전화	0689 848 283/ 0 22 2701032
이메일	brian@pacificafrica.com		팩스	-
홈페이지	www.pacificafrica.com		이메일	brian@pacificafrica.com

취급품목

Mobile X-Ray, Pc Radiography System, C-Am Machine

비고	- 주요 수입국가: 독일(Siemens사)			
----	-------------------------	--	--	--

회사명	Anudha Limited			
주소	Morogoro Road, City Center Kisutu Near Brt			
전화	+255 754 274 174/ 0 222 125 746	구매	담당자	Anurag Hassija Director
팩스	-		전화	+255 754 274 174/
이메일	Anudha@anudha.com		팩스	-
홈페이지	www.anudha.com		이메일	Anudha@anudha.com

취급품목

Diagnostic Equipments

비고	- 주요 수입국가: 미국			
----	---------------	--	--	--

4) 주요병원

병원명	Muhimbili National Hospital			
전화		구매	담당자	
팩스	-		전화	
이메일			팩스	-
홈페이지	www.mnh.or.tz		이메일	
병원성격(Type of Hospital)				

탄자니아 다레살람에 위치한 전국 유일한 국립병원.

비고	EDCF는 7,650만달러 차관 투입. 무힘빌리 병원 내 전문의료인력 양성목적의 교육시설 포함한 의학대학 메디컬센터 건물 설계, 감리, 시공(4,950만달러) 및 의료기자재 공급(2,700만달러) 등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 4곳에서 수행. 2009 ~ 2016.8완공 (2017년 11월 25일 개원)			
----	--	--	--	--

병원명	Haydom Lutheran Hospital			
전화	0784 619 160 0752 725 770	구매	담당자	Dr. Emanuel Nuwass Managing Director, medical
팩스	-		전화	0784 619 160 0752 725 770
이메일	emanuel.nuwas@haydom.co.tz		팩스	-
홈페이지	https://haydom.or.tz		이메일	emanuel.nuwas@haydom.co.tz
병원성격(Type of Hospital)				

- 외과진료: 정형외과, 치과, ICU, 수술
- 일반치료: 심부전, 이질, 말라리아, 아메바성 감염, 당뇨 치료
- 진단 서비스: 방사선, 임상검사실
- 1차 진료 서비스: 외래환자 진료 서비스

비고	의약품과 백신은 MSD를 통해 조달, 수술이나 진단장비 등의 의료장비는 노르웨이에서 직접 공수받음			
----	--	--	--	--

■ 가나

1) 인허가 기관

기 관 명	Food and Drugs Authority and Ghana Standards Authority
기관성격	규제 및 인증기관(Regulatory Authority / Certification Authority)
전문분야	가나의 식량 및 의약품 규제(Regulation of Food and Drugs in Ghana)
홈페이지	https://fdaghana.gov.gh
신청부서	의약품 등록 및 감사과(Drug Registration and Inspectorate Division)
담당자	The Chief Executive Officer
이 메 일	fda@fdaghana.gov.gh
전화번호	+233 302 229 794
기 타	가나 표준 기관(Ghana Standards Authority) 홈페이지: https://www.gsa.gov.gh/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Ghana Trade Show 2018
개최국가/도시	가나 아크라
개최주기/기간	2018년 8월 16일-18일
전시장	아크라 국제컨퍼런스센터(Accr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규모	12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약 20개의 국가가 참여할 예정
홈페이지	http://www.growexh.com/ghanatradeshow/
비고	자동차산업, 뷰티, 건설, 보안, IT, 플라스틱, 의약, 식자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Benco Hospitex Limited			
주소	93 Guggisberg Avenue Mamprobi, P. Accra- Ghana			
전화	+233 302 66 33 57	구매	담당자	Procurement Manager
팩스	233 302-676253		전화	+233 0 302 66 33 57
이메일	info@bencohospitex.com		팩스	+233 302-676253
홈페이지	http://www.bencohospitex.com/		이메일	info@bencohospitex.co
취급품목				
외과용 겸자, 디지털 분석기, 체중계, 수술대, X-ray, 현미경 등				
비고	- 주요 수입국가: 미국, 중국, 영국 등			

4) 주요병원

회사명	Korle Bu Teaching Hospital			
전화	+233 302 739 510	구매	담당자	Director of Administration
팩스	N/A		전화	+233 302 739 510
이메일	info@kbth.gov.gh		팩스	N/A
홈페이지	http://www.kbth.gov.gh/		이메일	info@kbth.gov.gh
병원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에서 가장 큰 병원이자,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종합병원임. - 2,000개의 침대와 17개의 임상/진단 부서가 있으며, 일평균 1,500명의 환자가 방문하고 250명의 환자가 입원함. - 병원 임상/진단 부서에는 의약, 아동 건강, 산부인과, 병리학, 실험실, 방사선과, 마취, 수술, 외과, 응급실, 재해재난, 종합센터 등이 있음. 				
비고				

■ 코트디부아르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DPML(Direction De La Pharmacie, Du Medicament Et Des Laboratoire De Cote D'Ivoire) : 코트디부아르 제약청
기관성격	허가 및 규제기관
전문분야	의약품 등록 및 판매승인
홈페이지	https://www.dpml.ci/fr
신청부서	N/A
담당자	N/A
이메일	secretariat@dphm.ci
전화번호	+ 225 21 35 73 13 / +225 21 35 13 24
기타	https://www.dpml.ci/fr/liste-documents-publics?tid=2

2)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Icasa(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and Sti in Africa)
개최국가/도시	코트디부아르/아비장
개최주기/기간	2017.12.04.~09
전시장	Sofitel Abidjan Hôtel Ivoire
규모	133개 부스/56개국 참여/참관객수 약 10,000명
홈페이지	http://fr.icasa2017cotedivoire.org
비고	한국기업 셀트리온(Celltrion) 참가

3)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Labomed			
주소(Address)	22 Bp 1500 Abidjan Cocody			
전화(Tel)	+225 22 42 44 41	구매	담당자	Nadia Kouakou
팩스(Fax)	N/A		전화(Tel)	+225 07 92 99 18 +225 03 23 39 30
이메일(E-mail)	infomedilabo@yahoo.fr		팩스(Fax)	N/A
홈페이지	N/A		이메일	infomedilabo@yahoo.fr
취급품목(Items)				
의료용 소모품				
비고(Note)	- 최근 중국산 의료용 소모품 판매량 급증 - 중국(Comming) 및 미국 기업(Stand Bio)과 협력하여 의료기기(채혈기 등) 수입			

4) 주요병원

회사명	PISAM			
전화(Tel)	+225 22 48 31 31	구매	담당자	Kouadio Kouakou
팩스(Fax)	+225 22 48 31 32		전화	+225 48 55 46 92
이메일(E-mail)	bilandesnte@pisam.ci		팩스	N/A
홈페이지	www.pisam.ci		이메일	info@pisam.ci
병원성격				
서아프리카 최대 규모 종합병원				
비고(Note)	- 최근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 KT가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됨			

■ 모잠비크

1) 인허가 기관

기관명	Central of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기관성격	규제기관
전문분야	조달
홈페이지	www.cmam.gov.mz
신청부서	구매국(Purchase Department)
담당자	Antonio Amade Amisse
이메일	Sn_seny@yahoo.com.br
전화번호	+258 843945075
기타	홈페이지는 현재 수리 중

2)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Big Bang Lda			
주소	Av. Zedequias Manganhela, Maputo, Mozambique			
전화	+258 21 312 325	구매	담당자	Pedro Missa
팩스	+258 21 322 704		전화	+258 82 305 9014
이메일	pedromissa@bigbangitd.com		팩스	+258 21 322 704
홈페이지	www.bigbangltd.com		이메일	pedromissa@gmail.com
취급품목				
현미경, 혈액분석기, 의료용 소모품 등				
비고	- 주요 수입국가 : 포르투갈, 남아공, 인도, 중국 - 한국산 X-ray, 진단기, 혈액분석기 수입에 관심			

3) 주요병원(Main Hospital)

회사명	Maputo Central Hospital			
전화(Tel)	+258 21 320 012	구매	담당자	Redwaan Esmail
팩스	+258 21 320 828		전화	+258 82 466 5910
이메일	-		팩스	-
홈페이지	www.hcm.gov.mz		이메일	ridwaanesmail@gmail.com
병원성격(Type of Hospital)				
- 모잠비크 수도 마푸투 시내에 위치한 국립 종합병원				
비고(Note)	응급센터, 약국 운영			

■ 콩고민주공화국

1) 인허가 기관

기 관 명	보건부
기관성격	정부에서
전문분야	보건, 건강
홈페이지	www.minisanterdc.cd
신청부서	보건부 제 3국, 의료기, 의약품, 전통 약제 담당
담당자	Justin Kindenge Binze(의사, 실무행정 담당 팀장) Thomas Luzolo lua Kungienda Céline N'Sumbu Feza
이 메 일	-
전화번호	+243 815996510 +243 998587204 +243 81502 0943
기 타	-

2) 의료기기 수입 주요 에이전트

회사명	ESSOREQUIPEMENT			
주소	Galerie Botour Local 13 C/Gombe, Kinshasa			
홈페이지	www.essor-equipments.cd	구매	담당자	MR. GABRIEL MAKUTA
			전화	+243 819982042
취급품목				

모든 의료 장비와 기기

비고	- MICHIELS라는 프랑스 공급업체로부터 주로 의료장비를 수입
----	--------------------------------------

회사명	Sante Medic-Kin			
주소	Rond Point Molaert C/Ngiri Ngiri			
홈페이지	-	구매	담당자	Mr. Hervé Muthe Samuel
			전화	+243 899181466
취급품목				

모든 의료 장비와 기기

회사명	Wagenia sprl			
주소	Av. Wagenia c/Gombe, Kinshasa			
홈페이지	www.wagenia.com	구매	담당자	Mr. Camille sarkis
			전화	+243 997000096
취급품목				

모든 의료 장비와 기기

회사명	Mephartech Sarl			
주소	Av. Abbé Kaoze 301, Lbimbashi, Katanga			
홈페이지	www.mephartech.com	구매	담당자	Mme. Marine Issumo
			전화	+243 .99.99.83.150
취급품목				

모든 종류의 의료기, 의약품

비고	- 외과용 치료 장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의료기와 진단 장비를 수입
-----------	--

3) 주요 병원 리스트

병원명	Clinique Ngaliema			
전화	00243 81 529 32 68	구매	담당자	Dr. Kongo Minga Roger
팩스	-			
이메일	cliniquengaliema@yahoo.fr			
홈페이지	www.cliniquengaliema.org			
병원성격				

공고에서 제일 큰 국립병원

비고	- 거의 모든 진료과목 취급
----	-----------------

병원명	Centre Medical Diamant			
전화	+243-8171215555 +243907777780	구매	담당자	Mr. Rahim Tajdin(Ceo) / Mr. Pierrot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www.cmd.cd			
병원성격				

사설 병원

비고	- 거의 모든 진료과목 취급
----	-----------------

병원명	Ngaliema Medical Center			
전화	+243 0815094444 +243 898626152	구매	담당자	Mr. Faustain Mololo Somue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www.ngaliemacenter.org			
병원성격				

사설 대형 병원

비고	- 치과, 안과, 정형외과, 물리 치료사, 심장학, 소아과, 부인 과학, 비뇨기과
----	---

병원명	Centre Medical De Kinshasa (Cmk)		
전화	대표전화 : +243 89890301 원무과 : +243 814726644	구매 담당자	Mr. Rodolph Ahmed(Ceo)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www.cmk-cd.org		

병원성격

사설 병원

비고	- 치과, 안과, 정형외과, 심장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	---------------------------------------

병원명	Centre Hospitalier Monkole		
전화	+243 898924426	구매 담당자	Mr. Alphonse Mosolo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www.monkole.cd		

병원성격

사설 대형 병원

비고	- 치과, 안과, 정형외과, 물리 치료사, 심장학, 소아과, 부인과, 비뇨기과
----	---

병원명	Clinique Universitaire De Kinsahsa		
전화	+243 815041255	구매 담당자	-
팩스	-		
이메일	-		
홈페이지	-		

병원성격

국립 대학병원(킨샤사 소재)

비고	- 치과, 안과, 정형외과, 물리치료과, 심장학, 소아과, 부인 과학, 비뇨기과, 산부인과
----	--

작성자

◆ 아프리카지역본부	이종민 차장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대리
◆ 라고스무역관	편보현 관장
◆ 나이로비무역관	김명희 관장
◆ 카르툼무역관	임성주 관장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종현 관장
◆ 아크라무역관	조상재 관장
◆ 다레살람무역관	전희수 과장
◆ 킨샤사무역관	이승수 관장
◆ 마푸투무역관	고일훈 관장
◆ 아비장무역관	신정수 관장
◆ 시장조사팀	강환국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8-010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8년 7월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시장조사팀(02-3460-7591)

ISBN : 979-11-6097-726-4 (93320)
979-11-6097-693-9 (95320) (PDF)





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